

(治積)에 특별히 기록할만한 것이 없었을 뿐 아니라 중앙정계의 당쟁 여파가 건잡을 수 없이 조선에 범람하여 정변 끝에는 반드시 총독, 총감의 지위 변동이 문제에 오르게 되고, 인심은 긴장하여 그날그날을 흐지부지하게 지내지 못하는데다가 재계불황(財界不況), 미가저락(米價低落) 등 모든 경제적 원인이 더욱 반도의 활기를 사라지게 하였다. 이때에 총독의 경질이 발생해 대리총독시대(代理總督時代)에 일찍이 일면(一面)의 매운 맛을 보이던 우가키 씨가 이마이다 이하 막료를 이끌고 씩씩하고 늙름한 자태를 백악전당(白堊殿堂)에 나타냈다. 이때부터 우원정치의 신기원시대가 출현하여

지하자원의 개발

북선(北鮮) 개척

남면북양(南綿北羊) 정책⁴³⁾

교통정비

농산어촌(農山漁村)의 진흥과 자력갱생운동

심전(心田)⁴⁴⁾ 개발

부인의 각성 촉진

초중등교육 확장

등등 실로 조선에 있어 이토, 데라우치의 통감, 총독시대로 따르지 못할 활기 있고 깨끗하고 산뜻하며, 충실한 시절시대를 본 것이다. 그 뒤의 5년여 우가키 총독은 실로 북마남선(北馬南船)⁴⁵⁾의 문자 그대로 잠자고 먹는 것도 있고 온 나라의 도시와 시골을 찾아다니며 관민을 격려하였다. 총독이 몸소 시설의 제1선에 서서 삼군(三軍)을 질타하기는 우가키 씨가 처음으로, 그 진지한 열의, 왕성한 활동력, 말한 것은 반드시 실행하는 기백과 성의는 아무리 그에게 악의를 가진 사람이라도 공정하게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용맹스러운 장수 아래에는 힘이 약한 군졸이 없는 것이 이치이다. 이로부터 관계(官界)의 공기는 새로워지고 사기가 크게 떨쳐 게으름을 피우는 자가 없게 되었다. 그 위에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시국이 비상에 들면서부터 민심은 180도로 대전향이 되고 시설은

43) 1930년대 일제가 자국의 공업원료로 이용하기 위해 한반도의 남쪽에서는 목화재배를, 북쪽에서는 양 사육을 강요한 식민정책.

44) '마음의 밭'이란 뜻으로 '정신(精神)'을 비유(比喻)하는 말.

45) 중국의 남쪽은 강이 많아서 배를 이용하고 북쪽은 산과 사막이 많아서 말을 이용한다는 뜻으로, 늘 쉬지 않고 여기저기 여행을 하거나 돌아다님을 이르는 말.

100%의 효적(効積)을 드러내어 오늘 빠르게 진보하는 조선을 출현하게 하였다. 그의 시절 중에서도 특히 조선 사람으로서 감사하며 기억하여 둘 것은 문맹퇴치와 식발 장려일 것이다. 그리고 요사(搖祀)와 사교(邪敎)를 물리쳐 조선 민중을 미신 속에서 건져 구하려고 근본방침을 정한 것이요, 물질생활의 향상과 아울러 심전(心田) 개발이라는 정신방면을 내버려 두지 않은 것이요. 정치가로서의 그의 웅대한 계획은 일본해를 비와코(琵琶湖)⁴⁶⁾의 연장으로 본다는 소위 북진 방침에 따라 용의 한 조각 비닐, 표범의 얼룩점을 보인 것이다. 이와 같이 반도 산하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기고 이름을 널리 알린 오늘날에 2·26사건을 계기로 거취(去就)를 깨끗이 하여 과거 50년 군인생활의 총결산을 행하고, 대궐 아래에 해골을 빌어 제2차의 하야(下野)를 행한 것이다.

푸른 산은 본래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데(靑山元不動)
 흰구름만 저 혼자 오락가락 하더라(白雲自去來)
 뜬 구름 안에서(身在浮雲中)
 뜬 구름 위를 우러러 본다(仰觀浮雲上).

이것이 아마도 그의 현재 심경일 것이다. 구차한 비방과 칭찬이 장부(丈夫)인 그에게 무슨 신경 쓸 재료나 될 것이라.

〈이상 (3)〉

동정(動靜) 우가키 씨의 장래

육군대장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는 아마 현대의 일본이 가진 중신급 인물 중에서 가장 일류의 지위에 있을 사람일 것이다. 그 강철 같은 체구와 의지며, 박력을 가진 면모와 기백, 그리고 박실(朴實)한 가운데 기략(機略)을 감추고 면밀한 두뇌에 경륜의 재능을 겸하여 어느 점으로 보든지 그 계급에서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뛰어난 인물로 단연 광채가 나는 인물이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동산(東山)의 사안석(謝安石)⁴⁷⁾처럼 일부가 정국(政局) 요리를 그 뛰어난 솜씨로 발휘하기를 기다리는 반면 또 일부는 호□(虎□)

46) 일본에서 가장 큰 호수.

47) 동진(東晉)의 재상(宰相). 환온(桓溫)의 사마(司馬)가 되어, 효무제(孝武帝) 때에 전진(前秦)의 부견(苻堅)이 쳐들어오자, 총수(總帥)가 되어 이를 비수(淝水)에서 쳐부수었다.

같이 두려워하고, 뱀과 전갈처럼 끌리게 하여 지지하는 것처럼 배격하여 언제까지나 수상(首相)의 만년 후보에 그치고 이른바 뱀장어의 냄새(鰻香)조차 아직 쏘며 보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가 과연 동산의 안석인지의 여부를 내가 보장할 수 없는 동시에 그 호랑이가 아니요, 뱀도 아닌 것은 반론할 것도 없다. 그러나 하여튼 이 세상 사람의 정반대되는 평가와 및 상응하지 않는 비방과 칭찬에서 나오는 옹립파(擁立派)와 배격파(排擊派) 때문에 그의 곤혹도 심하였으며, 일본 국가가 받은 손실도 적지 않았다. 우가키가 없다고 해서 정계에 수상급 인물이 동난 것은 아니로되, 이미 이만한 확실한 인물이 있으면서도 쓰지 않고 언제든지 그 이하의 인물을 내세우고 둔한 말을 채찍질하여 빨리 달리라는 것은 매우 무리한 익살이 아닌가 한다. 인물 불저(拂底)를 탄식하는 한편에서 인물을 썩혀 버리는 것이 어찌 모순이 아니며, 경제적이지 않은 것이 아니냐.



우가키의 사직이 한번 발표되자, 정계는 갑작스레 긴장되고 특히 인물난에 걸려 초조증(焦燥症)이 막바지에 이른 민정(民政), 정우(政友)의 2대 정당은 크게 동요하여 이후에 우가키의 일거수일투족이 정계의 주목을 끌 뿐 아니라 그의 울고 웃음은 즉시 당인(黨人)의 희애(喜愛) 재료가 되리라 한다. 동도(東都)의 신문지는 당분간 이것으로 상당히 심심하지 않은 경황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당계(黨界)와 재계(財界), 기타 각 방면의 우가키 옹립파가 아무리 책동을 개시한다 하여도 우가키 씨는 아무데도 움직이지 않고 얼마 동안 떠도는 몸으로 조용히 세상을 바라보는 상태를 지속하리라고 나는 믿는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까지 월경(月經)이 막힌 노인이 아니요, 따라서 정국(政局)에 대하여 식욕이 전혀 동하지 않을 리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어느 한편으로는 재능을 발휘할 때를 얻지 못하여 헛되이 세월만 보내는 것에 대한 한탄을 금치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 사나운 외모와는 반대로 세심하고 소심한 일면을 가졌고 저돌적 기백을 자제하는 냉철한 이지(理智)가 있으므로 자기의 출각(出脚)⁴⁸⁾이 매우 적어도 임금과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고 갑자기 인심을 크게 흔들어 시국을 시끄럽게 하면 이런 타산을 잊어버려가면서까지 남의 추념에 춤추고 노래 부를 사람도 아니요. 종래의 우가키 배격이 △△방면의 △△△△가 그 진원지라는 생각이 있었으므로 숙군(肅軍)의 때에 이미 장로의 한 사람으로 현역 대장들과 함께 책임을 진 몸을 무엇 하러 이때에 시비 와중에 투입할 것이라. 이후에 만일 그가 다시 일어서는 날이 있다 하면 진정한 여론이 하나가 되어 은혜와 유

48) 벼슬자리에서 물러났다가 다시 벼슬길에 나아감.

감을 모두 잊고 같은 마음으로 힘을 다해 시국의 어려움을 함께 하려는 기운이 양성된 때 일 것이요. 그렇지 않는 한 일부의 당인이나 관료를 위하여 구주로 희생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요컨대 지난 1914년에 고(故) 오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가 부활하던 시대 같은 운명이 찾아오기 전에 그는 자의든 타의든 정국의 중심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군인과 및 정치가로서의 우가키에게는 보는 자에 따라 비방과 칭찬이 다르지만 아무리 깎아 내린다 할지라도 그가 유능한 공인(公人)인 것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나 이의가 없을 것이요, 그 숭배자들로부터는 대부분 만점의 찬미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개인 우가키에 이르러서는 지(智), 정(情), 의(意)의 세 가지가 함께 원만하여 믿음과 의리 있는 사회의 신사, 인정이 많은 가정의 훌륭한 늙은이, 아랫사람의 사정에 대해 단(甘) 것도 알고 쓴(苦) 것도 아는 때(垢)를 벗은 사람으로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内正毅)의 날카로움과 사이토 마코토의 원만함을 적당하고 고르게 갖춘 모양이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몹시 가난할 때에 고생을 함께 겪어 온 아내를 병으로 인한 고통 중에 위로하고 도와 애처가의 칭찬과 감탄을 받고, 러일전쟁 전후의 북한주차시대(北韓駐劄時代)에 서로 알게 된 관찰사, 군수 등의 당사자와 유족에게 정의를 베풀어 우정총독(友情總督)의 이름을 듣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총독 우가키로서 크게 칭찬하고 감탄할 것은 그가 그 인사 행정을 주로 공평하게 하고 관직으로 자신의 문벌을 심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가키 시대의 반도 정계에는 종래와 같은 재래종(在來種) 또는 신래종(新來種) 운운하는 괴상한 소리가 들리지 않고 대소 관리가 안심하고 직무에 힘써 온 것이다. 이 일만으로도 우가키 정치는 인정정치라는 이름을 들음에 부족이 없을 것이다.

〈이상 (4)〉

신뢰할 신총독과 미나미(南)장군 소상(小像)

남산(南山) 아래의 녹천정(綠泉亭)⁴⁹⁾은 이조 말기의 유재(儒宰) 김상현(金尙鉉, 經臺輔國)이 여생을 보낸 은둔처로 속된 세상 중에서 하나의 별세계를 자체적으로 이룬 곳이

49) 조선 초에 무학대사(無學大師)가 터를 잡았던 곳으로 을사조약에 의해 통감부가 설치되고 이토 히로부미가 통감으로 와 있으면서 새로 정자를 짓고 '녹천정(綠泉亭)'이라 하였다.

다. 병오(丙午) 초봄에 통감기(統監旗)가 휘날리게 된 이래 세월이 흘러 이토(伊藤), 소네(曾彌), 데라우치(寺內), 하세가와(長谷川), 사이토(齋藤), 우가키(宇垣), 야마나시(山梨)와 및 제2대 사이토, 우가키를 통하여 무릇 주인공이 9번 바뀌었다. 이제 새로 온 미나미지로(南次郎) 총독을 맞이하면 때마침 제10대가 되는 셈이다. 그중에서 야마나시와 우가키 및 미나미의 3인을 제하면 나머지는 전부 고인이 되어 버렸다.

청산은 말이 없고 충조(鳥蟲)만 지저귀어 주인을 보내고 맞이한다. 이에 이르러 녹천(綠泉) 동산은 일개 ‘노노정(勞勞亭)’이 되고 말았다. 문노니 노노녹천정(勞勞綠泉亭)의 감개는 아무튼 아마도 ‘이별할 때 산봉우리의 구름을 한가로이 본다(別時閑看岫雲靑)’의 춘무산인(春畝山人)이 남긴 글귀가 떠나가고 남아있는 두 사람의 회상을 대표하여 그린 것 같다.



우가키가 가고 미나미가 온다. 미나미 대장은 뒤를 따르기에 유명한 사람으로 조선군 사령관을 거쳐서 육군대신의 후임이 되었고, 이제는 관동군사령관과 주만대사(駐滿大使)로 만주 바람을 쐬다가 돌아온 지 몇 날이 못 되어 또 다시 조선총독의 후임이 되었다. 신구(新舊) 총독은 그 연령에서 4~5세의 틀림이 있는 만큼 군인으로서의 경력, 정치가로서의 위세와 명망, 명성과 공적이 모두 우형남제(宇兄南弟)의 느낌이 있는데, 다만 술을 마시는 분량과 담대함만은 형이 아우를 따르지 못하리라 한다. 그리고 미나미 장군은 육군부 내에서 훌륭한 전략가요, 또 중국에 정통한 대가로 주지사령관(駐支司司令官)과 참모차장(參謀次長)의 경험이 이 사이의 사정을 대신 설명하는 것이며, 이 점에서도 우가키 씨는 저에게 하나의 계책을 넘겨줄 모양이다. 요컨대 우가키 씨는 더 정치가다운 것에 대해 미나미 씨는 더 군인다운 것이 큰 차이 없는 관측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 두 사람의 비교론이요, 이것을 떠나서는 우가키 씨가 비범한 군인인 것과 마찬가지로 미나미 씨도 훌륭한 정치가의 한 사람인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바이다. 더욱이 미나미 장군은 비록 총독으로서 새로운 학생의 한 사람이나, 일찍이 군사령관 시대에 조선에 오래 있어 발자취가 전 도에 미쳤고, 최근까지도 만주국에 머물러 조선인 문제에 관련하였으므로, 풍토(風土), 인정(人情)으로부터 국방과 산업 등 크고 작은 정세와 형편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고 그의 정치적 수완, 역량도 이미 육상시대(陸相時代)와 주만대사 시절에 시험을 치러 거뜬하게 합격한 사람으로, 우가키 씨의 후임으로 반도 통치를 담당할 사람을 노장군(老將軍) 가운데서 고른다면 이만한 적임자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장군이 을불 제도사건(帝都事件)의 책임을 지고 현역을 물러난 뒤로 한가하게 가마쿠

라(鎌倉)에 있으면서 책을 읽으며 날을 보내는 것 외에는 때때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죽고 병든 옛 부하의 위문에 몰두하는 것으로 장군의 욕심 없는 성격과 인정가(人情家)인 한 면을 알 것이며, 왕년에 만주에 새로 부임하여 취임 피로연에서 두 나라 문무(文武)에게, “일본인은 우월감을 버리라. 만주인은 시기하고 의심하는 마음을 없애라. 그리하여 넘치는 신뢰를 임금의 뜻을 받은 못난 지로(次郎)에게 주어 달라.”는 대연설을 행하여 모인 사람들을 감동케 하는 중에 특히 당시 총리이던 정효서(鄭孝胥) 노인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조아렸다고 한다. 여기에 변동이 없는 한 장군의 조선 총독직에서도 물론 성공할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이마이다 기요노리(今井田清徳) 씨가 우가키 씨를 따라 죽은 후 뒤이어 5·15사건⁵⁰⁾ 때의 경시총감(警視總監)으로, 최근까지 미나미 장군을 따라 관동국총장(關東局總長)으로 있던 오노 로쿠이치로(大野緑一郎) 씨가 기용되었다. 미즈노 렌타로(水野), 시모오카 주지(下岡) 씨 같은 정무총감과 달라서 이름은 정무총감이라 하지만 실상은 사무총장(事務總長)이나 비서관장(秘書官長)에 지나지 않고, 온전한 막료의 한 사람으로 총독의 마음에서 나오는 정책을 오직 충실하게 몸소 행하는 것이 오늘날의 정무총감이다. 따라서 우가키 씨의 그림자이던 이마이다 씨를 특히 드러낼 것이 없음과 마찬가지로 오노 씨에 대해서도 아무런 요구할 것이 없다. 더욱이 조선의 시설 경영은 우가키 시대에 이미 뿌리를 박아냈은즉, 후에 온 자들은 ‘약속을 지키고 받들어 어기지 않는다’라는 것이 노력은 적게 들이고 큰 성과를 얻는 빠른 길이 될 것이다. 끝으로 기억할 것은 노노정 위에 나고 드는 두 주인에게 간 자도 평안, 온 자도 평안하라고.

(7월 5일 밤 비 소리 듣는 빙교(氷橋) 서창(書窓)에서)

〈이상 (5)〉

〈출전 : 洪承壽, 오는 總督 가는 總督(1~5), 『每日申報』, 1936년 8월 8일~12일〉

50) 1932년 5월 15일 일본의 해군 청년장교 야마기시 히로시(山岸宏), 미카미 다쿠(三上卓), 구로이와 이사무(黒岩勇) 등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쿠데타 기도. 시중 혼란을 틈타 오카와 슈메이(大川周明)의 개혁안 실행을 꾀하고자 했다.

18. 홍승구, 육군기념일

육(陸) 제1군사령관 구로키 다메모토(黒木爲楨)가 압록강으로부터 진병하여 구련성(九連城)과 봉황성(鳳凰城)을 계속 점령하고 수(岫)에 이르는 사이에 오보(吳保)이 지휘하는 제2군이 금주(金州), 남산(南山)에서 북상하여 웅악성(熊岳城) 분수령(分水嶺)을 차례로 공격하여 함락하며, 제4군은 노즈 미치쓰라(野津道貫)를 우두머리 장수로 삼아 한 번에 석목성(析木城)을 깨뜨렸다. 그리하여 제1, 제2, 제4의 각 군이 세 길로 나란히 나아가 요양(遼陽)으로 향하였다. 1904년 9월 3일에 요양(遼陽)은 드디어 일본군에게 점령되고 10월 5일에는 사하대회전(沙河大會戰)에서 큰 승리를 거두어 한때는 연영천리(連營千里)로 요동벌에 호거(虎踞)하고 있던 러시아의 100만 군사가 북으로 북으로 달아나면서도 □정(□定)의 퇴각이라는 기이한 말을 발하였으니 그들의 의도는 장차 봉천(奉天)에 머물러 전군을 집결하여 가지고 일(逸)로써 때를 기다려 한 번에 전승을 기대했던 것이다. 1905년 1월 2일에 노기 마레스께(乃木希典)의 제3군이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 힘을 다해 싸워 저순견학(底順堅學)을 함락하며 이에 장차 북진하여 최우익(最右翼)이 되고, 카와무라 카게아키(川村景明)가 거느린 압록강 군(軍)으로 동서요응(東西遙應)하여 최좌익(最左翼)의 카아무라 군(軍)이 기병(奇兵)을 내어 적을 견제하는 사이에 노기 군(軍)이 봉천 뒤편으로 돌아 적의 귀로(歸路)를 끊었다. 3월 10일, 33년 전 3월 10일에 큰 바람이 누런 먼지를 일으키고 조용한 살기가 높은 하늘을 가리어 대낮을 어둡게 하던 날 일본의 5로군(路軍)은 봉천성 총 공격에 광고(曠古)의 승전을 거두고 적은 전군이 달아나 장춘(長春) 이남에 다시 그림자를 보이지 못하였었다.



3월 10일 황군(皇軍)이 봉천성(奉天城)을 점령하니라.

만주군총사령관 오야마 이와오(大山巖) 원수(元帥)는 진중일지(陣中日誌)에 이같이 기록하고 그 안에 ‘일장공성만고(一裝功成萬枯)’의 옛 시 한 마디를 덧붙여 적어 이름난 장수의 감개(感慨) 깊은 도회(陶懷)를 보였다. 이달 「봉천성을 점령하니라」의 7~8자가 넘지 않는 간결한 문구 중에는 실로 아동천백재유사(亞東千百載有史) 이래 세상을 몹시 놀라게 한 큰 사실이 기록되었던 것이다. 신흥 일본이 국운을 걸어 대륙 제패의 용쟁호투(龍爭虎鬪)를 연출하던 활극(活劇)이 승리의 결산을 치른 날이요, 극동(極東)의 지도가 색을 고치며, 세계 정국의 정세가 굉장한 변화를 부르던 모든 기괄(機括)이 이로써 새로

운 출발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래로 더욱이 청일전쟁 후의 삼국간섭으로부터 요동반도의 환부(還附)를 겪은 뒤의 문자 그대로 온갖 괴로움을 참고, 정성을 다해 온 일본의 정열과 씩씩한 기상이 합해 신과 사람이 함께 돕고 강적이 무릎을 꿇었던 것이다. 어찌 한갓 일본 육군의 기념일이 될 뿐이라. 황색인종이 씨를 퍼뜨리고 역사가 멸망하지 않는 한 하늘과 땅이 오래되어 영원하고 닳지 않는 큰 기록이 실로 ‘봉천성 점령’의 이날로써 작성되었던 것이다.



일러전쟁은 위로는 메이지대제(明治大帝)의 위엄과 아래로 일본 전 국민의 온갖 성취와 지능을 합하여 이긴 것이요. 밖으로 모든 동맹국들의 원조도 있던 것인 즉 어찌 누구에게 한하여 뛰어난 공로를 정하여 돌리랴마는, 적어도 일본 육군에서는 공성야전(攻城野戰)에 포화(砲火)를 무릅쓰던 장수와 병졸과 운첨(運添)□□의 모사(謀士) 이외에 두 사람의 특수임무에 종사하던 장군을 망각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한 사람은 고인이 된 다나카 기이치(田中義一) 대장으로 그가 중소좌(中少佐) 시대에 여러 해 러시아 수도에 파견되어 머물면서 저 나라 군대의 모든 내부 사정과 실력을 살피고 동첩(動輒) 러시아군의 크고 강함에 겁을 내어 개전(開戰)을 의심하고 주저하는 원로와 군부 수뇌부를 설득하여 러시아군이 비록 많으나 두려워할 것 없다는 옳은 판단을 제공하였던 것이요. 또한 사람은 고(故) 아카시 모토지로(明石元二郎) 대장으로 개전과 함께 러시아 수도를 물러나 파촉(波瀾)을 중심으로 어제는 영국의 수도에 몸을 드러내다가 내일은 지중해에 출몰하는 등 실로 전쟁으로 몹시 어려운 세상에서 뛰어난 책사(策士) 같은 신비한 재주를 부리면서 저들의 혁명 거두(巨頭)이며 기이한 승려, 요녀 등 모든 배우를 조종하여 후방의 교란 공작에 충분한 성공을 거둔 것이다. 필자는 두 장군이 살아 있을 때에 그 호탕하고 쾌활한 모습을 마주 대할 기회를 얻어 한두 차례 말을 주고받은 적이 있었으므로 이날에 대해 더욱 감개가 깊은 것을 덧붙여 적는다.

〈출전 : 洪承孝, 陸軍記念日, 『毎日申報』, 1937년 3월 13일〉

19. 국민적 자각의 현현(顯現)(사실)

1.

상호부조는 인류 생존의 기본 조건이다. 땅을 달리는 것이 짐승에 미치지 못하고, 하늘을 나는 것이 조류에 미치지 못하며 헤엄치는 것이 어류에 미치지 못한 것이 인류요, 또 추위와 더위에 대한 감내력(堪耐力)과 저항력이 다른 어떠한 생물보다도 취약한 인류가 능히 만물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며, 만물의 영장으로 영화를 누리게 되는 것은 실로 이 상호부조의 미덕을 가지고 있음에 의한 것이다. 그리하여 이것이 관념으로 다르게 나타나면, 충(忠), 효(孝), 제(悌), 우(友)요, 모양으로 나타나면 가정, 향당(鄉黨)⁵¹⁾, 국가, 사회이다. 충, 효, 제, 우의 여러 덕이 개명(開明)되면 개명될수록 가정, 향당, 국가, 사회가 공고(鞏固)를 가하면 공고를 가할수록 인류 문화가 향상되고, 인류 복지가 증진되며, 충, 효, 제, 우의 여러 덕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가정, 향당, 국가, 사회가 승리하면 승리할수록, 인류 문화가 퇴□(退□)되고, 인류 복지가 저해되는 까닭이 실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2.

가정이 없고, 국가가 없는 것만큼 슬픔과 설움이 크고 불행이 큰 자는 없다. 그리하여 이는 가정이 없고, 국가가 없으면 인류 생존 기본 조건이요, 또 인류 본연의 품성이며, 미덕인 상호부조정신 즉 충, 효, 제, 우의 여러 덕을 펼칠 기회가 없어 인류로서의 생존 의의와 생존 능력을 결여하게 됨에 따른 당연한 귀결일 것이며, 따라서 비록 가정이 있고, 국가가 있다 할지라도 충, 효, 제, 우의 어느 것을 변별(辨別)하지 못하고 또 이를 펼치지 아니하는 자는 사실 가정과 국가를 갖지 못한 자이어서 이보다 더 불행하고, 슬픔과 설움이 큰 자는 없을 것이다. 솔직히 고백하면 우리 조선인의 대부분은 종래 국가에 대한 인식이 다소 뚜렷하지 않았었다. 물론 여기에는 피치(被置)된 경지가 □연케 하는 불가피한 점도 있었었다. 그러나 일본과 조선이 하나가 되어 신일본 제국을 형성한 지 이미 4반세기여에 달하는 바이다. 즉 우리가 일본 제국신민으로 교육을 받고, 충성을 다하기로 우리 스스로가 약속하고 결정한 지 이미 2반세기여에 달하는 바이며, 또 이 약속은 실로 황도정신 즉 하늘의 뜻(天理天道天律)에 순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망령된 고집을 풀고 의심을 도려낼 여지가 어디에 있다 할 것이냐.

51) 자신이 태어났거나 사는 시골 마을.

3.

만일 우리로서 여전히 망령된 고집에 사로잡히고 그릇된 생각에 포로 되어 국가에 대한 인식의 분명이 부족하다 한다면, □맹(□盟)과 기약을 어떻게 하며 또 임금과 나라가 없는 불행과 비애(悲哀)를 어떻게 할 바일 것이냐, 혹은 □맹과 기약도 사정과 경우에 따라서는 파기를 허한다 하자. 국가를 갖지 못하고 또 국가가 있으나 이에 대한 충성을 다하고 나라를 위해 힘써 일하는 정성이 결여된 자는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인류로서의 생존 의의와 생존 능력을 결여한 즉 도리를 벗어난 사람이요, 또 결과 자멸을 피하지 못하게 될 바일 것이다. 이를 어떻게 한다 할 바일 것이냐. 이러AM로 종래 우리 조선인의 대부분이 국가에 대한 인식의 분명을 기하지 못하는 것은 다만 현재의 불행과 비애가 심한 것일 뿐 불□(不□)라 실로 장래를 위하여 너무 가여워 견딜 수 없는 바였었다. 그러나 다행히 최근 국민적 자각과 국가 관념은 급작스레 생기고 왈각 일어나 충성을 다하고 나라를 위해 힘써 일하는 아름다운 행실과 이야기를 여러 곳에서 보고 듣게 된 바이고, 더욱이 며칠 전 경성(京城) 부호(富豪) 4인이 익명으로 국방기금 각 1만 원을 헌납하였다는 미담과 같은 것은 실로 우리가 대서특서(大書特書)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서 이에 따라 우리는 비로소 국민으로서 긍지(矜持)한 의의 즉 인류 생활의 긍지와 의의가 있게 되는 바이며, 또 특수한 경우에 놓여 졌다는 모든 슬픔과 설움, 불행의 사라짐을 기대하게 되는 바이다.

〈출전 : 國民的 自覺의 顯現(사설), 『每日申報』, 1937년 3월 12일〉

20. 조선 통치의 5대 지침(사설)

취임 후 바쁘게 일하여 자리에 앉을 여유가 없을 만큼 성내(城內)를 돌아다니며 자세히 백성들의 사정과 형편을 살피고 정치상의 업적을 조사하여 2천만 민생의 복지 증진에 밤낮 힘쓰는 미나미(南) 총독은 더욱 우리의 영원한 번영과 번창을 기하고자 이번 도지사회의에 5대 지침을 명시하여서 우리가 나아가고 추구하고 따를 바를 말씀하였다.

1.

국체명징(國體明徵)

선만일여(鮮滿一如)

교학진작(敎學振作)

농공병진(農工竝進)

서정쇄신(庶政刷新)

실로 우리는 이 훈시를 접할 때에 어두운 밤에 등(燈)을 얻고 계속되는 장마에서 하늘과 해를 본 느낌이 간절하다. 국체명징은 쉽게 바꾸어 말하면 국체의 진수(眞髓)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더욱 밝게 나타내자는 것이어서 지금 새삼스럽게 이를 고조(高調)함은 언뜻 기이한 감이 없지 않은 바이다. 그러나 이것이 조선뿐만 아니라 최근 일본에서도 매우 떠들썩하게 되는 것은 몇 해 전부터 지금까지 사상계의 혼란함과 공연히 새로움을 추구하고 기이를 좋아하는 경솔하고 신중하지 않은 세상의 형편이 때때로 일부 사람들로 하여금 예나 지금이나 비할 데 없고 모든 나라에 비할 데 없는 국체에 대한 인식을 순화하고 결여하게 하는 유감이 있으며 또 국체 관념은 국가의 진전과 국민 생활의 근간이요, 주재자여서 이것의 명징철저(明徵徹底)를 기하면 기할수록 국가는 더욱 번창하고 국민은 더욱 번영을 가하게 되겠음에 그러한 바일 것이다.

2.

더욱이 조선에서는 황제의 덕에 몸과 마음을 갈고 닦게 된 지 얼마 안 된 만큼 아직도 국체에 대한 인식을 결여한 자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한합병'의 대정신과 대이상을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여 뛰어난 임금이 다스리는 세상의 유민(遺民) 됨에 소지(所持)를 품고 국가의 진전과 번영을 저해하고 저주함으로써 할 일을 만드는 자까지 있는 사태이므로 국체관념의 명징철저는 실로 조선 통치의 기본 공작이요, 조선 민중의 매우 위급한 일일 것이다. 그러므로 미나미 총독은 취임 처음의 유고(諭告)에도 "통치 마지막 이상을 뚜렷하게 나타내는 길은 황도국가(皇道國家)의 본연성(本然性)을 인식함에 있다."하며 큰소리로 꾸짖어 일반의 깊은 반성을 불러일으키고 나갈 방향을 명시하였었다. 황도는 실로 설명과 명칭을 뛰어넘는 것이어서 굳이 이것을 해설한다 하면 진(眞), 선(善), 미(美)의 극치요, 천지의 규율, 천지의 도리, 천지의 도(道), 천지의 법(法) 등 모두 전부의 본체여서 우주의 만물로 하여금 그 성질에 따르고 그 지위를 얻게 하며, 천지와 더불어 끝이 없고 무궁하며 무한하고 끝이 닿는 데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3.

설문(說文)⁵²⁾에 의하면 “황(皇)이란 말은 뚜렷하게 길을 따라 달리는 것이니 성품을 따라 행하여 자연스럽게 도에 합치되는 것이다. 백성이 이름을 붙일 수 없어 마치 불을 보는 것과 같아 불을 밝히는 근본을 통찰할 수 없고 단지 그 빛나는 것만 본다”⁵³⁾라 하였으며, 또 소강절(邵康節)⁵⁴⁾은 “도(道)로써 백성을 감화시키니 백성이 스스로 그렇게 되는 것을 황도(皇道)라 한다. 덕(德)으로 백성을 가르치니 백성이 겸양하는 것을 제도(帝道)라 한다. 공(功)으로 백성을 권하니 백성이 다스려지는 것을 왕도(王道)라 한다. 힘으로 백성을 이끄니 백성이 다투는 것을 패도(霸道)라 한다”⁵⁵⁾라 하였다. 이상을 종합하여 헤아려 뛰어난 지혜로 헤아리고 분별하는 능력으로 보면 대략 그 본체를 어렵פות하게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일본 국체가 모든 나라에 비할 데 없는 까닭은 실로 이 황도 국가 됨에 있는 것이다. 우리로서 극히 이 본연성을 인식하여 이를 체험하여 알게 되고 드높임에는 그 덕이 천지와 합하고 그 행동이 천지와 합하며, 그 공적이 천지와 합하여 우주의 만물이 감히 그 뜻을 이루고 그 지위를 얻고 그 번성을 기하게 될 것이며, 또 이 황도국가의 본연성을 인식함에 이르러야 비로소 우리는 일한합병의 대정신과 대이상을 분명 이해하게 되는 바일 것이다.

〈출전 : 朝鮮統治의 5代 指針, 『每日申報』, 1937년 4월 22일〉

52) 후한의 허신(許慎)이 편찬한 중국의 사전.

53) 皇之為言, 煌煌然放道而趨, 率性而行, 自然有合於道, 民無得而名, 若觀火焉, 不淵其新燦之本而但見其煌煌.

54) 중국 송나라 때의 유학자.

55) 以道化民, 民目然謂之皇道, 以德教民, 民謙讓, 為之帝道, 以功勸民, 民治, 謂之王道, 以力率民, 民爭謂之霸道.

Ⅵ. 사이트 총독에게 보낸 조선인의 서간 발취

1. 김관현(金寬鉉)

경성 총독관저

남작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각하(閣下)

시사(侍史)¹⁾

전남도청 김관현

근계(謹啓).²⁾

요즘 쌀쌀한 가을 날씨에 삼가 근황이 어떠신지 여쭙습니다. 이번에 면담을 허가받고 은명(恩命)을 받아 훈3등(勳三等)을 하사받아 진실로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충 보국의 정신으로 한층 더 직무에 분려(奮勵) 노력하여 만분의 일이라도 성은에 보답할 것을 기약합니다.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황공근언(惶恐謹言).³⁾

1920년 10월 7일

소생 김관현 상서(上書)

남작 사이토 총독 각하

〈출전 : 金寬鉉(1753-1), 『齋藤實文書』, 「書簡の部」(2),
일본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 소장(이하 모두 동일함)〉

1) 편지 겉봉에 공경하는 뜻으로 받는 사람 아래에 쓰는 말.

2) 편지 서두에 쓰는 인사말. 삼가 아뢰입니다.

3) 편지 끝에 쓰는 인사말. 황공하게도 삼가 말씀드렸습니다.

2. 김명수(金明秀)

[2-1]

비(秘) 구한국 이완용 수상 비서관이었던 김명수(金明秀)씨 제출 진정서
사이토 총독 각하
1930년 5월 29일
본인자신 내방 제출

김명수

진정서

구한국 내각총리대신 비서관이었던 소생, 고(故) 후작 이완용(李完用)의 조카로서 1905년 일한관계가 복잡하던 때에 소생은 서구출주공사로서 런던에 주재 중, 당시 이완용이 외부대신 서리로 임명되자 소환되어 다음해(丙午) 여름에 귀국하고, 그 다음해 이완용이 내각 조직의 대명을 받았을 때에 비서관을 임명받은 이래 이완용 총리대신의 내명(內命)을 받고 오로지 일한병합의 대사업에 실제의 추무(樞務)를 맡은 것은 일반 내선당무자(內鮮當務者)들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1908년 고 이토(伊藤)공의 특의(特意)에 따라 내각관제의 일부를 개정하고 서기관 1명을 증원하게 되었는데, 소생에게 서기관을 겸임토록 한 것은 이토공의 특의에서 나온 것으로, 당시 소생이 극히 중요한 인물로서 더구나 그 노적(勞績)이 현저하다고 인정받은 것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소생을 서기관으로 임명하신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소생에게 당시의 문서과장의 직무를 맡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소생 서기관을 겸임한 후에도 본관인 비서관으로서 이 총리대신(이완용)을 그림자처럼 수행했고 중요한 직무, 그 중에서도 일한병합의 기무(機務)를 전심(專心)으로 집행했습니다. 그 사이에 제일 중요한 일한협약에 의한 군부의 인계 시에도 다수 한국 군인의 감시를 몰래 피해서 내각에 들어가 관인을 휴대하고 대신저택에 도착해서 어려움 없이 조인했습니다. 또한 법부의 인계 시에는 각서 2통 중 1부는 이총리대신이 자서하고, 남은 1통은 소생이 조인해서 무사히 인계를 마친 것처럼 다른 부의 인계 때에도 마찬가지로 동분서주하고 솔선해서 별

탈이 없었습니다.

1910년 일한병합에 의해 내각폐지에 이르러 이총리대신은 소생에게 이번 일은 극히 중요한 일로 절대비밀을 요하는 국무(國務)에 속하는 일이므로 관의 기밀(機密)을 엄수해야 한다, 병합 시에는 상당한 영작(榮爵)을 받을 것이고, 그 관계자와 은밀히 협의하여 반드시 실현할 것을 명심하고 만사 충실히 지체되지 않고 인계를 마쳐야 한다는 밀명이 있었습니다. 내각 각 국과의 문서 장부를 하나로 모아서 경복궁 연생전 및 경성전의 두 곳으로 운반하고 수만의 장부를 분류하여 완전히 총독부 문서과에 인계를 마쳤지만, 당시 한국 측의 내각 및 각 국과의 대소 관리는 분노한 나머지, 중요 문서와 장부의 인계를 거부하거나 혹은 은닉 소각하려는 자, 심지어 소생을 저격하려고 하는 자 등이 있었지만, 이총리대신으로부터 특히 소생에 대한 격려의 내명이 있어 대사(大事)를 무사히 수행하지 않고서는 국가의 중대한 요무(要務)인 일한병합의 일대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나아가서는 이총리대신의 만년을 더럽히게 된다고 명심하여, 위에 서술한 위난(危難)을 피하여 단행했습니다. 그렇지만 병합 후에 이르러서는 당시 대신 이하의 현관 또는 재야의 불평당의 거두 등에 대해서는 파격의 상작(賞爵)의 은사가 있었지만, 전후 4년간 침식을 잊고 그 어려운 일에 종사했던 소생에 대해서는 어떤 은명(恩命)도 없이 이후 20년간 사회로부터 매장되어 작은 초야의 일실에 칩거·신음하고 남은 생명을 간신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작의 은전을 입은 자와 비교해서 스스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름답지 않지만, 소생의 실적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언할 자신을 가져도, 당시 이총리대신이 소생에게 하신 격려·위무의 말씀도 오늘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무효로 돌아가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술한 것처럼 이총리대신의 비서관으로서 일한병합의 일대 사업의 실제의 기무(機務)를 맡은 관계로 선인(鮮人) 모두는 소생을 적시(敵視)하는 것이 날로 심해지고, 혹은 도중(道中)에서 저격을 받거나 혹은 야밤에 난입해서 난타 당하거나 혹은 가족이 횡타(橫打)를 당하는 등의 일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또 1927년 봄 소생이 『일당기사(一堂紀事)』⁴⁾라는 저서를 편찬하여 천황·황후·황태후 폐하를 비롯해 13관 및 이왕·이왕비·왕대비 기타 내선 요로의 고관에게 헌본한 이후 선인의 증오는 한층 현저해졌습니다. 또 이완용이 매국한 기사를 문서로 작성해서 세계에 배포한 자가 바로 김명수라고 격분해서 제2의 이완용이라고 악담하거나 혹은 “너는 대한국을 이완용과 결탁해서

4) 후작 이완용 실기.

매국하고 보수로서 다액의 돈을 받았다”는 근거 없는 허설을 유포하는 등 도저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모욕을 어쩔 수 없이 참아왔습니다. 가장 큰 것은 다수의 조선인 사이에서 완전히 교류도 두절되어 찾아오는 자도 없고, 게다가 항상 헐박·침해를 받는 등 이루 다 셀 수 없는 폭행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총리대신으로서도 소생과 근친의 관계임으로 총독부 요로에 소생의 상작(賞爵)에 관한 논의를 끌어내는 것을 차마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에 이르러서는 고인이 되시고 소생은 이제 노년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공적을 자칭하는 것은 차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오늘에 이르러서는 그 누구에게 사실 내용을 말해도 동정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일이 국가의 중요 기무가 되게 한 사실 내용을 제대로 아는 자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진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을 상세히 조사하신 후에 소생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황실의 예려(叡慮)를 받들어 1910년의 상작의 제한에 의하지 않고 특별한 은전을 입게 하시어 병합 당시 대관에게 하사하신 것과 같은 영작을 하사받아 영원히 성은을 입고자 삼가 당시의 일단의 기술(記述)을 은밀히 말씀드립니다.

경백(敬白).

1930년 5월 일

구한국내각 총리대신 비서관 김명수 재배(再拜)

총독 자작 사이토 마코토 각하

이력서

본관	황해도 연안군
출생지	경성부 안국동
현주소	경성부 창성동 109번지
이름	김명수
생년월일	1875년 11월 17일

년 월 일	임서전면(任叙轉免) 출장 상벌 등 (사령서 있는 것은 난 내에 기입한다)	관위
1891년 6월	증광감시(增廣監試)에 진사로 합격	성균관
1901년 5월 21일	주 프랑스 공사관 서기생 서관 임관 6등	외부(外部)
1905년 3월 31일	주 프랑스 공사관 3등 참사관 서주(敍奏) 임관 5등	동
동 6월 27일	승 6품	궁내부
동 10월 9일	주 영국대리공사 전임	외부
동 12월	외부폐지로 폐관 (20일 외무대신 이완용 철귀한다는 전훈(電訓)을 받음)	동
1906년 3월 18일	외부훈령에 의해 귀국 프랑스에서 불어를 공부 중 영어도 부수적으로 공부 중국, 안남(베트남 중부), 섬라(태국), 먼구, 파사(페르시아), 인도 및 유럽 여러 나라를 두루 편람	
1907년 4월 20일	정3품에 오름	궁내부
동 8월 16일	내각총리대신 비서관 서주 임관 2등	내각
동 29일	기념훈장 1개 받음(황제폐하 즉위 의식)	표훈원 (表勳院)
동 9월 29일	특 서훈4등 태극장 (사유 외국으로 나간 노고)	동
동 10월 9일	중2품에 오름	궁내부
1908년 1월 6일	문서과장을 명받음 (겸무)	내각
동 7월 31일	서기관 전임	동
동 10월 21일	문서보통 전형위원을 명받음	동
동 12월 1일	3급봉에 오름	동
동 28일	금 125원을 급여받음(사무면훈으로 상여)	동
1909년 1월 5일	호종원(扈從員)을 명받음(황제폐하 남(南) 순행 시 받들, 칙)	궁내부
동 21일	수행원을 명받음(황제폐하 서(西) 순행 시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의 수행원)	내각
동 2월 5일	편유리 금시계 1개 수여(황제폐하 남 순행 시 노력이 적지 않음에 하사)	궁내부
동 6월 1일	기념장 1개 수여(황제폐하 남서 순행 시에 대해 봉칙)	표훈원
동 10월 26일	비서과 근무를 명받음	내각
동 12월 27일	금 125원을 급여(사무면려(事務勉勵)로 상여(賞與))	동
1910년 8월 29일	내각폐지로 폐관(일한병합 당시)	동
동 9월 1일	전의 봉급대로 봉급을 지급	총독부
동 30일	금 124원 99전을 급여(만 3년 이상 재관으로 하사)	동
동 10월 1일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참의를 명령받음	내각

동	동	연 수당액 금 600원을 하사하다	총독부
동	동	금 1,000원을 급여하다(근로 적지 않음에 특별히 하사)	동
1912년	4월 11일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참의 파면	내각
동	동 일	이왕직 사무관 고등관6등에 서임	궁내성
동	동 일	1급의 봉록을 하사(년 액 900원)	동
동	동 일	서무계 도서실 근무를 명하다	이왕직 (李王職)
동	10월 1일	기념장 1개를 수여하다(일한병합 당시)	상훈국
동	12월 7일	정7위에 서임	궁내성
동	17일	금 20원을 급여하다(사무면려로 상여)	이왕직
1913년	6월 21일	경기도 양주군에 출장(모를 보살핀 것)	동
동	8월 1일	서무계 문서실 근무를 명함	동
동	12월 17일	금 63원을 급여하다(사무면려로 상여)	동
1914년	6월 1일	경기도 양주군에 출장(원릉(元陵)을 세워 보살핀 것)	동
동	11월 13일	원에 의해 관직을 면함(질병)	궁내성
1917년	6월 일	전라북도 지방출장 소장	조선총독부
1918년	4월 일	선문부(鮮文部) 지배인	경기신문사
1920년	1월 일	선문부 편집과 근무 겸무	동
1921년	12월 31일	구관 및 제도조사사무를 촉탁	중추원
동	동 일	연 수당 1,080원을 급여	동
1922년	3월 일	강원도 원주·춘천 각부에 출장(구문서조사)	동
동	6월 30일	연 수당 1,200원으로 승급	동
동	12월 15일	금 105원을 급여(사무면려로 상여)	총독부
1923년	1월 일	충청북도 청주·충주 각부에 출장(구문서조사)	중추원
동	9월 30일	연 수당 1,260원으로 승급	동
동	12월 15일	금 115원을 급여(사무면려로 상여)	총독부
1924년	2월 일	함경남도 함흥·원산 각부에 출장(구문서조사)	중추원
동	12월 15일	금 135원을 급여(사무면려로 상여)	총독부
1925년	12월 15일	금 165원을 급여(동)	동
1926년	6월 10일	별배종원(別陪從員)을 명받음(고 이왕전하 국장시)	이왕직
동	12월 15일	금 170원을 급여(사무면려로 상여)	총독부
1927년	12월 15일	금 200원을 급여(동)	동
1928년	12월 15일	금 190원을 급여(동)	동
1928년	12월 28일	연 수당 1,320원으로 승급	중추원
1929년	12월 16일	금 150원을 급여(본년 말 상여 급여)	총독부

가계

종2품 훈4등 김명수

부	준연(準淵)	종2품 규장각 제학	
조	위(緯)	정2품 예조판서 시호 문익공	
증조	재완(載琬)	정2품 이조판서	
고조	익(燾)	정1품 의정부 영의정 시호 문정공	
5대조	상석(相奭)	종1품 판돈녕부사 시호 문간공	
6대조	호(濤)	종1품 의정부 좌찬성	
7대조	홍석(弘錫)	정2품 이조판서	
8대조	규(珪)	종2품 이조참판	
9대조	제남(悌南)	정1품 의정부 영의정 시호 의민공, 연흥부원군	
10대조	오(禔)	정1품 의정부 영의정	
11대조	안도(安道)	종1품 의정부 좌찬성	
12대조	전(銓)	정1품 의정부 영의정 시호 충정공	
13대조	우신(友臣)	정1품 의정부 영의정 시호 호간공	
14대조	해(該)	종1품 의정부 좌찬성	
15대조	자지(自知)	정2품 개성부유후 시호 문정공	
16대조	도(濤)	봉익대부 밀직제학	고려조대
17대조	광후(光厚)	봉익대부 밀직제학	상동
18대조	우(祐)	규정대부 문하찬성사	상동
19대조	경성(景成)	판도판서	상동
20대조	준린(俊麟)	대장군	상동
시조	섬한(暹漢)	국자사문(四門) 박사	상동
외조	이호준 (李鎬俊)	정1품 판중추부사, 시호 충익공(忠翼公, 어머니의 아버지, 즉 후작 완용의 아버지)	

[2-2]

사이토 총독 각하
친전(親展)

경성부 창성동(昌成洞) 109번지
김명수 상서

삼가 아뢰입니다. 때는 가을바람이 서늘한 때에 각하는 여전히 상서로운 것이 많으셔서 하례 드립니다. 본년 5월 조선총독부 통역국을 경유하여 각하께 제출한 진정서는 미리 보셨을 것입니다. 소생은 진정서에 기재한 바와 같이 일한병합이 일어나자마자 당시의 수상 이완용 후작을 그림자처럼 뒤따라 한마음으로 병합이 되도록 힘쓰며 기약하는 바의 달성에 계속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진실로 그 당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조선인은 소생을 보기를 난신적자 같다고 하거나 혹은 또 제2의 이완용이라고 모욕하고 친척과도 교류를 할 수 없고, 적막과 위험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유감을 견딜 수 없는 형편입니다. 돌아보건대 동양의 화평과 국가 장래의 복지의 증진이라고 하는 대정신(大精神)에서 병합의 대사는 오히려 늦어져서 유감입니다. 병합이 시작되자 진실로 수상을 도와 침식을 잊고 신명을 바쳐 그 성립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소생에 대한 일반 사회인의 대우는 앞에 진술한 실상대로 도저히 참기 어려워 실례(失禮)를 무릅쓰고 진정서를 제출하오니 사정을 잘 살펴주시고 부디 전의(詮議)를 받고 싶어 이에 삼가 곤란한 소원을 받들어 올립니다.

공황근언(恐惶謹言).

1930년 11월 일
김명수 배상(拜上)

사이토 총독 각하

〈출전 : 金明秀(1768-1, 2)〉

3. 김성수(金性洙)

도쿄 요쓰야구(四谷區) 나카초(仲町)

사이토 마코토 각하

시사(侍史)

경성 계동(桂洞)

김성수

삼가 아뢰입니다. 추운 겨울을 견디기 어려운데 각하께서는 건강이 회복으로 향하고 있는지 문안 올립니다. 그런데 소생은 덕택에 무사히 잘 지내고 있으므로 저의 일에 대해서는 안심하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건강이 좋지 않으신 것 때문에 조선을 떠나시게 되어서 한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각하가 조선에 계실 때는 여러 가지 두터운 정을 입고 특히 경성방직회사에 특별한 배려를 받은 것은 감명(感銘)을 참고 견디지 못하여 깊이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석별의 정을 나타내기 위해 별도의 편으로 약소하지만, 기국(器局) 하나를 보내드리오니 기념으로서 받아주신다면 이보다 더한 광영이 없을 것입니다. 계절 관계로 더욱 몸을 돌보시어 하루라도 빨리 쾌차하시기를 오로지 바랍니다. 우선은 인사 겸 이처럼 적습니다.

경구(敬具).

12월 30일

김성수

사이토 자작 각하

시사(侍史)

〈출전 : 金性洙(1759-1)〉

4. 김용주(金用柱)

[4-1]

사이토 마코토 남작 각하께

조선총독부

서울(Seoul) 조선

서울 경기도 69

서울(Seoul) 조선

1922년 6월 21일

각하께

각하께서 매우 분주하시다는 것을 알지만, 저는 실례를 무릅쓰고 제 마음 속에 품고 있는 생각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각하의 사무실과 댁에 수차례 전화를 해보았지만 각하께서는 계속 이어지는 여러 회의 때문에 시간이 없으셨고, 최근까지 각하를 뵙기가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이미 각하께서도 알고 계신 것으로, 각하의 지도하에 저희들이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각하의 내각에 협조하는 것입니다. 각하의 매우 관대하고 민주적인 마음에 제 아버지와 저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단지 저희가 원한 만큼 일하지 못한 점을 후회할 뿐입니다. 하지만 각하께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다는 점을 아시고 안심하셔도 될 것입니다.

각하께서 저를 조선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절대 잊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일본어와 조선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유감일 뿐입니다.

언제쯤 각하의 총독부에 인사 발령이 시작될지 알려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각하께서는 물론 제 아버지의 직위를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아버지가 전라북도나 경기도의 도지사로 승진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께서는 천황 폐하와 각하의 총독부를 위해 지난 15년 동안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섬겨 왔습니다. 아버지의 충성심과 성실함을 고려할 때, 아버지는 각하의 신중한 배려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일본 제국의 아들이신 각하께서 제 말을 충분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각하는 총독부의 최고 통치권자이기에, 명령만 내리시면 족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각하께서 제 말을 그냥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각하는 저의 가족에게 있어서 ‘큰숙부님’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각하의 자식이고, 각하의 인도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의 운명은 각하의 손에 달려 있으니, 저희의 희망과 미래의 행복을 각하께 맡기겠습니다.

부디 간청하오니, 제가 이 편지에서 부탁드린 것을 조선 행정의 총책임자인 각하께서 각하의 권한으로 도와주시길 기원합니다. 사이토 남작 사모님께도 저희의 안부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하와 사모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당신의 영예로운 하인

김용주 올림

[4-2]

각하께

사이토 마코토 자작

총독부

경성

사이토 자작님께

저는 각하께 1930년도 대학클럽 안내서의 월간 수첩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리게 되어 유감입니다. 이 실수는 최근에서야 발견되었습니다. 그 오류는 바로 올해 2월이 28일까지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29일까지 표기한 점입니다. 저는 당신께 오류가 있는 수첩을 선물로 드린 것이 매우 괴롭고 수치스럽습니다. 황송스럽지만 각하께서 저의 이러한 잘못을 용서해주시길 바랍니다.

목요일 아침, 총독부 경무국의 책임자인 다나카 씨가 학생 소요 건으로 이야기 할 것이 있으니 그의 사무실로 전화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하자 그는 각하께서 조선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외국인들도 학생 소요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각하께서 『서울프레스』가 학생 소요에 관한 기사를 다루기를 바라신다고 했습니다. 다나

카 씨는 저에게 경무청으로부터 준비한 팸플릿을 건네주었고, 저는 그것을 서울프레스로 가져왔습니다. 각하께서 원하시는 바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저는 그 팸플릿을 영어로 번역하여 서울프레스의 일요일 발행판에 실었습니다. 이것을 각하께서 정독하시기를 바라며 편지에 동봉하겠습니다. 이번에 저는 서울프레스 일요일판 신문의 사본을 천 부 가량 재발행하여 조선 내의 구독자들뿐만 아니라 비구독자들에게도 송부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저는 일본, 중국, 미국과 유럽의 주요 영어 일간지에도 이 신문을 보냈습니다. 각하의 정보를 위하여 서울프레스를 보낸 신문사의 목록을 동봉합니다. 저는 조선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표명하는 지역과 신문사들을 특별히 엄선하였습니다.

각하께서는 학생 소요 문제에 대해 제가 한 일을 인정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각하와 사모님의 지속적인 건강을 기원합니다.

저는
당신의 가장 충실한 하인
김용주 드림

〈첨부〉

상하이 타임스지
상하이, 중국

일본신문지
도쿄, 일본

오사카 마이니치지
오사카, 일본

상하이 이브닝뉴스지
상하이, 중국

마닐라 타임스지
박스 No. 152
마닐라, 필리핀

북중국 데일리뉴스지
북경, 중국

워싱턴 포스트지
워싱턴 D.C., U. S. A.

뉴욕 타임스지
뉴욕, N.Y., U. S. A.

보스턴 글로브지
보스턴, 매사추세츠 주, U. S. A.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지
보스턴, 매사추세츠 주, U. S. A.

하트포트 쿠란트지
하트포트, 코네티컷 주, U. S. A.

르 마땅지
파리, 프랑스

런던 타임스지
런던, 영국

데일리뉴스지
런던, 영국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지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주, U. S. A.

로스엔젤리스 타임스지
로스엔젤리스, 캘리포니아 주, U. S. A.

시카고 데일리뉴스지
시카고, 일리노이 주, U. S. A.

워싱턴 이브닝스타지
워싱턴 D.C., U. S. A.

헤럴드 트리뷴지
뉴욕, N.Y., U. S. A.

스프링필드 공화당지
스프링필드, 매사추세츠 주, U. S. A.

애틀랜타 헌법지
애틀랜타, 조지아 주, U. S. A.

〈출전 : 金用柱(1770-2)〉

[4-3]

도쿄 요쓰야구 나카초 3초메(丁目) 40
사이토 마코토 각하

경성 필운동(彌雲洞) 174-1
김용주
1934년 9월 23일

각하
사이토 마코토 자작
도쿄

사이토 자작님께

먼저 각하와 사이토 자작 사모님의 건강은 괜찮으신지요. 저희는 진정으로 두 분께서 좋은 건강 상태를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오래 전부터 각하께 편지를 쓰고 싶었지만, 각하께서 국정의 일로 바쁘신 관계로 지금까지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각하께서 사임하셨다는 것을 듣고 저희는 매우 유감이었지만, 그래도 그동안 각하께서 각고의 노력을 들이신 결과, 일본인들은 그들의 역사상 가장 힘든 시간을 성공적으로 극복해 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는 각하께서 사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각하께서 후임으로 지명하시고 신뢰하는 오카다 부총독을 통하여 국정을 계속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하는 이 제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각하께서 휴식을 취하실 시간이 드디어 도래했으며 이에 저희는 기쁩니다.

이제부터는 국정 때문에 더 이상 바쁘신 일이 없을 줄 압니다. 저는 이 기회에 각하께서 저를 위해 중간에서 중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하께서는 저를 미국으로부터 데려오셨을 때부터 저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연민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상 각하의 각별한 관심이 현재 저의 생계를 유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가족—총 7명으로 4명의 아들과 1명의 딸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에 대한 부담이 점점 더해지면서 최근 모든 것이 캄캄해지기만 합니다. 캄캄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 달에 200엔을 가지고서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돈을 절약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200엔이 부족한 이유는 주택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저에게 부과된 상당한 의무를 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울프레스로부터 충분한 수당을 받지 않습니다. 제 아버지와 제가 각자 따로 주택을 소유하고 유지하는 것은 저에게 매우 무거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가족이 먹고 입는 모든 것을 지불해야 하고, 그와 함께 토지세, 주택세, 수도세 등 도시 세금의 절반을 내야 했습니다. 5명의 자식 중 2명은 지금 보통학교를 다니고 있고, 특히 첫째 아들은 그곳에서 특출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짐은 점점 무거워질 것입니다. 아이들은 인생의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 모두 학교를 다녀야 하니까요.

제가 미래가 어둡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많은 빚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금광 프로젝트가 다른 사업들처럼 실패하였기 때문에 각하께서 총독부에 계실 때 저희에게 거의 선물로 주시다시피 한 땅과 그 땅 위에 지은 두 채의 집을 저당 잡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는 가입하신 오천 엔의 보험을 담보로 수천 엔을 빌렸습니다.

만, 이번 가을에 갚지 못하셨습니다. 이제 각하께서는 제가 왜 불안한지 이해되실 겁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빚을 갚거나 해결하지 못하실 경우, 모포 한 장만 들고 집도 식량도 없이 죄 없는 아이들과 함께 거리로 내쫓길까 매우 걱정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다 보니 지난 5월 각하를 방문할 때에 저에게 귀뜸해주신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서울프레스를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 독립 법인으로 만들어 운영해보고 싶습니다. 각하께서 이곳에 계셨을 때 매년 제공해주신 액수만큼 총독부에서 보조를 해 준다는 조건하에 말입니다. 저는 국가 보조금과 광고 수익만으로 지금과 같이 좋은 신문을, 아니면 더 나은 신문을 제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서울프레스를 독립 법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물론 저의 급여를 인상하고, 또한 제가 은퇴할 나이가 되었을 때 퇴직 준비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현직에서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 액수보다 제가 직접 신문사를 운영한 후 받게 되는 퇴직 수당이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계획과 야심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길지는 모르겠지만, 만일 각하께서 제 계획이 실행 가능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저 역시 불가능한 것은 없다고 낙관합니다.

각하의 마음을 저의 근심거리로 무겁게 해서 죄송스럽지만, 저는 각하를 저의 주인과 은인처럼 존경합니다. 저는 도움과 위로를 받기 위해서 각하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의 계획이 가능한지 혹은 가능하지 않든지 간에 각하께서 조언을 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부디 저의 간절한 도움 요청을 받아주십시오. 저는 각하로부터 재정적인 도움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각하께서 중간에서 도와주실 것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도움만 원할 뿐입니다.

각하, 제 다음 세대는 적당히 부양만 한다면 희망을 가져도 좋을 아이들입니다. 이 편지와 함께 제 장남이 보통학교에서 받은 3학년 1학기 성적표를 동봉하오니, 부디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각하께서 편리할 때에 성적표는 제게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각하의 영원한 건강을 기원합니다.

저는
당신의 가장 충실한 하인
김용주 올림

〈출전 : 金用柱(1770-1, 2, 3)〉

5. 김윤복(金允福)

도쿄 요쓰야구 나카초 2초메(二丁目)

사이토 마코토 각하

친전(親展)

(극비) 조선 인천부 외리(外里)

김윤복

1월 12일

삼가 아뢰입니다. 현재 추운 겨울인데 부모님 함께 청복(淸福)하셔서 지극히 경하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전 날은 사냥하는 도중에 예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만나 뵈었는데, 조속히 정중한 친서를 받아 도리어 황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앞서 동도(東都)에서 전례없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조선인 동포 중에서 이처럼 불령한(不逞漢)이 나오는 것이 진실로 두렵고 황망해서 어찌 해야 할지 모르는 형편입니다. 특히 각하에 대해서는 심로(心勞)하시게 하여서 진실로 너무도 황송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전에 황해도 방면에 수렵을 갔는데 다행히 산돼지 13마리를 사냥한 것이 있었는데 그 중 2마리는 인천 유지자(有志者)에게, 그리고 민정(民政)에 정우본부(政友本部)에 각각 1마리씩 증정했습니다. 내지 정당의 조선통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입니다만, 시대의 변천 어찌 할 방법이 없다고 우고(愚考)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날씨가 매우 추움으로 옥체 더욱 건강하시고 다년(多年) 치정(治政)하신 조선의 백성을 위해 한층 더 높은 배려를 간청함과 동시에 각하께서 다년 보살펴 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여 삼가(玆) 놓을 곳을 모르는 사정입니다.

공황경백(恐惶敬白).

1932년 1월 13일

인천

김윤복 재배(再拜)

사이토 마코토 각하

어집사(御執事)

〈출전 : 金允福(1750-2)〉

6. 김택현(金澤鉉)

도쿄시 조선총독부출장소
사이토 총독 각하

조선 경성부 효자동 50번지
제우교본부 내
김택현

삼가 정숙하게 절합니다. 요즈음 설한(雪寒)의 때입니다. 지난번에 각하께서는 편안히 도쿄에 돌아가셨습니까? 그리고 정체(政體)가 융성한 것을 경하드립니다. 그런데 각하께서 좋게 보아주셔서 제우교(濟愚敎)가 마침내 지난 28일 제우교 본부로서 간판을 걸게 되어서 일반교도 수 1백만, 무엇보다도 각하의 혜택을 입어서 확고한 기세로서 먼저 만선(만주와 조선)내 방방곡곡에 자자하지만 아직도 부족할 따름입니다. 그 취지서는 참고를 위해 올리므로 어여쁘게 보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부터 대활동에 힘쓰고 동시에 대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총독부에 돌아오시는 대로 아뢰고자 하며, 앞에서 보고하고 말씀드린 것이 이와 같습니다.

돈언성구(頓言誠具).

1월 30일

김택현 재배(再拜)

사이토 총독 각하

제우교 취지서

대저 우리 교는 천(天)에 생겨서 동(東)에서 받으니, 천은 인(人)의 종재(宗宰)요 교는 인의 활기(活氣)라. 천이 도광(道光)을 발하여 인계(人界)에 내려 비추시니 그 빛이 영(靈)이요, 영이 만사를 응(應)하니 그 응이 교(敎)오, 인(人)은 정사(正邪)가 합쳐졌으니 인(人)이 영(靈)의 명을 복종하여 정(正)에 귀일해서 사(邪)를 추출하면 이것은 성명(聖明)이고, 그 남은 것은 사(邪)의 유혹에 저서 욕계(欲界)에 빠지는 것이니 정사가 경계를

나는 것을 도심(道心)으로 스스로 불을 켜서 향배(向背)를 정한 후에야 심(心)이 평(平)에 서고 신(身)이 화(和)로 정해져서, 기용언사(氣容言事)가 모두 폭거를 공경하지 않고, 자비를 드러내니 정대(正大)광명(光明)한 천명을 체현하고 참여욕념(譏如欲念)한 인심(人心)을 버리고 모든 혈족을 형과 동생으로 인정하면 일단 조화하는 기운이 선명히 발현되어 덕을 널리 퍼서 올바른 열매를 맺을지니 어찌 욕심을 버리지 않겠는가. 또 교(教)는 세계를 신는 그릇이요, 심(心)은 사회를 연결하는 기(機)다. 교(教)와 심(心)이 세계와 사회를 신고 연결해서 취향을 정해서 문명과 야만이 나누어지는 것이라. 그러므로 천(天)이 우리 일세 교조를 동토(東土)에 강림하사 세(世)에 문명과 인(人)의 도덕을 다시 정하시니 그 기세가 널리 퍼져서 천하는 광제창생(光霽蒼生)이요, 그 가르침은 인내천(人乃天)이다. 그런즉 먼저 대성현이 신천경천(信天敬天-하늘을 믿고 하늘을 공경함)과 순천과천(順天畏天)하여 갖춰지지 않은 것이 없되, 천(天)이 우리 교조에게 계시하시되 나는 아직 공이 없으므로 너를 세상에 낸다고 하시니 이는 선성(先聖)이 인내천이라는 종지(宗旨)를 드러내서 밝힌 까닭이라, 그러므로 교조가 가르치시되 나를 의지하지 말고 향하여 하늘을 믿어라 라고 너의 몸에 붙어넣으시니 가깝다고 버리고 멀다고 취하지 말라 하고, 수양하는 사람은 허하되 실이 있는 것 같아라 하시니 이것은 천(天)의 본지(本旨)를 바로 인계(人界)에 선포하신 것이라, 경에 이르기를 '나의 마음이 곧 너의 마음이라' 하시니 천(天)의 마음을 체현한 자가 어찌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 것이 있으랴 마는 시운이 움직여서 각수(却數)가 달아나기 어려우므로 우리 교 창립 이후 61년간 경과한 풍우상설(風雨霜雪)을 어찌 말로 하겠는가, 아 교조가 순교하신 이래 교문(教門)에 희생한 영우(靈友) 수십만에 달하고 봄바람에 꽃은 피는데 소식은 여전히 없고 가을 달 대나무는 창창한데 그림자만 헛되이 존재해서 문을 나누고 집을 찢은 것과 자주 몇 명을 고친 것은 시대의 련회(連回)에 임하여 업화를 피하는 방법이요, 교조의 본뜻은 아니라. 그런즉 우리 교 오늘의 정황으로 조금이라도 변혁을 없애고 장래 대종(大宗)이 외어서 활발하게 활동하여 반드시 교조의 본지(本志)를 따라서 평화로운 기용심(氣容心意)로 행사(行事)를 공정히 하여 제우민(濟友民)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모두 그 바른 길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 교의 본색이라. 옛말에 이르기를 '이름을 밝히고 의를 생각하라' 라 하니 교조의 성함이 어찌 우연히 만들어졌겠는가.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지금 아주 중요한 때를 맞아서 우리 교의 진상을 세계에 드러내는 것은 교조의 성함을 생각하고 드러내는 것에 불과할 따름이라 그러므로 제우(濟友) 두 자로 교명을 정하여 천덕(天德)을 펴며 우민(愚民)을 구제하는 교훈의 본뜻을 잃지 않는 것이오며 또 경에 말하기를 '유언과 유주를 듣고 그것으로 덕을 닦아서 성덕을 빛나면 어찌 잘못이 있겠는가'

라고 하시고 ‘구름이 걷혀도 서산에 그것이 다시 모이나 선(善)은 급한 곳에 있지 않아 이름은 아름답지 못하다’ 하시고 ‘구름이 걷혀도 마땅히 급할 때에 있으므로 여전히 본분을 지켜 고치지 않으면 유언과 유주에 불과할지라’ 그러므로 제우교라 이름을 정하여 인내천 이라는 종지로 평화를 유지하여 수많은 동족들이 하나로 귀일하여 교조의 본지(本志)를 복응(服膺)하기로 일반영우는 천사성령(天師聖靈) 하(下)에 마음으로 고하고 함께 말하고 서로 응해서 미진욕화(迷津慾火)에 빠진 창생을 널리 구제하심을 공경하여 바람.

제세주(濟世主) 강생 97년

1920년 2월

발기인

김택현(金澤鉉), 박규철(朴奎喆), 김유영(金裕泳), 염창순(廉昌淳), 이인수(李寅秀), 이선민(李仙民), 양지묵(梁止默), 편상영(片尙永), 구낙서(具洛書), 염창석(廉昌錫), 안홍익(安鴻翼), 왕일성(王日成), 백형린(白衡麟), 김진석(金鎭奭), 김광희(金光熙), 김두익(金斗益), 박봉래(朴鳳來), 최두환(崔斗煥), 김영선(金永善), 이관룡(李官龍), 이사연(李士演), 황영식(黃泳植), 조훈식(趙勳植), 김병순(金炳淳), 박제륜(朴齊倫), 권기형(權基衡), 남병문(南秉文), 최창선(崔昌善), 신봉길(申奉吉), 김재규(金再奎), 정연표(鄭然表), 최기림(崔基林), 문일환(文日煥), 노병환(盧秉煥), 정문옥(鄭文玉), 임행규(林幸圭), 이판용(李判用), 박기천(朴箕天), 권병선(權炳善), 문천수(文千洙), 이규환(李奎煥), 오세열(吳世烈), 조상민(曹相彬), 한상길(韓相吉), 박명윤(朴秉潤), 박동근(朴東根), 신양호(申良浩), 노봉식(盧奉植), 유명남(劉秉南), 최응천(崔應天), 홍정식(洪淨植), 최병기(崔柄基), 차명연(車秉連), 이동선(李東璇), 차유현(車楡軒), 최정규(崔晶圭), 이승호(李承灝), 함창현(咸昌鉉), 배정태(裴貞泰), 김응배(金應培), 권동수(權東洙), 이창술(李昌述), 김용국(金容國), 김창빈(金昌彬), 서태석(徐台皙), 정문숙(鄭文淑), 서상열(徐相烈), 백준기(白駿琦), 정재곤(鄭在坤), 김봉주(金鳳柱), 김영주(金永柱), 이해수(李海秀), 이은수(李殷秀), 권중혁(權重赫), 한인수(韓仁守), 오헌영(吳憲泳), 정우봉(鄭遇奉), 윤항식(尹恒錫), 오병희(吳秉熙), 오태균(吳台均), 정병한(鄭炳韓), 유 역(柳 瑒), 김영선(金永善), 이길선(李吉善), 문봉흠(文鳳洽), 이만영(李萬永), 정홍락(鄭鴻洛), 최명식(崔明植), 차남식(車南植), 이창술(李昌述), 이근배(李根培), 조상필(曹相弼), 김중현(金重鉉), 이귀옥(李貴玉), 이계두(李啓斗), 장제민(張

濟民), 전경여(全敬汝), 이규선(李圭宣), 신양호(申錫浩), 이용섭(李鎔燮), 김교성(金敎性), 김용진(金容珍), 조병옥(趙秉玉),⁵⁾ 권대형(權大衡)

〈출전 : 金澤鉉(1763-1)〉

5) 원문에는 ‘秉趙玉’으로 되어 있음.

7. 남궁영(南宮營)

[7-1]

인천공주관사

남궁영

1월 5일

숙계(肅啓).

때는 추운 계절 더욱 건강히 계셔서 경하드립니다. 아뿔 일은 재임 중은 대단한 비상한 충애를 받아서 진실로 감사하여 마지않습니다. 이번에 각하 퇴임하신다는 것을 듣고 병환으로 어쩔 수 없다고 믿고, 일반민중들이 이에 사모의 정이 그치지 않는 것을 보고는 이것은 오로지 각하께서 조선총독의 대임에 한결같은 결과이고, 또 일면 각하의 높은 덕이 한결 같은 걸 알게 되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기쁩니다. 다행히 자애(自愛)하시고 몸을 돌보시어 국가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쾌차하시도록 기원합니다. 그런데 소생이 작년 구미 각국 시찰 중에 각하에게 드리려고 갖고 온 이탈리아산 유리로 된 커피잔 한 세트를 포장하여 소포로 보내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신다면 이보다 좋은 일이 없겠습니다. 우선은 감사인사 드리고 싶어서 이와 같이 적습니다.

배구(拜具).

1월 5일

남궁영 돈수(頓首)

사이토 자작 각하

시사(侍史)

[7-2]

숙계(肅啓).

한기로 으스스 추운 계절입니다. 병환은 점차 회복되신다고 하니 국가로서는 경하할 일입니다. 아뢰 말씀은 전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보잘 것 없는 사소한 물건을 보내드렸는데, 즉시 정중하신 서장을 받고 또 훌륭한 물건을 받아서 황송하기 그지없습니다. 모처럼의 후의(厚意)를 받아 가보(家寶)로서 소중하게 보관하겠습니다. 또 봄을 향해 가는 때이므로 병환도 점차 회복하시겠지만, 한층 몸을 아끼시고 섭생하시어 조선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쾌차하실 것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상 감사의 인사 겸 이와 같이 적습니다.

배구(拜具).

2월 6일

남궁영 돈수(頓首)

사이토 자작 각하

어시사(御侍史)

[7-3]

근계(謹啓).

요즈음 별 탈 없이 건강하신지 문안 여쭙습니다. 전날은 인사로 이에 우리 도(道)에 와 주셔서 본도 관민일동 두터우신 호의에 감읍했습니다. 이제부터 더욱 최선의 노력을 해서 도정의 진전을 도모하여 높은 은혜의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할 각오가 되어 있으므로 부디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받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전날 우리 도(道)에 오셨을 때 좋은 물건을 받아서 깊이 감사드리고 영구히 보존해서 높은 덕을 사모할 각오입니다. 본도에서 산출되는 밤 한 상자와 도내 □□보통학교 학생들의 작품 향로 1개를 별도로 철도편으로 보내 드리오니 진실로 불품없는 물건이지만 웃으시며 받아주셨으면 하고 부탁 올립니다. 차츰차츰 추운 계절로 향하고 있으므로 국가를 위해 특별히 몸을 아끼셨

으면 하고 기원을 올립니다. 졸필이지만 사모님께도 잘 전해주셨으면 하고 부탁 올립니다. 우선은 조락하나마 감사를 드리고 싶어 이렇게 올립니다.

배구(拜具).

11월 12일

남궁영

사이토 자작 각하

시사(侍史)

〈출전 : 南宮螢(1834-1, 2, 3)〉

8. 민병석(閔丙奭)

[8-1]

경성부 경운동(慶雲洞)

민병석

삼가 아뢰입니다. 각하의 그 후의 병용(病容)은 어떻게 되었는지 제대로 섭양하시도록 기원합니다. 각하께서는 이번에 사표를 봉정드릴 생각으로 다년 우리 조선통치를 위해 다대한 심혈을 쏟아주신 덕택에 오늘의 융운(隆運)을 보기에 이른 것, 진실로 감격을 감내하지 못하여 이에 삼가 두텁게 경의를 표현하여 올립니다. 더욱이 금후에 있어서도 우리 조선민토(朝鮮民土)를 위해 더욱 진쾌(盡悴)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선은 약필(略筆)이나마 병환을 여쭙 겹 인사드리고 싶어서 이처럼 글을 올립니다. 돈수(頓首).

11월 8일

민병석

사이토 각하

[8-2]

삼가 아뢰입니다. 요즈음 몹시 추운 데, 이후 오랫동안 소식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각하께서는 어떻게 추위를 피하고 계신지 근황을 여쭙습니다. 그런데 저의 일은 덕택에 별 일 없이 잘 되었으므로 안심하셨으면 합니다.

각하의 사임 후는 후임의 야마나시(山梨) 각하의 보살핌을 받게 될 것이지만, 다년간 각별한 후의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항상 각하의 일만 빈번하게 떠오르고 사모의 정 금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부디 요즈음 아주 추운 때이므로 신경 쓰셔서 몸을 소중하

게 섭양하시도록 멀리서 기원합니다.

이상은 간략하나마 추운 데에 문안 아뢰고 싶어서 이처럼 올립니다.

돈수(頓首).

1월 15일

민병석

사이토 각하

[8-3]

삼가 정중히 아뢰입니다.

요즈음 아주 더운데, 그 후 오랫동안 소식 전하지 못했습니다만 각하께서는 그 후 용태 어떠하신지 근황을 여쭙습니다. 전에 퇴관하신 이래 한 번도 문안의 서면(書面)도 보내지 못해서 아주 실례했으므로 거듭 용서를 청하고 싶습니다. 각하의 재임 중에는 평범하지 않은 후의를 입고, 계속해서 영원히 지도를 받을 것이라고 깊게 확신했는데 병환 때문에 마침내 헤어지게 되어서 진실로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번에 우가키(宇垣) 총독의 친임에 의해 당지(當地) 관계(官界)의 이근(異勤)에 동반하여 각하와 같이 교의(交誼)를 두텁게 해왔던 마쓰마에(松前松盛) 씨도 퇴관하셔서 당지를 떠나시는 일로 되어서 저 혼자 남겨져 제대로 상담할 분도 상실하여 진실로 낙담하고 있습니다.

각하가 조선에 계실 때에 수차 간담을 거듭했던 바의 이왕직 장차관 문제에 관해서는 현상을 유지하기로 한 것은 왕가태평을 위해 물론 나아가서는 조선통치상에도 영향이 적지 않은 것이 있음을 인정하는 실정(實情)이 있고 인심도 새롭고, 내용의 개정의 필요를 실감하고 있는 바이므로 임지에 있어서 한층 더 본건의 실현을 향해서 노력을 올리고 싶어서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문병 겸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돈수(頓首).

7월 29일
민병석 배

사이토 마코토 각하

〈출전 : 閔丙奭(1839-1, 2, 4)〉

9. 박영효(朴泳孝)

[9-1]

배계(拜啓).

병환으로 어떻게 지내시고 계신지, 그 후의 용태는 어떠하신지 문안 올립니다. 그런데 각하에게는 총독에 취임하시고 나서 이미 9년이라는 긴 기간에 걸쳐 조선의 통치에 일신을 바치신 것은 가슴에 가득 차서 넘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경험을 기초로 해서 더 통치방침의 근간에 앞으로 나가는 개선을 가하려고 하는 때에 계획대로 되지 못하고 불행히도 병환 때문에 뜻을 꺾게 되시니 국가를 위해 진실로 통석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바라는 것은 장래에도 조선의 좋은 조력자가 되어서 영원토록 비호해 주시고 진력해 주시기를

끝으로 국가의 중신으로서 빨리 완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선은 이상으로 문병 겸 인사 올립니다.

배구(拜具).

12월 13일

박영효

사이토 마코토 각하

[9-2]

근계(謹啓).

요즈음 봄의 따뜻한 때에 더욱 건강하셔서 경하 드립니다. 그런데 소생 요즈음 당뇨로 신장이 온전하지 않아 정양 중인데 아직 완쾌에 이르지 않아 곤란해 하고 있습니다. 아뢰을 말은 이번에 손녀의 혼사가 마침내 확정된 것은 오로지 각하께서 돌봐 주신 덕택이므로 이에 감사의 뜻을 삼가 표합니다. 우선은 이상 글로 아뢰고 인사 올리고자 합니다.

배구(拜具).

4월 19일

박영효

자작 사이토 마코토 각하

[9-3]

근계(謹啓).

요즈음 초여름 날씨에 더욱 건강하심을 경하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손녀의 혼례에 훌륭한 축하품을 보내주셔서 두터운 정 진실로 감사드리오며 덕분에 모든 일이 어려움 없이 마쳐진 것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축하의 마음을 표하고 싶어서 약소하지만 하찮은 물건을 올리므로 부디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우선은 이상으로 감사 겸 인사 올리고자 합니다.

배구(拜具).

1935년 5월 20일

박영효

자작 사이토 마코토 각하

동(同) 부인

〈출전 : 朴泳孝(1845-2, 6, 7)〉

10. 박중양(朴重陽)

[10-1]

삼가 아뢰입니다. 각하 상경하실 때에 각 신문지에 총독의 임(任)을 그만둔다고 운운하는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신경륜(新經綸)의 방침이 아직 그 자리에 서지 않은 지금에 사임 같은 것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조선인 식자 간에는 다소 우려의 기색이 있습니다. 용무가 끝나는 대로 빨리 귀임하셨으면 합니다. 여전히 이미 상하에 확실하게 밝히신 신정의 방침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시고 민음을 내외에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의 치안은 당국의 경무 책임자에 맡겨 분투하게 하시면 그렇게 우려할 만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식산·토목·교육 그 외 일반 행정에 각각 활동하도록 크게 꾸짖으시고 엄하게 명령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현재의 상태는 지방청(특히 군청)에 전혀 긴장의 기색이 없고, 정무에 어느 정도 퇴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진실로 유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저 조급격변은 원래 꺼려야 할 일이지만, 의론이 많이 행해지지 않는 것은 위정자가 취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변명하고 핑계를 대는 것은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뒤탈이 있는 일시적 언사로 영원히 사람들의 심복을 얻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대개 조선인이 아무리 우둔해도 조선의 개발을 도모하고, 민인(民人)의 행복을 증진하는 정책에는 그것을 알고 기쁘게 복종하는 바입니다. 위의 방침 하에 지방행정의 임을 맡은 자가 물과 불을 피하지 않고 각각 그 충성을 다하면 반드시 상당한 치적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일부 불령한 무리들의 망행은 제국의 국력 하에 그다지 중대시할 것이 없다고 믿습니다. 지방관헌은 자애와 위엄으로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을 단지 뱀과 전갈처럼 보지 않고 온정으로 이끈다면 그들이라고 해도 모두가 철두철미 총독정치를 파괴·반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완용·송병준·손병희·권동진 같은 무리들도 각각 그러한 경우로 친일로 되거나 배일로 되거나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 실의의 땅에 있는 것을 수습하는 정책을 강구하는 요체일 것입니다. 이상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

경백(敬白).

1920년 10월 30일
박중양 재배(再拜)

남작 사이토 총독 각하

[10-2]

삼가 아웁니다. 각지 순찰하시는 일은 피곤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말씀 올립니다. 그런데 본부구내에서 불상사가 일어난 것은 진실로 유감입니다. 이것은 필경 태평양 회의에 조선 문제를 환기시키려고 하는 부정한 무리들 일파의 광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무시간 더구나 공무실에서 광행(狂行)을 감히 한 사람을 포박할 수 없는 것은 유감입니다. 미친놈은 흥한 행동 후 구역 밖(構外)으로 도피할 시간이 없어서 관청 안에 숨은 것입니다. 어쨌든 말을 좋아 하는 자들이 또한 인심이 불안정하다든가 내실을 은폐한다든가 종종 언론을 희롱하여 조선통치의 정사를 공격하는 재료로 하는 것을 가장 한스러운 일로 생각할 따름입니다. 이상 문병을 겸하여 말씀드립니다.

경백(敬白).

1921년 9월 14일
박중양 재배(再拜)

남작 사이토 총독 각하

[10-3]

근계(謹啓).

장도의 여행에 무척 피곤하시리라고 삼가 말씀을 올립니다. 토지개량사업 계획이 성립되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조선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무 중에서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없다고 생각하오나, 토지개량 같은 것은 무엇보다도 급선무로서 노력을 해야 할 사업일 것입니다. 예를 들

면 사설 회사를 설립해서도 가능한 한 착수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 보다 나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금은 식산은행이나 동양척식주식회사에 부탁하시면, 2~3천만 엔 정도는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지난 16일부터 도평의회가 열려, 23일에 폐회하였습니다. 평의원의 여러분이 열심히 의견을 개진하여 적지 않게 들을만한 가치도 있었고, 또 의사진행에도 얼마간 익숙해진 점도 있었습니다. 상세한 것은 다음 달 중에 회의로 상경할 때 보고하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부를 여쭙며 곁들여 말씀을 올렸습니다.

경백(敬白).

1921년 3월 28일
박중양 재배(再拜)

남작 사이토 총독 각하

[10-4]

근계(謹啓).

이번 황해도 수해는 수십 년 이래 없었던 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상황은 그때마다 보고 말씀 올린대로이나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의 수해 상황은 별도의 책과 같습니다.

도로와 교량의 파손 및 농작물의 피해가 극심합니다. 참여관과 경부를 1명, 속관 1명을 남천 방면에, 속관 2명, 경부 1명을 재령군에, 재무부장과 경부 1명, 속관 1명을 연백 방면으로 파견을 명령하고, 경시 1명, 순사 10명을 응원 때문에 남울과 북울로 출장시키고 경찰부장 일행은 별동대로서 각 피해지를 순찰시켜 임기(臨機) 수배를 하도록 명령해 두었습니다.

우선 이상 상황은 공문으로써 오늘 보고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경백(敬白).

또 도로에 관해서는 의견서를 한 부 드립니다.

1922년 8월 26일
박중양 재배(再拜)

남작 사이토 총독 각하

[10-5]

근계(謹啓).

보내주신 하서를 삼가 읽었습니다. 소관의 도쿄 여행의 소견을 어떤 잡지에 게재된 것은 명예로 여기며 또 황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사를 잘 지도해 주시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5월 상순경에 경찰부장회의 소집 통지가 있었사운데 예년과 같이 그 이전에 지사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원도 영월, 평창, 정선, 원주, 강릉, 울진, 삼척의 7개 군을 충청북도에 합병하는 문제는 꼭 결행하시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무총감과 주무국장 등도 반대 의견이 없으며,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다만 요는 이러한 문제보다도 급한 일이 많다며 일을 미루고 나중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각하께서 이 문제는 언젠가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인정하신다면, 각하가 조선에 재임 중에 결행하시도록 받들어 간청하는 바입니다.

조선을 요리하는데 있어서 이와 같은 일부 문제는 한 작은 사건에 지나지 않으나 잠을 자는 것과 같은 오늘날의 일반에 대하여 혹시 청량제가 되거나 또 혹시 언젠가는 후임의 사람에게 그 모범을 보이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말한 7개 군을 충청북도에 합병해야 할 필요성의 중요사항은 이미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경백(敬白).

1924년 4월 21일
박중양 재배(再拜)

남작 사이토 총독 각하

[10-6]

근계(謹啓).

염서지절에 정무 다단하시고 피로하실 것으로 살펴 문안드립니다.

이곳은 별로 변함이 없사오나 가뭄이 계속되어 농민의 걱정하며, 매일 비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민망스러운 논에 물이 차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 충청북도도 간신히 모내기가 2할에 이르렀으나, 군데군데 균열이 발생하고, 경상북도 지방 같은 데서는 가뭄이 가장 심하여 모내기가 5할에 지나지 않는 모양입니다. 평소에 관개(灌溉)의 설비 없이 마른 하늘을 원망하는 어리석음은 현재 조선의 쌀농사는 도박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리요시(有吉) 정무총감은 해야 할 일이 많은 조선에 아무 것도 남기지 않고 조선을 떠난 것은 유감이라고 하겠습니까. 새로운 정무총감은 조선에 인연이 그다지 많지 않은 분이냐, 조선인과 일본인이 함께 신 정무총감에 기대하는 자가 많으며, 호감을 가지고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각하께서도 조선을 떠나신다는 소문이 있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일 없이 유임하셔서 상하가 일반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각하께서는 정무총감이 경질된 차제에 해야 할 일을 결단해서 신 정무총감에게 주의를 주었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조선 개혁에 대해서는 말만 많고 실행이 뒤따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각하께서는 우리 제국의 앞길을 생각하며, 개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각 담당관에게 엄격하게 이행하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조선보다 진보한 내지 법규를 그대로 적용하면 맞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내지로 부터 처음 조선에 온 젊은 사무관들은 한둘이 아니라, 참고 서류를 먼저 연구하기 위하여 어느덧 일의 정신을 잊어버리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소관의 서위(敍位)의 은명(恩命)을 입고 황송하기 그지없습니다. 삼가 감사드립니다.

각하 및 영부인 양위분께 건강하심을 빌어 마지않습니다.

경백(敬白).

1924년 7월 10일

박중양 재배(再拜)

남작 사이토 총독 각하

[10-7]

근계(謹啓).

정무 다단하시고 분주하시리라고 살피 올립니다. 소관은 어제 귀청하여 도와 군 속관(屬官) 및 경찰관의 정리에 착수하여 12월 1일자로 발표하기 위하여 정리 안을 작성 종료하였습니다. 그중에는 본인 나이 등을 감안하여 스스로 앞이 길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기회에 퇴직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면 자진해서 정리 면직을 원하는 자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죄 없는 자를 사직시키는 것은 동정을 금치 못합니다. 이번에 각 군을 순찰한 바, 어떤 지역의 경찰서장은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며, 어떤 곳의 경찰서장은 생사를 함께 해 온 부하를 자르는 데는 손을 댈 수가 없다고 말하며 스스로 직책을 그만둔 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관청에서는 갑자기 각 방을 검열하였든 바, 흑판에 백묵으로 다음과 같이 써 놓았습니다.

정리의 바람
서리 내리는 달밤이여, 목이 시리다

라는 문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경찰부장으로부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제오늘의 행정정리로 시신이 포개어져서 가슴속에 비탄을 느낍니다. 어제는 국경의 불은 비적(匪賊)과 싸웠으며, 이제는 남쪽에서 우리 동지를 잘라야한다는 실감 어린 사정이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관리들도 역시 가련한 것입니다.

운운의 실상을 보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일반관리의 심정에 동요를 가져오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신속하게 관공리를 하여금 안심을 시켜 각각 그 책임을 다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소관의 회포를 말씀드리오니, 오로지 각하의 참고가 되시도록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배구(拜具).

1924년 11월 24일
박중양 재배(再拜)

사이토 총독 각하

[10-8]

삼가 아뢰입니다. 어제 통과하실 때에는 생각지도 않은 사고가 있어서 취침 중이신데 폐라고 생각하고, 영송(迎送)의 예를 결여해서 무례를 범했습니다. 노구로 남으로 배를 타고 북으로 말을 타시는 자리가 따뜻해 질 틈도 없이 분주하시고 너무 피곤하신데 뭐라고 감사도 드리지 못하고 동시에 노구의 건강을 주야로 절실히 빌고 있습니다. 도쿄에 가신 목적을 달성하시도록 기원합니다.

이번에 총감이 병이 들어 각하에 교섭절충의 입을 맡아서 만약 목적을 달성하실 수 없으면 물론 조선의 불행은 말할 것도 없는 일이고, 각하의 체면에도 세인의 경중을 논하기에 이르지 않도록 우려합니다. 소생도 전부터 아는 선배에게 조선을 위해 조그마한 힘을 더하고 싶다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가토(加藤) 총리대신에게도 별지처럼 서면을 올릴 것이오니 참고를 말씀 올립니다. 더욱이 소생의 신상에 대해 종종 염려해 주신 것 감사에 견디지 못합니다. 이번에 상경하시는 좋은 기회에 해결하실 수 있도록 특히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구(敬具).

1925년 11월 9일
박중양 재배(再拜)

자작 사이토 총독 각하

[10-9]

삼가 아웁니다. 또 지난해가 가고 신년이 와서 회포를 견딜 수 없습니다. 신년은 인사하기 위해 상경하고 싶은 심산이지만, 자연히 일시가 지연되기 때문에 진실로 마음을 다하여 급히 각하의 더욱 건장을 기도 올립니다. 진실로 새 부사(府舍)로 사무의 모든 일이 이행된 것은 경사스럽습니다.

제국의회도 마침내 목전에 임박하고 정무는 여러 가지여서 피곤하실 것입니다. 정우본당(政友本黨)의 분열을 보기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회극이라는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좋은 면으로 이것을 관찰하면 주의 주장이 뿌리가 맞으면 행동을 함께 하고 물에 기름 같이 전연 의견을 달리하는 때로 나누어진 것은 자연스러운 형세로 보이지만 정말로 유력한 정당으로서 야합한 부부 같이 이합하는 것은 그다지 칭찬할 만한 활동은 아니고, 국사(國士)가 취할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내정쟁의 중요한 중국으로 문제와 같은 국가대책을 수립할 수 없고, 냉시하는 모습이 있는 것은 피해야 할 일입니다. 만약 순수한 마음으로 하지 못해서 의회 해산을 보는데 이르러서는 조선에 있어서 심대한 타격이 있으므로 시모오카(下岡) 정무총감의 건책(建策), 각하의 노력과 현 내각의 조선에 대한 특별배려는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갈 우려가 있습니다. 의회의 해산 없이 조선 문제도 무사히 통과되기를 오로지 기도합니다.

저 중국의 소란은 일시 평온함을 보기에 이르러서는 중국인을 위해 축하해야 할 일이지만 또 내일 다음 달의 일을 모르는 것이 곧 중국인의 일입니다. 이때에 당하여 국내 정쟁으로 몰두해서 지나 문제에 전력을 쏟을 수 없는 것은 유감인 형편입니다. 이번에 곽송령(郭松嶺)을 참패에 이르게 한 것은 장작림(張作霖)의 배경에 일본의 힘이 있다는 것을 은폐하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일은 중국 문제의 대국에서 보면 작은 문제에 지나지 않지만 일본제국의 중국 대책으로서 찬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저 장작림이라는 자는 동삼성(東三省)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다른 것을 멸시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것은 일본의 유능무능 비호, 원조에 의해 크게 된 것이 있고, 장작림으로서 일본과 특수 관계를 가진 동삼성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장작림에 대한 일본의 호의를 안다면 일본인을 위해 상당히 공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옳고 당연한 일이지만, 저 장작림은 적지 않은 것을 위반하고 횡포를 다하며, 일본인의 이익을 저해하고 오만해서 신사를 접대하는 예를 알지 못한다. 지난번 시모오카(下岡) 정무총감이 만선국경문제를 절충협조하려고 해서 장작림을 방문할 때, 토산품을 휴대하여 예를 다하여 장작림을 방문했다. 그런데 장작림이 조선에서 멀리서 오신 시모오카 총감에 대한 태도는 심한

것이 있었다. 마치 바둑을 두면서 이웃 노인을 맞이하는 듯이, 본래 외관을 장식하고 의례가 올바른 지나국으로서 장작림은 조선의 부왕(副王)이라고 할 만한 정무총감의 내방을 맞이하는데 마땅히 상당한 의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의가 없는 것은 의외입니다. 장의 무례를 말하기보다도 장에게 초빙받고 있는 일본인을 질책해야 할 것입니다. 매년 일본인이 장을 방문할 때는 장은 반드시 먼저 초빙 일본인에게 물은 후 회견을 하고, 회견할 때에는 장은 왕자같이, 초빙 일본인들은 신하같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소문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해도 대개 상상하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대저 장작림을 현재의 횡포에 이르게 한 것은 장작림보다 초빙된 몇 명의 일본인들, 장작림으로부터 내지에 있으면서 생각하기에도 헤아릴 수 없는 금품의 보수를 받고 있는 관계상, 저들의 머리에는 일본제국을 잊어버리고 장작림의 은혜에 감격하여 장작림 본위로 장작림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장작림의 승과 곽송령의 패는 중국 대책이 확고하게 수립된 이때에 정부는 중국의 정치 상황에 정통하지 않은 오늘 장작림에게 초빙된 수명의 일본인이 활동한 결과입니다. 소생은 장작림·곽송령을 원래 알지 못하고 장작림을 미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장작림을 멀리하고 친숙한 인물을 동삼성에 넣는 것을 희망 기대하고 있는데, 마침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장작림의 기세가 현재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면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금후 장작림에게 전비(前非)를 고치게 하고 장작림에 붙여 있는 수명의 일본인을 소환하고 새롭게 일본인을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장작림·곽송령 투쟁에 의해 만주지방 조선인들의 피해를 국가로서 그것을 볼 때에는 그 피해가 별로 크지 않다고 해도 개인으로서의 비참한 것이고, 정부는 그것에 대해 별도로 문제시 하지 않고 조선총독부의 관리를 파견하여 시찰 조사를 하는 것도 구제할 만한 충분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일반 기부에 의한다고 운운하는 설이 있습니다. 과연 소문과 같이 된다면 느끼는 데에 정이 없을 터입니다. 정신적으로 그들 조선인을 구제하게 한다면 재정 압박이 있고 현재도 이후에도 지출의 방도가 있어야 하고 정부는 정정당당 지나인으로부터 배상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 같은 비상변란은 별문제로 하고 저 만주지방에 유랑하는 백만에 가까운 조선인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것은 총독부의 중요책무로서 정부로서는 조선통치상 평범하게 볼 수 없는 정사라고 촉구합니다. 지금 만주지방 조선인에 대해서 부단의 주의를 하고 있는 것도 그들을 위해 보아야 할 시설을 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인구 백만은 내지의 한 현에 상당하는 합이고 한 현을 다스리는 도량으로서 상당한 지출이 있을 것을 희망해 마지않을 따름입니다. 또 그 땅의 영사들은 반드시 외무성 계통에서 채택하지 말고,

행정 경력과 정치적 수완이 있는 사람을 주재시킬 필요가 크다고 믿습니다.

경백(敬白).

1926년 1월 11일

박중양 재배(再拜)

자작 사이토 총독 각하

[10-10]

삼가 아뢰입니다. 병환은 어떠신지 말씀 올립니다.

이완용 후작의 별세는 애도를 금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해도 이 후작은 통감부 설치 이후 친정(親征)하시고 서거에 이르기까지 국가를 위해 진력하신 공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지금이야 이 사람이 탄생하고 죽는 것, 생자필멸은 인생에 항상 있는 일이지만 진실로 쓸쓸한 느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 힘쓰신 분들을 잊고 알지 못하는 것은 어쩔든 현재의 인정이 종이처럼 얇다고 해서 슬퍼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글은 문병 겸 아뢰입니다. 유아사(湯淺) 정무총감에게 별지를 통하여 써 두었습니다.
경백(敬白).

1926년 2월 15일

박중양 재배(再拜)

자작 사이토 총독 각하

[10-11]

삼가 아뢰입니다. 귀임(歸任)이 매우 빨라 바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후불순한 때 노구의 안녕을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소생 신상에 대해서 여러 번 배려해 주신 것 감격해

마지않습니다. 오는 2월은 은급이 만기에 달하므로 퇴임원을 누노무라(布村) 인사주임에 맡겨두고 만사 잘되도록 후지와라(藤原) 비서관에게 의뢰해 두었습니다. 중추원에 들어가는 것은 2월중이지만 발표를 보도록 특별히 배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중추원 고문에 참가하고 싶은 희망을 참을 수 없습니다.

재관 중 자신의 공로를 이러쿵저러쿵 말씀드리는 것은 심히 본의가 아니지만 전에 소생이 평안남도 관찰사 재직 중 황제양위라던가 한국군대의 해산이라든가 전조선 각도에 의병·폭도가 일어나 국내의 어지러운 일이 별집을 쭈신 것처럼 있었지만 유독 평남 한 곳 만은 평안하고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은 임금과 국가를 위해 진력하는 것이 관리의 당연한 책무이지만, 소생은 스스로 공지를 갖고 기쁘게 하였습니다.

1908년 평양에서 경상북도 관찰사로 전임되어 반년 내외에 심하게 소란스러웠던 경북 일성(一省)의 질서회복을 시켰습니다. 소생이 대구에 부임했을 때에는 연해 각 군 및 풍기·순흥·봉화 각 군은 의병·폭도의 난으로 군아(郡衙)가 불타거나 혹은 읍내 민호가 전소되고 혹은 일본인 경시를 비롯해 일본병이 전사하는 일이 있어 전의 만세소동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소생은 몸을 던져 각지에 순시하고 인민을 모아 대세를 역설하고, 이해를 설파하여 마침내 폭도를 침식과 평정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지방관들은 군대·경찰의 무력만 신뢰하고 도청소재지 같은 안전지대에서 한걸음도 나오지 않은 것은 의병·폭도가 침식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믿고, 이때 소생은 스스로 나아가서 위험한 곳에 들어가 반복해서 설명하고 타일렸습니다.

우리들 세치의 혀는 군대·경찰의 무력보다 뛰어난 경우가 있다고 믿습니다. 당시의 공로를 공평하게 포상한다면 소생 같은 경우 일한병합 당시에 당연히 남작위는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습니다.

기왕의 공로로 보아 중추원 고문위는 될 수 있습니다. 또 소생은 통감부 설치 이래 다년간 지방장관으로서 군국(君國)을 위해 진력한 공적으로도 마땅히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내지인이라면 귀족원 혹은 추밀원에 들어갈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생은 조선인이므로 중추원 고문위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 등의 경력에서 보아도 소생의 후배 고희경(高羲敬)도 고문이 되고 소생은 칙임관으로서 20년이나 계속하고, 관 등의 경력에서 고희경보다 몇 등급 위에 있다고 믿습니다. 할 수 있으시다면 배려해 주셔서 중추원 고문으로 특별히 추거해 주시기를 엇드려 바랍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왕직(李王職) 차관 시노다(篠田) 씨는 사임, 하야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소문인지 모르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후임으로서 중추원 서기관 야마자키

마사오(山崎真雄)를 전의(詮議)에 첨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야마자키 씨는 조선인 상류사회에 교제가 넓고 조선인에 대해서 동정을 갖고 야마자키 씨의 머리에는 정신적으로 조선인과 일본인 구별이 없는 사람입니다. 많은 조선인은 야마자키 씨에 대해서 상당 경의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야마자키 씨의 차관취임을 보는 때가 있으면, 그때에는 조선귀족에 이르기까지 박수 환영할 것입니다. 위의 글은 참고로 올립니다.

경백(敬白).

1927년 1월 17일
박중양 재배(再拜)

자작 사이토 총독 각하

〈출전 : 朴重陽1850-1, 3, 5, 6, 8, 9, 10, 13, 14, 17, 24〉

11. 박춘금(朴春琴)

[11-1]

근계(謹啓).

아뢰올 말은 이번 이강(李罔)⁶⁾공 전하 문제에 관해서 자주 신경을 써주셔서 진실로 감사드리고 마음으로 깊이 사례하는 바입니다.

미력하지만 오로지 전하께서 반성하시는 것을 조건으로 진정시켰으니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기상 국가를 위해 한층 자애(自愛)하시기를 오로지 기원합니다.

경구(敬具).

1931년 1월 17일

박춘금 배(拜)

사이토 총독 각하

[11-2]

근계(謹啓).

요즘 따뜻한 봄을 맞이하여 더욱 청영(淸榮)하심을 경하 드립니다.

아뢰올 말은 불초 이번에 중의원 의원당선⁷⁾의 영광을 얻은 것은 오로지 귀공의 두터운 정과 성원의 덕택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금후에도 우리나라 인민을 위해 뼈가 부러지도록 힘을 다하여 노력할 결심이므로 더 한층 교의(交誼)와 지도를 받을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6) 의친왕, 고종의 5자, 다른 왕족과 달리 일제에 저항, 상해임시정부 망명시도, 체포되어 일제감시하에 생활.

7) 1932년 동경 제4구에서 중의원 당선.

우선은 글로 먼저 감사 인사 올리고 싶어서 이처럼 적습니다.
경구(敬具).

1932년 2월 23일

박춘금

자작 사이토 마코토 각하

〈출전 : 朴春琴(1851-3, 4)〉

12. 백흥기(白興基)

전남 강진군(康津郡)

군수 백흥기

경사(敬事).

초여름을 맞이하여 더욱 건강하셔서 경하 드립니다.

아뢰올 말은 지난 번 지방개량강습회 출석 때는 정성어린 환대를 받고 다대(多大)한 신지식을 쌓아 진실로 감사하며 깊이 사례하는 바입니다. 돌아오고 나서 훈시 및 지시는 물론 강습사항의 선전유포·실시철저에 전력을 다하여 지방개량의 실현에 노력하고 있으므로 양지해 주시기를, 먼저 우선 인사올리고 싶어 짧은 편지 올립니다.

경구(敬具).

1922년 7월 3일

전남 강진군 재근

군수 백흥기

사이토 총독 각하

〈출전 : 白興基(1835-1)〉

13. 석진형(石鎭衡)

[13-1]

경성
사이토 총독 각하

전남광주
석진형

삼가 아뢰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을 문안 여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승급의 은택을 입어서 진실로 감격합니다.

이상은 실례이지만 촌저(寸楮)로써 더운데 문안 겸 감사인사 올리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돈수경상(頓首敬上).

1922년 7월 12일
전라남도 광주도청 내
석진형 배상(拜上)

사이토 총독 각하

[13-2]

경성 왜성대 총독관저
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 각하

충청남도 지사 석진형

삼가 절하며 대답합니다.

하명하신 윤치호(尹致昊) 씨 고소에 걸린 광업령 위반 사건에 관한 건, 위는 본도 아산군 온양면 읍내리 후방에 윤치호 씨의 소유 삼림이 있고, 그 삼림 안에는 금광물이 존재해서 약 10년 전 허가를 받고 이것을 시험 삼아 채굴한 적이 있었는데, 금의 함유량이 적어서 수지에 맞지 않아서 중지한 적이 있습니다.(테라우치(寺內) 총독시대 불허가로 되어 있는 것은 무언가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경성부 서대문 이희재(李希宰)가 채굴의 허가를 받아 지난해 12월 6일 경부터 채굴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위의 광구 내에 윤씨 선조의 분묘가 있고, 또 산내의 송림보호를 위해 산지기의 가옥을 두고 감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업권자는 위의 감시인 및 토지소유자에게 무단으로 분묘 및 가옥에 접근해서 채굴을 시작하여 잠시 사이에 분쟁을 일으켜 당시 윤씨에게서 위의 광업권허가 취소의 운동이 있었던 것은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윤치호 씨는 당시 김현영(金顯英)이라는 자를 대리로 현장에 보내 상황을 조사한 결과 12월 23일 관할 온양경찰서에 그 불법을 호소하고 협조를 요청하여 동서(同署)에서 조사했는데, 채굴의 장소는 분묘에서 65간(間)을 떨어져 있었습니다. 산지기의 가옥은 분묘에서 겨우 7간(間) 떨어진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광업령에 의해 산림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할 것을 훈시한 바, 쌍방이 화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윤치호 씨는 김현영의 조치에 만족하지 않고, 12월 27일 현장에 와서 실지를 보고 나서 온양서에 출두하여 광업령 위반으로서 고소를 제출하기에 이르러서 동서에서는 실지를 검증하고 사건에 대한 서류를 공주지방법원 검사에 송치했는데, 검사국에서는 가옥에 접근한 발채공사는 광업령 제5조에 해당하지만 그 광혈은 이미 10년 전 출원자가 발굴한 것을 채굴한 것이고 또 사건이 경미해서 직접의 피해로서 인정할 수 없어서 처벌의 실익이 없다고 해서, 올해 2월 17일 기소유예처분으로 함과 동시에 광업권자에 대해서는 원상 회복을 함과 동시에 다시 동일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온양서장이 훈계하고 지휘하고, 동시에 고소인 윤치호 씨에게 통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온양서장은 당시 광업권자를 소환하여 그 뜻을 엄중히 경계하고 그 광구에 철조망을 쳐서 발굴을 방지했지만, 원상회복공사는 결빙기이기 때문에 아직 실행하고 있지 않은데, 이 무렵에 이르러 인부도 출동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실행하도록 온양서장으로부터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온양경찰서의 조치가 엄정공평을 결여하는 의심을 품게 하는 행위는 전연 없고, 더욱이 상세한 것은 올해 2월 14일 충남 고제(高第) 1228호 및 2월 23일 동 호의 2로써 정무총감에게 보고했으므로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의 사건의 전말은

이와 같습니다.

공황돈수(恐惶頓首).

석진형

조선총독 각하

〈출전 : 石鎮衡(1807-2, 8)〉

14. 선우갑(鮮于甲)

근계(謹啓).

요즈음 봄이 따뜻한데 더욱 건강하시어 경하 드립니다. 그런데 소생에 대해서는 조선에 돌아왔을 때는 정말로 실례했습니다. 그런데 3월 1일은 대단한 소요의 징조가 있었지만 경찰당국 여러분의 충분한 경비에 의해 크게 경찰의 근본 목적을 실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건을 미연에 막았을 때는 일반 세간에서 그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비통한 일입니다. 지난달 중에도 각하도 말씀하셨던 도미(渡米)의 건은 아직 여행권이 내려오지 않아서 정말로 곤란합니다. 그러나 오는 19일 경에는 꼭 상경해서 내려오도록 작정이므로 아무쪼록 만사 잘되도록 지도받고 싶습니다. 더욱이 소생 여비 및 학비 문제는 진실로 황송하게 생각하지만 힘써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이상으로 부탁드립니다.

3월 16일

선우갑 돈수(頓首)

사이토 남작 각하

〈출전 : 鮮于甲(1809-1)〉

15. 선우순(鮮于鎰)

도쿄시 요쓰야구 나카초(仲町) 3초메(三丁目) 44

남작 사이토 마코토 각하

사(私) 친전(親展)

조선 평양역 앞

선우순

숙계(肅啓).

요즈음 가을바람이 서늘한데 더욱 건강하시다고 하니 경하 드립니다.

그런데 서선(西鮮) 등도 계속 편집하고 있습니다. 또 대동동지회도 덕택에 아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날 이래 대동동지회의 권유로 기독교 교회의 조선인목사 중 유력자 4,5인이 단결해서 배미운동(排米運動) 즉 미국인이 지금까지 조선에 대해서 야심을 갖고 이름을 종교에 의탁하고 조선인을 선동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해서 공격하고 조선인만 집회하여 조선에서 (기독교) 전도도 해야 하는데, 지금 조용히 속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 구체적 운동에 관련된 이면안(裏面案)을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단 조선인 목사들이 걱정하는 것은 미국인을 배척하고 그 후 미리 계획한 일을 종전대로 계속하여 교회 및 학교 그 외 각 사무에 체면을 손상하지 않도록 하는 길이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각하께서 귀임하시고 나서 상세하게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이상은 통지할 때까지

충충(匆匆) 근언(謹言).

1920년 10월 23일

선우순

사이토 총독 각하

추신)

시국은 별도의 변화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출전 : 鮮于鎰(1810-2)〉

16. 송병준(宋秉峻)

도쿄시 요쓰야구 나카초
남작 사이토 마코토 각하
친전(親展)

경성 남산정
송병준

배계(拜啓).

상경하였을 때에 연락드리지 못했는데 진실로 할 말이 없습니다. 아뢰올 말은 더욱 건강하신다고 하니 경하 드립니다. 이번에 가산(嫁算) 편성 등 중요한 용건도 마음과 힘을 다하여 순서대로 진척된 일은 미루어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생 변함없이 무사히 살아가고 있으니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요즈음 스기야마 시게마루(杉山茂丸) 씨의 서면에 의하면 다나카(田中) 육군상으로부터 스기야마 씨에게 직접 이야기 할 것이 있는데, 각하와 수상과의 면담 때에 송병준은 이번에 스기야마·우치다(内田)의 구 일진회(一進會) 원조운동에 대해서는 관계하지 않고 토지불하를 할 것이라는 말을 누설한 것과 관련하여, 스기야마 씨로부터 이러한 의미로 구 일진회 시천교원 등을 통하고, 앞의 일 등은 횡포한 언동을 통하여 소생의 무모함을 질책한 사유를 질문한 것과 관련하여 토지불하의 일은 소생 개인의 경영이 아니고 청년들의 목축지원자가 있으므로 말씀드렸다는 것이라고 해도, 스기야마·우치다 등은 전연 소생은 영리에 몰두하여 저 일진회 구체책에 대해서는 무심히 버려두었다고 오인할 뿐이어서, 요즈음 소생의 입장으로서 심히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이번에 관련된 땅을 내려 주신다면 진실로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조경백(早早敬具).

1920년 11월 3일

송병준

사이토 총독 각하

추신)

이왕직 정리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번에 실행할 때에 차관을 또한 내지인으로 서임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가능한 한 조선인 중에 적임자를 물색하여 특별히 임명하는 것이 조선인 관계(官界) 융성을 위해 온당한 것으로 생각하오니 부디 부탁드립니다.

〈출전 : 宋秉喆(1812-1)〉

17. 신석린(申錫麟)

[17-1]

도쿄시 요쓰야구 나카초
사이토 마코토 각하
친전(親展)

충남 공주 신석린

배계(拜啓).

지난번 병환으로 정양하시기 위해 도쿄로 가신다는 것을 듣고 하루라도 빨리 완쾌하셨으면 했는데 의외로 이번에 조선총독의 대임을 사임하신다는 보도를 접하고 근역(權域)⁸⁾의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은 것 같아 낙담했습니다. 특히 소생 같은 평소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는 더욱 아쉬울 뿐입니다. 부디 금후에도 조선을 못 본 척 하지 마시고 우리 2천만 동포를 더욱 성택(聖澤)에 균등하게 젖을 수 있도록 편들어 주시기를 간원합니다. 요즈음 추운 계절 우리나라를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기원하며, 우선 인사로 이치럼 올립니다.

충충경구(惇惇敬具)

1927년 12월 8일

신석린

사이토 마코토 각하

[17-2]

배계(拜啓).

드디어 건강해지셨음을 하례 드립니다. 아뢰올 말은 이번에 본회 평의원회의 결의에

8) 조선의 별칭

따라 소생과 함께 2사람의 부회장이 추천되어 취임하였으니 금후 아무쪼록 원조와 지도
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인사 겸 의뢰를 말씀드립니다.

경구(敬具).

1932년 5월 18일

동민회

신석린

사이토 마코토 전(展)

〈출전 : 申錫麟(1801-2, 3)〉

18. 심우섭(沈友燮)

[18-1]

스위스행(瑞西行)
사이토 전권(全權) 각하

조선 경성 인사동 152
심우섭

지금 경성방송국의 라디오에 의해 오늘 일행 무사히 '제네바'에 상륙하셨다는 것을 듣고 미흡하나마 기쁨을 감내하지 못합니다. 당지는 출장 이후 공사 모두 진실로 청평무사 합니다만, 날씨가 불순해서 보리 등의 작황이 감소하여 지방 곤궁한 백성의 정경은 더욱 비참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요즈음은 또 한발의 징조가 있어 어떻게 할지 지금부터 걱정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중임을 마치고 돌아오시기를 마음으로 깊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조선어사(朝鮮語辭) 책 편찬 계획은 마침내 6월 1일부터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본 구락부의 총무이사로는 윤치호(尹致昊) 씨가 취임해주셔서 한층 더 광채를 더했으니 기뻐해 주십시오. 예의 조선문화 연구에 관한 출판사업도 계속 나오고, 점차로 사회의 호평을 넓혀가고 있는데, 특히 내지의 각 도서관 및 각 대학에서 무수한 감사장이 쇄도하고 있는 것도 기쁘게 느끼는 바입니다. 우가키(宇垣) 대장과는 아직 면회의 기회를 얻지 못했지만 부임하신 이래 남선북마(南船北馬) 하여 크게 지방시찰에 열중하시고, 어제는 또 전라지방에 출장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아베(阿部) 선생은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조선에 오신다고 합니다. 동봉한 사상통신(思想通信)의 일편은 사전 편찬에 관한 세평의 일단(一端)입니다. 사모님께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랜 비행으로 피로하시지 않으십니까? 우선은 실경(失敬).

경성 인사동 계명구락부 내
심우섭

고수(臯水) 선생 궤하(机下)

[18-2]

도쿄시 요쓰야 나카초 3의 44
사이토 고수 선생

경성 경운동 96-3
심우섭
8월 1일

배계(拜啓).

세월이 물과 같습니다. 선생이 조선을 떠나시고 나서 벌써 3개월이 되어 더욱 연모의 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전에 마쓰무라(松村松威) 씨 나카무라 겐타로(中村健太郎) 씨의 말씀에 의하면 요즈음 건강도 점차 회복되시어 가까운 시일 내에 한번 조선에 오실 예정이라는 소식에 하루를 천추로 생각하고 실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생은 지난 달 이후 아침·저녁은 잡지 『조선』의 번역에 낮에는 동민회에서 소광(消光)을 고치고 있습니다. 강의록 개정의 일은 지난 달 제4호를 내고, 지금 제5호에 착수하고 있습니다만 19호까지의 개정은 꽤 고생할 것입니다. 개정완료 후에 잘 활동하면 우선 수지타산 정도의 계산은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교실 없는 학교장(學校長)의 기분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서(序)에 심하게 두렵고 참웠었지만 제가 1건의 내보를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동 민회는 아시는 대로 회장이 결원이 된 지 2년 이상이 된 이래 이사가 별도로 사무를 처리해 왔습니다만 사토(佐藤) 씨가 서거하신 이래 열심히 한 책임자가 없었던 것 같지만, 소생 집무 이래 여러 이사는 자주 회합하여 본회발전책에 대해서 연구를 거듭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최근 협의 결과 본회는 근래 정치단체화 하는 것은 피하고, 금후 단연 일체 정치문제와는 손을 떼기로 하고, 원래의 목적대로 오로지 교화사업 단체로 하고, 선생을 총재로 모시고, 회장 및 전무이사를 정해서 적극적으로 본회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일은 간부 전체가 일치해서 희망하여 의견대로 받아들였습니다만 이 교섭위원으로서 일차로 소생을 도쿄에 올라가 찾아뵙고 나서 청원할 계획입니다만 그 이유는 다른 사람보다 한번 거절당해도 2번, 3번 청원할 여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의 내용대로 결정되어져 소생에게 직접 의욕은 없지만 중요간부내의(重要幹部內議)의 기운이 이처럼 열성적인 모양입니다. 만약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결정해

서 소생이 상경하기로 되었지만 개인적인 정으로는 자애로운 얼굴에 절하고 싶은 것이 무엇보다도 기쁘지만 공적으로는 다행히 승낙을 얻을 수 있다면 얼굴이 서는 것이 이상 없을 것이고, 더욱이 선생의 밑에서 미력을 다하는 것은 소생 평생의 소원입니다. 안부 올립니다.

1931년 8월 1일
심우섭 재배(再拜)

고수 선생

[18-3]

도쿄시 요쓰야 나카초 3의 44
사이토 고수 선생

경성 경운동 96-3
심우섭

배계(拜啓).

올해 봄의 기후는 정말로 변덕스러워서 풍설(風雪)이 계속되어 봄이 와도 봄 같지 않다(春來不似春) 고시(古詩)대로 입니다. 이때 노구에 지장은 없으신지 건강하시고 편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소생은 지난달 아버님이 중풍으로 누워 비교적 경중이지만 기거가 자유롭지 못하고 반신불수로 의사도 전쾌의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에 슬픔을 견딜 수 없습니다. 동민회 강의록의 상황은 노력의 효과 다소 있는 듯하여 작년부터는 호성적을 올리고 있지만 개정의 일은 진실로 어렵고 재정난은 어쨌든 요즈음 강사인 각종학교의 교유(敎諭) 들이 이동하고·정리로 또 차질을 초래하고 있고, 고문으로서 여러 편의를 봐 주신 다카하시(高橋) 시학국(視學局)도 교장으로서는 전출되시는 것 같고, 지금부터 진용을 다시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개정의 정도는 19권 중 8권 정도 완료했습니다. 어쨌든 이 난관만 넘길 수 있다면 그때부터 앞은 다소 편해질 것으로 생각하여 한층 더 노력할 작정입니다.

전일 하나 재미있고 또 감개무량한 장면이 나온 것을 이야기의 재료로서 적겠습니다.
 경성 삼각정(三角町) 함석태(咸錫泰) 군은 소생 20년 친우이지만 4, 5일 전에 갑자기 자신의 딸의 결혼식이 있으므로 와 주셨으면 하는 안내장을 보여주지 않아서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방문해서 그 내용을 들으려고 하자, 그 딸이라는 것은 1919년 9월 남대문 정거장(지금의 서울역) 폭탄범인 강우규(姜宇奎)의 손녀로 강이 사형당한 후 부모 친척은 외국으로 이산하여, 무슨 기연으로 당시 8, 9세의 소녀만을 함군이 받아들여 세간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 극비밀로 기르고 고등보통학교를 마치고 교원시험에 통과하여 현재 마산보통학교의 촉탁교원으로 될 때까지 보살펴 주었는데, 이번에 또 군(함석태)이 돌봐 주어서 이번에 동대 농과를 나온 채내석(蔡內錫)이라고 하는 준재와 혼약하여 28일 부사회관에서 간소한 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후 14년간 친우에게도 알리지 않고 돌보아 준 함군에게도 감탄했지만, 혼인날 신부 측에는 부모 형제 자매 한 사람도 없고(통지할 곳도 모르고) 외로웠는데, 오직 함군 부부를 양친의 대리인으로 있는 것이 안쓰러웠습니다. 금후 부군(남편)의 취직을 기다려 가정을 만들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날 밤 신부부와 함군 부부에게 소생이 당년 선생은 이왕가의 경사에 의한 은사로 강의 사형도 면해질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만 아래 관리의 부주의로 은사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을 아주 유감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실제 일어난 일을 소개한 바 일동 정말로 감상을 참을 수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이상

1932년 4월 1일
 심우섭 배상(拜上)

[18-4]

도쿄시 요쓰야 나카초 3의 44
 사이토 고수 선생
 (보존을 요함) 어친전(御親展)

경성 경운동 96-3
 심우섭

배계(拜啓).

상서로운 신년을 맞이하여 더욱 건강하셔서 기쁘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 여름 조각(組閣)이래 하루하루의 동정 신문지상으로 자세히 알고 노구에 앞이 없는 난국에 임하여 장년도 미치지 못할 기개로 여러 정치의 변화에 건투하시는 것, 이것은 정말로 국가의 흥복으로서 먼 곳에서 단지 감격할 뿐입니다. 그리고 또 일이 많은 의회에서 전보다 갑절의 노력을 요하므로 더 한층 건강에 주의하시고 더욱 우리나라를 편안한 반석위에 놓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조선도 근래 자력갱생·농촌구제 등 선전에 의해 일반청년의 머리에 사상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꽤 변화가 오고, 공리공론을 멀리하고 실지 생활문제에 주의하는 기운이 활발해지고 있어서 정말로 기뻐할 현상입니다. 단 만주의 풍운, 북중국의 일은 여전히 안정되지 않고, 민중을 도탄에서 구하는 것은 전도가 아직 요원하여 진실로 걱정해 마지않습니다.

그런데 소생은 재작년 동민회의 강의록 개정사업을 맡고 나서 유쾌하게 1년 남짓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기간 사업계통의 조립·선전방침의 확립, 가장 힘들었던 여러 강사의 개정원고도 지난 10월까지 전부 완료하고 개정사업은 대개 일단락을 고해, 금후는 단지 독자에 대한 응수를 잘 얻어 아래만큼의 이익은 없더라도 수지는 맞출 가능성은 있고, 현재 적극적 활동 없는 동민회의 사업으로서 유일한 간판이 될 좋은 사업입니다. 단 고등보통학교 이외 무언가 실업교육, 상공(商工)보다도 농업교육을 주로 하는 강의록을 발행하면 현재의 시세에 가장 적합한 사업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고 지난 여름 이래 내내 조사 연구를 진행한 결과 장래 유망할 뿐만 아니라 현재 지방청소년 지도사를 개발하는데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사업임과 동시에 한편 영리도 된다고 확신을 얻을 수 있지만 동민회에서는 다년간 강의록 사업에 손을 대고, 또 현재 교육부로서는 부채만 있고 남은 자본 없고, 또 고 사토(佐藤) 씨 같은 열의가로 전책임을 질 만한 중심 인물도 없거니와 수차 소생으로부터 제안도 “사업은 괜찮지만 자력도 없고 또 새로 사업을 일으키는 것은 생각해야 한다”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소생은 여전히 이 사업의 실현의 희망은 멈추기 어렵고 단독으로 실행해 볼 결심으로 다카하시 하마키치(高橋濱吉)(현재 고보(高普)교장) 쓰보우치(坪内東) 농업교사 3인이 자주 회합하고 먼저 농업 강의 편찬의 범위를 연구한 결과 현재 을중 3년제 농업학교의 전교과 중 고등보통학교와 동일한 과목은 전부 빼고 순수한 농업 즉 농작·양잠·임업·축산·과수에 일반 부업 같은 과목만을 선별해서 약 2,000페이지로 전부 수용, 그것을 6책 완료 단기 강의록으로 하고, 내용은 평이하게 해서 이론에 치우치는 것 없이 누구라도 한 항목 읽으면 바로 실제로 응용될 정도로 실제적 강의록을 만드는 것으로 결정하고 더욱이 독자의 분류는

1. 전에 선생 재임 중부터 걱려를 하셨던 근로교육보급을 위해 일반 보통학교 및 소학교의 혼도 중 사범학교 재학 중에는 농사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직 후 실제로 아동지도에서는 농업에 무거운 비중을 두는 현상으로 곤란을 느끼는 자 많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람들을 참고할 것.
2. 소학교·보통학교 졸업자 지도용으로서 최적일 것.
3. 중등학교 졸업생으로서 놀고 먹는 자는 이 강의록에 의해 자택에서 단기에 농업학교 졸업 정도의 지식을 얻어 조금이라도 놀고먹는 폐해를 구할 것.
4. 일반 지방 관공리 및 농촌지도계급의 농사상식 함양의 재료가 되어야 할 것.

이상의 사람들은 선전 상대로 하고 여전히 강의록 경영에는 중단하는 사람이 많은 일이 가장 곤란하게 느껴지는데, 본 강의록은 단지 6책으로 선금 전액 지불 3엔 정도로 하면 금액도 근소하여 중단하는 사람도 적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 다음은 집필 강사의 선정이지만 다카하시·쓰보우치 두 사람의 알선에 의해 소생이 이 길의 권위자이신 경성농업학교장 노무라 미노루(野村稔) 씨를 방문해 계획의 내용·장래의 포부를 피력하고 원조를 간원했는데 3, 4회의 회견으로 씨의 쾌락을 얻어, 집필자로는 노무라 교장을 비롯해서 동 교 교사 9인을 선정하고 노무라 씨가 편찬 감독이 되어 이번 휴가에 3주간을 이용해서 전부 쓰기로 결정, 지난 24일 토요일 각 강사를 다음 달 관(館)에 초대 다카하시 씨는 소생의 선배격으로 주인 측으로 일하고 협상 겸 간담회를 간소하게 거행하고 주객 함께 유쾌하게 보내고 즐거움을 다했습니다. 금후도 노무라 씨는 강의록 내용에 관한 감독, 다카하시 씨는 일반 감독으로서 후원하는 약속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자본문제이지만 이것은 전에 선생으로부터 은혜롭게 받은 2,500엔을 유일한 자본으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돈은 언젠가 유용하게 활용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주택을 사지 않고 동일은행에 맡겨 이자 대신에 동 은행 소유가산을 무료로 살고 있었는데 금후는 월세를 지불하고 예금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본 사업 및 초년도 지출은

강사원고료	1,000엔(2,000페이지)
견본선전비	500엔
인쇄비	4,200엔(1책 700엔 5,000부)
비품잡비	300엔

이상 약 6,000엔을 요하는데 원고료는 노무라 씨에게서 후불 즉 수입이 있고 나서 받겠다는 주의였습니다. 2,500엔으로서 선전비 외 제3호까지의 인쇄비는 지불할 수 있고,

그 후는 3호까지의 판매수입으로서 순차 변상할 방침입니다. 더욱이 인쇄실에서도 이 사업은 시절상 거의 완전히 갖춰지면, 제4호분 이후는 반 년간 유예할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월중 원고완료 동시에 견본배부, 2월부터 강의록을 내고 매월 2책씩 인쇄하면 늦어도 5월까지의 전부 완료의 예정입니다. 지금의 예상으로서는 최악의 경우라도 회원 2,000명 즉 1만 2,000부는 팔릴 것이고 당년은 조금 손해라도 내년부터 재판하면 소생으로서도 진정한 자력갱생으로 되고 기생층 생활도 면할지도 모릅니다. 더욱이 사무소도 자택에 두고 처자 모두 당분간은 사람을 오게 하지 않고 자력으로 종사할 결심입니다. 더욱이 동민회 쪽은 금후도 의무로 계속 도우려고 합니다.

이상은 본사업의 계획의 요령으로 금후 혼신의 힘을 다해 성공할 확신을 갖고 진행할 것을 대략 보고 드립니다.

선생에게 바라는 것은 바쁘신 중에 황송하지만 견본권두에 실을 만한 글을 한 장 받고 싶습니다. 용지는 보통의 권지로도 괜찮고, 문의는 '농자천하지대본'이나 혹은 같은 의미의 문구 중에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회명은 전에 간친회 석상에서 농본사(農本社)·자조사(自助社)·갱생사(更生社) 3개를 선정하고 이 3개중에 선생님에게 최후의 지정을 원하는 것으로 결정해 두었으므로 지정해 주시면 광영이겠습니다.

1933년 1월 3일 밤
심우섭 돈수재배(頓首再拜)

고수 선생

〈출전 : 沈友燮(1806-1, 2, 3, 4)〉

19. 심형진(沈衡鎭)

봉정(奉呈)

고수 장군 각하

옥절황황진한양만민희고송성장(玉節煌煌鎭漢陽 萬民熙皞頌聲長)

▷ 옥절(玉節)이라는 것은 장군을 지칭한다. 희고(熙皞)라는 것은 인민이 장군의 은택을 입고 태평의 세월 구가하는 것을 말한다.

팔해처처동현용오무가가진수상(八海處處同絃誦 五畝家家盡樹桑)

▷ 장군이 조선에 임하여 유도(儒道)를 진흥시켜 이르는 곳 마다 공자의 가르침을 받들어 현송(絃誦- 거문고를 타면서 시를 읊음)소리 끊어지지 않고 또 인민에게 식산홍업을 가르쳐 뽕나무를 재배하는 것을 권해서 조선 각지에 잠업이 왕성해졌다.

초목향영개자락산천유뢰역생광(草木向榮皆自樂 山川有賴亦生光)

▷ 장군의 덕화 똑같이 젖어서 초목에 이르기까지 모두 저절로 즐거워한다. 고서에 말하길 현명한 자가 지나간 곳은 산천초목 모두 광희라고 한다. 이것이야말로 장군에 해당하는 말이다.

미침애석장군로지원신기수차강(微忱愛惜將軍老 只願頤期壽且康)

▷ 그런데 장군 연로한 것을 슬퍼한다. 바라는 것은 조선을 위해 아니 제국을 위해 바라건대 장수를 누리고 또 건강을 축원한다.

자술소회(自述所懷)

낙성이 떨어지는 밤중에 기러기 소리 들리니
고요한 마음에 놀라움을 이기지 못하는구나
다년동안 수고하시니 초지를 바꾸어서
한가한 거리 한 표주박으로 일생을 살만하니
가을 잎은 바람에 소리나고 쌍문은 닫혀지니

새벽 서리내리는데 달을 끼고 홀로 읊조리니
금단(金丹)⁹⁾은 아직 익지 않았는데 세월은 저무는 구나
인간은 늙으니 가는 정을 어찌 하겠는가

〈출전 : 沈衡鎭(1803-1)〉

9) 불로장생의 비약.

20. 유일선(柳一宣)

삼가 글을 하나 올립니다. 이제 쌀쌀한 가을 더욱 건강하신 것을 경하 드립니다. 그런데 소생은 1년 남짓 도쿄에 칩거하며 안으로는 조용히 반성에 반성을 거듭하고 밖으로는 오늘의 시국에 진지하게 마음을 쓰고 있던 바, 여기에 소생의 신 사명 및 대의를 거듭 말씀드리면 현재 시국의 한 부분을 배경으로서 과거청산과 장래방향이 결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은 존안을 빚는 영광을 받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만, 국무 다망하신 때에 시간을 빼앗아 말씀드리는 것은 황공하다고 생각해서, 심히 무례라고 생각하면서 별지로서 애오라지 소생의 심중을 피려해서 어느 때라도 시간 있을 때 살피시고 용인·지도를 받고 싶어 엎드려 간절히 기원합니다.

돈수재배(頓首再拜).

1933년 10월 23일

유일선 (인)

총리대신 사이토 마코토 각하

제1. 나의 '있음'의 관

1. '있음'은 신성(神聖)

유형무형 물에 구애받지 말고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한 것이고 그 생명의 발로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가진 사람에게는 힘으로 되어 나타남과 동시에 자기 존재의 표현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의 물건을 다루고 소비하는 자유가 없이 단지 그것에서 분열된 세포적인 물건 만을 나의 물건으로서 소비하는 특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있음'을 소비하는 것은 자기존재를 없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전 무일물로 불충분하지만 분투한 결과, 눈에 찰 정도도 없는 빈약한 '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 '있음'을 내 물건으로 취급해서 사업에 주입해서 한편으로는 소비하고 끝나서 얼마 안가서 그 '있음'은 나와 절연하고 떠나갔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어딘가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조롱할 것입니다. 이에 나는 완전히 '있음'의 신성에

더럽혀져서 그것에 넘어진 것입니다.

2. '있음'의 발전

'있음'을 힘으로서 활동시키면서 분열한 새로운 세포적인 물(物)이 생기면 이것은 우리들의 생활의 자료로 될 것입니다. 더욱이 그 자료에 제공해서 잉여가 있으면 이것을 원래의 '있음'에 편입하고 이러한 편입이 계속되면 '있음'은 점점 발전하고 따라서 힘도 증식되어 지고, 우리들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행되는 것이 우리들의 건전한 생활이고 진정한 이상적인 활동입니다. 그런데 '있음'에서 신세포의 분열 없는 생활 또는 '있음'에 먹히는 생활은 실로 위험한 생활이고 자기를 궤멸시키는 생활입니다. 이러한 생활은 끝내 파멸로 빠지고 자신의 존재가 없는 상황으로 빠뜨리는 것은 명확합니다.

나는 '있음'에서 절연하고 나서 어느 정도 지혜가 생기고, 어느 정도 타개책을 강구해 왔습니다만, 지혜에서는 기대가 먼저 서고, 방법에서는 환상이 꿈이 떠올라서 더욱 불안에 빠져 헤매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이기면 헤매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3. 타력(他力)의 '있음'화

타력으로도 '있음'에 편입, 즉 '있음'화 하면 나의 힘으로 되고, 나의 존재의 표현으로 되는 것입니다. 사회가 어느 목적을 위해 주(柱)를 모으거나 혹은 차입을 해도 이것을 '있음'화 하면 회사의 힘으로 되어 나타나고, 회사의 존재로 되는 것입니다. 설령 결식하는 사람이 구입한 금이 조금씩이라도 '있음'에 편입되면 언젠가 결식을 면하는 날이 옵니다. 대체로 저축한다고 하는 것은 '있음'화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있음'화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재생하는 길이고 신비적인 진리의 작용입니다.

종교생활이 사람으로부터 헌납된 물건을 성화한다고 하는 것은 통속적으로 말하면 '있음'화 하는 것이고 유기물질을 형식적인 기도에 통하는 것은 성화가 아닙니다.

나는 '있음'에 절연하고 나서 다른 사람의 원조를 차입해 받았지만 그때에도 바로 써 버려서 충분한 '있음'화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결핍을 초래해서 고통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해온 것입니다.

4. 명백한 생활

'있음'은 생활의 자오선입니다. 이 선상에 서는 생활이 가장 도움이 되고 빛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세인의 분투의 결과 크게 나누어 주므로 빛나고 있는 생활이 증식

되어 가서 이제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옆으로 이러한 생활을 전망하고 비교하고 모방한다는 것은 허영생활이고 실로 암흑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지나도 나의 생활은 아닙니다. 가령 ‘삼순구식(三旬九食)’을 하는 수밖에 없는 아주 작은 ‘있음’이라도 역시 ‘있음’에서 출발해서 종(縱)으로 나아가는 것에 우리들의 명백한 생활이 걸려 있습니다.

오늘 조선인 일반적 생활의 고민은 횡으로는 생활에 의해 안달하는 것이고 종으로는 나아갈 용기 없이 일어난 허영의 변형입니다.

지금 한 때의 생활의 도덕을 중시하고, 생활에 겸손하지 않으면 생활은 이익이라는 위험에 빠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허영에서 오는 고민이 만성이 되면 이것이 즉 생활의 성능이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5. 초점 생활

‘있음’의 생활이 명백한 생활이다. 더 나아가서 많은 명백한 생활이 한점에 집중하면 초점생활로 되는 것입니다. 마치 광선이 한 점에 집중해서 초점을 이룰 정도로 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오늘 일본인의 생활은 ‘있음’의 생활이기 때문에 초점 생활이 성립하면 어떠한 장애물이라도 바로 연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 큰 초점 하에서 한곳에 모으고 있는 비상시국, 어찌 근심하지 않겠는가. 만약 일본인의 생활이 ‘있음’의 생활이 아니라면 이것이야말로 없는 것에서는 어찌 할 수 없으므로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조선인이 내지에 흘러 들어가서 일을 해서 밥을 먹고 있지만, 이것도—실은 일본인 생활이 ‘있음’의 생활이기 때문에 갈 수 있지만 일본인이 모범적으로 초점생활을 해서 밖으로 차서 빛이 나지 않으면 그때야말로 절체절명의 때이므로 이제부터 조선인도 일본인도 함께 ‘있음’생활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2. 나의 ‘끊는 힘’의 관(觀)

1. ‘끊는 힘’과 진보

대저 사물이 진보하는 동력은 끊는 힘이고 일도양단의 칼 앞에 진보의 빛이 열리는 것입니다. 미끈미끈 딱 맞는 것은 진보의 큰 장애물입니다. 일본의 장족적 진보의 원인은 일본인은 끊는 힘에 뛰어나 있는 것입니다. 옛날 일본인이 차고 있었던 칼은 다만 상

정에 불과하지만 그 배후의 끊는 힘의 정신이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상정은 없어졌지만 사물의 정사(正邪)·존폐…… 등을 명백하게 나누는 정신적 끊는 힘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실로 끊는 힘은 일본정신의 중추라고 단언합니다. 이 힘으로 서양 문화를 받아들인 것이므로 진보가 없는 것에 이 칼의 힘으로 그 진보를 허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나는 종래 사업을 실패했다고 단언해서(일절 변명은 일축) 이 판단에 의해 사업을 끊었습니다. 금후 나아가서 새로운 사명에 서기 위해서는 명백한 자기 판단에 있습니다.

2. '끊는 힘'과 정화

성서만큼 끊는 힘의 가르침의 풍부한 경험은 없습니다. “오른 손이 죄를 범하면 폐기하라” 혹은 “지금 도끼를 나무뿌리에 놓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서 불에 넣어라”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개인이든 사회든 정화하는 것은 끊는 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일본은 옛날부터 어느 시대든 끊는 힘으로 일관해서 이것이 혹은 윤리에 혹은 군사에 혹은 법률에 각각 중추적으로 되어 국가사회를 정화하기 위해 활약해 온 것이므로 중추 없이 단지 그 형식만으로는 정화의 능력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금한다’와 ‘끊는다’는 어느 쪽도 제지의 뜻이지만 전자는 법률적이고 후자는 정신적인 것으로 느껴집니다. 미국의 국민은 법률적으로 금주를 하고 정신적으로 단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법률은 마침내 폐기되었다. 나는 사업을 끊음과 동시에 가족을 정화하기 위해 기울어져 가는 가정을 한층 더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가족은 급전직하해서 방황하지만 그들의 심경은 세밀하게 정화되었습니다.

3. '끊는 힘'과 이성

눈물은 신비적인 것이고 인정과 의리 사이에 끼워서 이것을 흐르게 하면 인정은 만족하지만 이성은 더욱 내정해 진다. 이것을 삼키면 이성은 작용하지만 인정은 완전히 냉각되어 끝나므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좋은가 이것을 삼키는 것이 좋은가 하는 논쟁이 일어납니다. 더 말하면 우리들은 인정과 이성과의 사이에 끼어서 무언가 결의하려고 하면 반드시 2개다 출동해서 우리들을 고민하게 합니다.

그런데 일본정신은 눈물을 삼키고 끊는 힘을 단련해 온 것입니다. 서양문화는 과학의 진보와 함께 발달되어진 것이지만, 대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눈물과는 전연 관계가 없고 단지 엄격을 생명으로 하고 절대로 허용하는 것 없이 한쪽 끝에서 잘라 가는 것이므로

로 일본정신으로 그것을 연구하는 것은 가장 적절합니다.

나는 이번에 너무 급격한 끊는 힘에 의해 가정에는 일종의 저기압이 맴돌고 있지만 금후의 새로운 신사명의 목소리가 들리므로 눈물을 삼키고 그들과 1년간 헤어진다는 것 입니다.

4. 일관된 정신

‘끊는 힘’은 전후(前後) 일관하는 바의 진리인 정신의 통제 하에 이루어지는 힘입니다. 만약 뒤에서 추출하는 정신과 앞을 가리키는 정신이 각각 방향이 다르다면 양단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끊는 힘’은 무턱대고 분별없이 자른다는 것은 아닙니다. 끊어진 것이 왼쪽은 왼쪽, 오른쪽은 오른쪽, 흑은 흑, 백은 백, 정은 정, 사는 사 라고 하는 식으로 명백하게 성질을 달리하는 모양으로 자르는 것이고, 좌우·흑백·정사를 혼합하는 모양으로 자르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정신은 나아가서는 이 끊는 힘으로 일관된 정신을 단련해 온 것입니다. 혹은 일본인을 단기(短氣)¹⁰⁾라고 평하는 모양이지만 대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단기는 아직 나의 기(氣)이 아니고 맡겨진 기운이므로 아직 일관된 정신까지 나아가 비로소 나의 기(氣)가 됩니다.

사카모토 료마(坂本龍馬)는 검으로 천하를 얻는 것이 아니라 기(氣)로 천하를 얻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만, 정말 그대로입니다. 그 기(氣)라는 것은 일관한 정신 즉 나의 기(氣)입니다.

5. 양극의 정신

많은 일관된 정신이 동일방향에 의해 일치단결하면 이에 양극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치 많은 철의 분자가 N·S라는 방향에 정렬하면 자석이 됩니다.

일본국의 위치 및 방향은 지문학(地文學)의 그것이 진정한 위치 및 방향이 아닙니다. 일본국민의 이러한 양극정신이 확립한 바, 용진(勇進)하는 바가 세계에 대한 위치이고 방향입니다. 일본인에는 이 양극의 정신이 일반적으로 확립해 있으므로 세계 어느 곳에 있어도 이 정신으로 활약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도 일본의 명예를 손상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선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즉 “평양의 여자는 죽을 때에는 머리를 자신의 고향을 향하고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평양의 여자는 아

10) 성질이 급하다는 뜻.

무리 비천한 생활을 해도 자신의 고향을 사랑하는 정신적 샘이 마음속에 심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3. 나의 도쿄 1년

1. 각성에서의 나의 생활

나는 각성 즉 제1감에서 나의 생활을 조망해 보면 나는 확실히 역경에 서 있는 것이고 나의 생활은 모든 부자연과 모든 불합리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동경은 9백만의 대동경이지만 나에게 대해서는 무인절도 같은 것이고, 내가 알고 있는 집은 나에게 대해서 모두 문을 닫고 있어 뭐라고 할 수 없는 결핍하고 적막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핍과 적막이라고 하면 일순 비참한 느낌이 들지만 그것은 사실 인간을 정확하기에는 영묘한 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생활은 재계(齋戒)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오늘 비상시의 재단에 올린 공물은 뭐라고 해도 인간 외에는 없으므로 공물로 하는 인간은 우선 결핍이나 적막으로 재계합니다. 나는 공사모두 비상시에 이 생활의 재계에 직면해 있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2. 오성(悟性)에서의 생활

오성 즉 제2감을 통해서 나의 생활에 대해서 생각하면 아무리 머리를 숙여도 반성에 반성을 거듭해도 역시 나는 부유하다고 하는 자각 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합리도 부자연도 결핍도 적막도 모두 나의 1년간의 표류생활의 양식이 되어 나에게 새로운 감각이 생긴 것은 실로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즉 이것에 의해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고, 들리지 않았던 것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새로운 발견과 새로운 수확이 많이 생겨서 환희와 감격에 차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환희와 감격에 취하기 쉬운 것이고 그것에 취하면 최후에 취하고 깨어남과 동시에 그것을 잊어버리고 모처럼의 환희도 감격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일시의 감정으로 나타났을 뿐입니다. 그래서 환희와 감격은 공물로 하는 우리들을 경계한다. 즉 철저하게 정확하는 혼의 발현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데 환희와 감격으로 발현 이상의 발현은 없습니다.

3. 이성(理性)에서의 나의 생활

이상과 같이 나는 결핍과 적막에 의해 생활의 재계를 하는 길도, 환희와 감격에 의해

심혼의 발현을 하는 길도 열려 있다고 확신하는 사정이지만 이성 즉 제3감에서 나의 생활을 조망해보면 급히 또 어두워진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길이 정비되어 있을 뿐 또는 열려져 있는 것만으로는 어떤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실제 그 길 위에는 나를 운전하는 힘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곳이 나의 다시 바둥거리는 곳입니다. 그러나 나의 현재의 생활의 이상은 바뀌는 것과 부족함을 아는 것입니다. 나는 불완전하지만 ‘일역(日易)’에서는 배움이 날로 있고 ‘지족(知足)’에서는 머무르는 것입니다.

이 2개의 불을 가졌기 때문에 미몽에 방황하고 곤란에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에 의해 생활의 진보 즉 실천까지 나아가지 않고서는 나의 생활의 존립은 성립되지 않을 것이지만, 이것은 경성에 돌아가고 나서 단행해야 할 생활의 열쇠입니다.

4. 나의 연구

나는 이상같이 3방면의 생활에서 마음 속의 불안이 일소되고 나서 조용히 각 방면의 사상을 다시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불완전하지만 나의 지금까지 갖고 있던 지식을 완전히 배제하고 첫 번째로 일본정신의 연구자료에 제공해서 한마음으로 연구의 걸음을 진행시켰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불가사의 하계도 나의 마음의 작용에는 완전히 놀라 버렸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일본인을 접촉했기 때문에 나의 마음속에는 이미 부지불식간에 일본정신이 어지럽지만 쌓여져 있었던 것을 이번에 비로소 인식한 것입니다. 이번의 연구의 대부분은 자기의 마음속에서 어지럽게 있었던 일본정신이 정리되거나 또는 나의 맥박으로 되어 용솨음쳐 온 것이지만 바깥에서의 새로운 사실도 고쳐서 나의 맥박으로 화해버려서 기쁜 나머지 나의 혼은 뛰고 있는 사정입니다. 나의 독단일지도 모릅니다만 일본정신을 종이 위에 기록해서 현대사상으로 게재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인의 심장을 고동화시켜서 싸우는 것입니다.

5. 나의 강연

나는 이처럼 얻은 연구의 혜택을 틈 날 때마다 여기저기 조선동포에게 강연하고 다녀서 4, 5인의 동지를 얻고 있습니다만 조선동포에는 일반적으로 일본정신을 받아들일 정도의 소질이 부족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동지 중의 한 청년은 본격적으로 수양단의 강습을 수회 받았습시다만 지난달 조선에 일본정신의 선전강연을 위해 갔고, 지금은 함경도 방면을 걷고 있습니다만, 이 청년은 최초 내가 말하는 바의 일본정신에 맹렬하게 반대해서 무서운 칼부림까지 연출했습니다만 지금은 드물게 일본청년에도 지지 않는 인

물로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꽤 신중한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내선용화를 토로하면서 걷는 것이 유행인 것처럼 일본정신을 팔고 걷는 것이 나오지 않는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생각으로는 조용히 생활이나 신념을 통하고 또는 옛날의 위인으로 일본정신의 대표적인 인물이 살아간 사적을 조망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혼에 정성껏 이식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종의 물(物)의 옷음이 되어버립니다.

제4. 나의 일본정신관(개관)

1. 일본사상과 동양사상

일본문화는 원래 지나에서 온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특별한 정신과 신념의 힘에 의해 길러지고 발전되어진 것이므로, 지금은 그 성질도, 그 활약상도 전혀 지나와 별개의 물건으로 되어서 일본의 문화라는 명칭이 붙어서 지나와는 다르게 되었습니다. 그 차이점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지나는 추상적이고 일본은 구체적입니다. 그러므로 동양문화의 부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일본문화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마치 서양문화가 희랍의 추상적과 로마의 구체적, 2개의 흐름이 하나로 되어 형체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거듭 말하면 일본의 문화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 같은 것으로 약간 두들겨도 바로 안에서 사람이 ‘응(應)’하고 말하고 튀어 나올 듯한 기분이 들지만, 지나의 문화는 폐허의 궁전 같아서 인간이 살 것 같지 않지만 만약 인간이 살고 있다고 해도 적당한 노크로는 인간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2. 신관과 군주관

일본정신은 신군일체(神君一體)의 신념이 태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미래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나도 처음에는 신군이 일체의 신념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지나는 연대가 지남에 따라 신군 사이가 매우 벌어져서 지금은 신군의 관계가 보통 신인의 관계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유는 신의 관념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나의 신관은 초월신관 즉 신이 만물위에 계신다고 하는 신념이고 신과 지상의 군주와의 사이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일본의 신관은 범신론의 경향이 있어서 신이 만물 안에 있다, 즉 지상에 임해 주신다는 관념이어서 신과 군주와의 사이는 이전과 변함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나의 군주관은 군주를 오로지 인민의 대표자처럼 생각하지만, 일본은 어디까지나 군주를 섬기는 것과 신을 받드는 것이 같은 것입니다. 이 점은 조선인도

지나인에 가까운 편이고 내지인과 아득히 다른 점입니다.

3. 건국의 계시

일본은 신으로부터, 공간적으로는 “위원천오백추서수국(葦原千五百秋瑞穂国)¹¹⁾ 우리 자손의 왕이어야 할 땅이다”, 시간적으로는 “보물을 고하니 내려왔고 하늘이 주신 것이니 다함이 없을 것이다”라는 신칙(神勅) 즉 축복적 계시하에 건국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조선은 이것과 정반대로 이조는 500년으로 망한다고 하는 정감록의 예언을 받은 나라입니다. 일본은 이처럼 고마운 신칙을 받고 있고, 조선은 말로(末路)의 선언을 받고 있어 양자의 근본적 정신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구약에는 신이 인간을 “번식하라, 낱아라, 하늘의 별처럼, 해변의 모래처럼”으로 축복하셨지만 얼마나 고마운 것일까요. 인간의 신념은 신비적인 것이고 그 축복대로 성취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행하는 것이므로 위대한 힘을 하사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뿐만 아니라 선언도 그대로입니다. 이조가 예언대로 된 것은 국민이 5백년 간 끈기 있게 상속하면서 예언을 손가락으로 세어 맞추어 왔다고 하는 것에 진리가 있습니다.

4. 일본선(日本線)(1)

전에 일본의 정신이라고 했지만 그것을 다시 일본선으로 부르고 싶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연구에 열중하고 있으므로 아직 확실한 것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본인에는 혈액인가, 근육내의 세포인가, 어딘가에 이 일본선이 머물고 있을 것입니다. 교양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 아무리 보잘 것 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비상시에는 일본선으로 다시 서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나쁜 일을 범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부패한 사람이라도 마침내 죽음에 임할 때는 이 선(線)을 바르게 하고 끝날 것입니다. 현재 사상이 극도로 혼란해 있다고 하는 것은 주관적으로 생각하면 일본선의 양극이 어지러워 있는 것입니다. 주관이 확립하기 전에는 객관도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5·15사건에서 심판한 것도 심판되어진 것도 똑같이 이 선에 서 있다고 생각할 때 노래에는 그 신들에 바치는 한 응큼의 눈물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1) ‘위원천오백추서수국(葦原千五百秋瑞穂国)’은 ‘갈대가 무성하고 영원히 곡물이 풍부하게 열리는 나라’라는 뜻으로 일본의 미칭. 일본서기, 고사기 등에서 쓰임.

5. 일본선(2)

일본선을 자석에 붙여서 배우고 싶은 것입니다. 자석을 쇠망치로 두들기면 자력을 상실하지만 그 위를 다른 온전한 자석으로 마찰하면 원래대로 자력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석의 분자 N·S에 맞추어서 정렬하면 원래대로 자력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일본인 중에 일본선의 약한 사람이 외래의 사상으로 두들기면, 일본선 양단이 혼란해져 일본정신을 상실하지만 어떤 계기로 다른 건전한 일본선에 접촉하면 원래대로 일본선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최근 좌경적인 사람들로 방향전환을 한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모두 이 도리에 속하는 정신적인 작용입니다. 그러나 일본선에 서서 돌아오면 물러나서 자기의지의 강약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만약 원래의 의지가 약했다면 모처럼 돌아와도 다시 어지러워질 때가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자석은 연철은 자력을 띄기 쉽고 상실하는 것도 빠르기 때문입니다.

제5. 나의 결의

1. 실천에 서서

우리들은 자주 신념, 신념이라고 말하지만, 신념은 인간의 존귀한 정신작용이고 우리들의 눈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신념(눈)에 나타난 것은 모두 우리들의 가슴에 들어올 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중에 착각에 속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들은 역시 우리들의 부근 즉 지상에 있으므로 신념(눈)의 위에는 없을 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물건은 신념(눈)의 힘에 의해 우리를 향하여 내려오는 도중에 옆에 걸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신념(눈)의 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신념(눈)의 힘에 의해 우리 물건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신념(눈)에서 우리 물건으로 될 때까지의 과정이 위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곧 실천이고 우리 생활의 진보이고 열쇠인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도쿄 1년의 생활에서 얻은 결론이고 나는 꼭 여기에서 걸어 나갈 결심입니다.

2. 선명화해서

종교가의 신념 전부 선명하지 않고, 학자의 지식 모두 선명하지 않은 것은 타력 혹은 사전의 빛을 빌리고 실천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천은 인간의 패기입니다. 나를

현재의 환경에 마찰해서 일어난 패기입니다. 실천이 진동하면 빛으로 되고, 실천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동력이 되어 나타나는 것이므로 실천의 앞에는 어두운 밤도 없고, 정체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직한 도끼든 사람의 가래에는 동전이 자꾸자꾸'라고 하는 것이고 실천의 앞에는 빛이 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현실사회에서는 정신가와 실천가의 구별이 명확해서 생활은 어떻게 해도 실천이 아니라면 안 된다고 인정하게 된 결과, 정신가도 실천을 주창하게 되었지만 정신가의 실천은 전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머리에 있는 신념 및 지식을 그대로 실천의 길 위에 추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백역(白易)' '지족(知足)'을 배경으로 해서 실천에 의해 생활을 선명하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3. 나의 생활에서 출발하다

실천에 의해 일어난 빛을 더욱 실천적으로 운영하지 않고서는 선명의 빛으로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선명이라는 것은 고도의 빛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본성을 명확하게 하기에 충분한 빛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실천으로 더욱 실천하는 곳에 선명한 빛이 빛납니다. 소위 실천궁행(實踐躬行)이라는 것은 자주 말한 말입니다. 즉 실천해서 얻은 힘으로 더욱 실천적으로 행하는 것이 궁행입니다. 하루 종일 땀을 줄줄 흘리면서 일한 돈은 실로 존귀한 돈이지만, 이것을 하찮은 일에 순간적으로 사용해 버리는 것에 실천의 존귀함이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에게서 실천에서 출발해서 실천에 도착하지 않고서는 선명한 빛은 발현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발사한 빛과 반사한 빛 사이에 선 생활이 우리 생활입니다.

나는 종래의 나의 생활을 '어떻게든 된다'라고 말하고 경시한 것이지만 전혀 어떻게 도지 않았습시다. 이에 나는 첫 번째로 나의 생활을 확립시키고 나서 사업에 손을 대려고 결심한 것입니다.

4. 일혼주의(一魂主義)인가?

이번에 내가 불완전하나마 도리를 꿰뚫을 수 있었던 일본정신을 말씀드리면 종교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고, 일종의 특별한 것으로 억지로 학문의 명칭으로 언어로 표현한다면 '일본동학(日本動學)'으로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일본정신은 동적이고 정적은 아닙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녹이 슬고 혈액이 굳는다고 말하는 것에서 일순간도

정지를 용납하지 않는 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정신은 일본이라고 하는 큰 심장의 고통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이 건국한 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잘도 오늘까지 계속되었다고 생각하면 불가사의 하지 않습니다. 이 고통의 힘이 동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이 고통화 즉 일본 문화화되었습니다. 오늘 조선인이 일본인과 걸음을 맞추어서 같이하려고 생각한다면 우선 이 고통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조선인의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단지 가르친다든가 소위 선전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단지 이 고통을 사람들의 혼에 불어 넣는 것입니다. 즉 그것이 일혼주의입니다.

5. 제일선주의(第一線主義)인가?

여러 종의 시대사상이 놀랄 만큼 많고 넘쳐나서 혼란으로 들어가서 “나도 진리, 진리”라고 말하고 진리를 싸게 팔면서 스스로 구가(謳歌)에 열중하는 광태(狂態)는 실로 가련한 것입니다. 그 진리를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별개로 하고, 싸게 파는 사람은 아무리해도 비천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제일 그 얼굴모양, 말하는 방법, 거동, 행위 등이 경박해서 비천한 것입니다. 즉 사람으로서는 확실히 추락해 있는 듯합니다. 사람을 잃고 진리만으로 어떤 가치가 있을까 “천하를 얻어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이익이 있는가”라고 기독교의 말을 음미해야 합니다. 나는 신의 복음에서도 우선 인간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구원되지 않고 신의 진리를 주창해도 사람은 전부 불완전합니다.

지금은 신다운 인간을 만드는 것보다도 인간다운 인간을 만드는 것이 제일의 급무입니다. 일본정신이 들어간 인간다운 인간을 만들어 복음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의미에서 나는 제일선에 서고 싶은 것입니다.

(부) 끝내는 말

- 대단히 길어져서 진실로 황공합니다만 한번 읽어주시면 광영입니다.
- 재생의 소생을 이때 지도해 주셔서 의의 있는 봉사가 가능하도록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 소생의 생활문제는 관용으로서 약간 도와주신다면 그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가족과 함께 실천궁행해서 선명한 생활을 세울 것을 진심으로 결심하고 있습니다.

- 1년 3개월 만에 돌아오는 것이므로 어떤 희망을 가족에게 주어야 하므로 널리 살피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망하셔서 아주 황송하지만 조금의 시간이나 꼭 한번 만나 뵙고 장래를 위해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또한 전화로 사정을 여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전 : 柳一宣(1894-1)〉

21. 육종윤(陸鐘允)

근계(謹啓).

삼가 아뢰입니다. 각하가 전에 오랫동안 통치하신 조선을 일단 떠나신지 2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다시 조선통치의 중임을 명령받으신 것은 각하보다 뛰어난 적당한 인재가 없어서입니다. 나아가서는 각하는 각하가 친애하는 조선사민을 면접할 때 어떠한 토산물을 지참하고 그들에게 줄까 또는 조선통치를 각하가 신뢰하고 촉망하는 내지의 조야(朝野)의 사우(士友)에 대해서 어떠한 성적을 후일에 보일까. 이 두 가지는 각하가 이미 계산하신 것이고 살펴 고찰하셔서 남음이 있다고 해도 현재 세계풍조는 월로 바뀌고 날로 바뀌는 때를 당하여 사방(四圍)의 자극으로 조선의 사정도 2년 전 각하 재임 당시의 조선은 아닙니다. 오늘에는 전처럼 단지 문화표방만으로는 일찍이 각하의 위엄과 덕에 훈도된 조선인을 감복시키기에 부족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고래 어떠한 위인이라고 해도 구 임지에 다시 근무한 자는 초임 이상의 공적을 올린 자는 드뭅니다. 왜냐하면 성적을 올리기 전의 경험에서 자연히 습관이 되고 익숙한 전의 수단을 답습하기에 이르러도 통치를 받는 자는 그것을 보통이라고 생각하여 통절히 감동하지 않고, 도리어 불만을 품는 일도 있습니다. 제갈공명은 여섯 번 기산(祁山)에 나갔지만 전공이 없고, 황패(黃覇)는 다시 영천에 임명되었어도 치적이 없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바라건대 각하는 이것을 거울 삼아 조선을 익숙한 길, 가벼운 수레로 하지 말고, 십년 전 처음으로 조선에 부임하실 때와 같이 만반에 주의해서, 통치의 대방침은 갑자기 개혁 변동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해도 전체의 공기를 일신해서 신 총독인 각하의 위력과 덕망을 구 총독인 각하보다 일층 증진하여 일선용화·공존공영의 실을 올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생은 현재 입에 풀칠하기에도 어렵지만 아시는 대로 일찍이 이토(伊藤)공 및 하라 다카시(原敬) 씨로부터 인정을 받아 자주 정치상의 우견(愚見)을 말씀드린 일도 있고, 또 수 년 동안 각하에게도 은혜를 입어서 참월을 무릅쓰고 감히 한마디를 올리는 사정입니다. 위에서 기술한 것 중 오늘 조선에 갖고 오시는 토산물 및 후일 조야에 표시하실 성적 운운의 두 건은 남은 눈도 많고 일도 은밀한 것에 속하므로 하나하나 지필로써 기록하지 않고 배알을 허락 하신다면 자세히 진술하여 참고에 도움이 되게 하겠습니다.

1929년 8월 29일

육중윤

자작 사이토 조선총독 각하
시사(侍史)

〈출전 : 陸鐘允(1893-1)〉

22. 윤갑병(尹甲炳)

진술서

1919년 조선 민심이 동요하고 있을 당시에 사이토 총독 각하가 조선에 부임하신 이후, 9년간은 우리 조선인들이 안정 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발전하고 있었던 것은 누구라도 상세하게 알고 있는 사실로서, 이 자리에서 따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으나, 다만 이번 학생사건에 대하여 평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요의 원인을 생각해 보면 그 가운데 불상사의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세에 따라서 일한병합 이래 공명정대한 조선통치에 대해서 우리 2천만 조선인은 충심으로 신용하고 있는 바입니다.

불행하게도 의옥(疑獄)사건이 발생하여 일반 민심이 의심을 갖고 있는 이때에 또한 광주사건이 일어나서 불온한 무리들이 이때를 노려서 선동하여 각지에서 학생들이 동요하고 있지만, 다행히 당국이 특별히 용서하여 관대한 처분을 내려 주셔서 우리는 감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희망하고 있는 것은 주모자 이하 학생들을 하루라도 빨리 전원을 석방해 주셨다면, 하는 것이 대체로 일반 사람들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민중이 모두 들고 일어난다면 조선 통치에 크나큰 방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에 또 다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이토 각하가 조선에 재임하시게 된 것과 고나마 각하께서 조선에 와 주신 것은, 우리 조선인이 충심으로 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조선인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양 각하는 누구든지 한 번 면회를 한다면 마음이 자연히 기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망하신 중, 가능한 대로 가끔 지방에 출장해서 지방 유지와 각 학교 부형을 모아서 의논하여 이야기를 한다면 관민 사이에 화기에애하게 되어서 장차는 또 이러한 불상사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증추원 참의 윤갑병

사이토 총독 각하

〈출전 : 尹甲炳(1732-1)〉

23. 이방협(李邦協)

조선총독부

조선총독 각하

친전(親展)

중국 장춘(長春) 거류조선인회

이방협(李邦協)

엄형인(嚴亨仁)

1919년 9월 8일

근계(謹啓).

조선총독 남작 사이토 마코토 각하

각하가 폐하의 신임에 의해 국가의 중임에 취임하셔서 신부민(新附民)을 위해 노력을 다하신 것에 관해 만주에 있는 조선인은 목을 내밀며 몹시 기다리며 바라고, 은근히 기대를 크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서 보도하는 바에 의하면 각하께서 임지에 도착하신 날 한 미친 놈이 각하께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다행히 별탈 없이 각하의 신변에 약간의 흠도 가하지 못한 것은 불행 중 다행스런 일이라고 해도 이 미친 사람이 조선민족인 소생들의 동포에게서 일어났다는 것은 소생 등 무슨 얼굴로 세인을 볼 수 있겠습니까? 유감과 개탄이 가슴 속에 서로 교차하고 있습니다. 생각건대 제1차 세계대전의 파동은 동양의 천지를 꺾어내고 하여 지금은 내분을 일으키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소생 등은 진심으로 각하의 금후 최선의 정책을 신뢰하고 우리 2천만 동포 신부민(新附民)의 행복을 증진시키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내지민족과 조선민족을 물문하고 동등하게 폐하의 충성스럽고 좋은 신민(臣民)으로서 제국의 진전(進展)과 전 국민의 복리에 몸과 마음을 기울이려고 하는 것을 희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만주에 있는 3백만의 조선민의 선량한 의도를 대표하여 삼가 각하께서 난을 만난 흥사를 아파하고 아울러 장래의 편안함을 기원하는 뜻을 더하려고 합니다.

공황근언(恐惶謹言).

1919년 9월 8일
장춘 거류조선인회 총대(總代)
이방협
엄형인
돈수(頓首)

조선총독 남작 사이토 마코토 각하

〈출전 : 李邦協(1891-1)〉

24. 이완구(李完求)

[24-1]

복번(伏煩).

혹한의 계절에 각하의 신체 더욱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소생의 일은 덕택에 무사히 귀착하여 근무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므로 황송하지만 안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전에 의령군 고진면 미륵동 국유지 미간청원에 대해서는 부디 각하께서 힘써주시면 좋겠고, 만약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전부 가족의 생명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하께서 무한한 동정을 거듭 내려주셔서 계획한 미간지를 허락해 주시다면 전체 가족이 기뻐하고 또한 종생토록 바다보다도 깊은 은혜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불초 저의 명의로서 허락하실 수 없음은 물론 알고 있습니다만 저의 정황을 돌아보고 부디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초 저의 장남, 이남, 삼남 및 아내 등은 불행히도 불령선인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사망하였고, 지금 남아 있는 사남 이희인(李喜仁) 및 손 이정도(李正道) 두 명에 대해서는 아직 미성년자로 마땅한 영업 및 입에 풀칠한 수단이 없기에 이르러 백방으로 농무(農務)를 노력해야하는 상황이므로 가능한 한 각하께서 할 수 있는데까지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생의 일에 대해서는 총독 각하 및 지사 각하를 부모보다도 중히 믿는 형편으로 전 가족의 정황을 살펴서 부디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일의 취지에 이런저런 인사를 가름합니다.

돈수(頓首).

1923년 2월 27일

소생 이완구

총독 각하

[24-2]

유럽 스위스 제네바 일본제국공사관 내
삼국회의 일본전권대표 조선총독

자작 해국대장 사이토 마코토 각하

중국 안동현 시장통 9정목(九丁目) 1번지
이완구 근배(謹拜)

근계(謹啓).

더운 날씨에 각하께서는 여파만리를 넘어서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셨는지요. 소생은 각하께서 염려해주신 덕분에 무사히 살고 있으므로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재경(在京)중은 무슨 일이나 보살펴 주셔서 그 은혜는 가슴에 새겨 영원히 각하를 흠모합니다. 한편, 각하와 사모님께서 별일 없으신지요? 소생은 각하께서 우리나라의 군비 때문에 무언가 불안을 느끼시는 것 없이 또 세계평화를 위해 공헌하시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각하의 아름다운 이름을 청사에 빛내시고 큰 위인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소생은 경성에 체재중 병이 나서 10일 남짓 숙소에서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본 부내에서 도지사 회의가 열릴 때에 소생의 아픔도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5월 17일 본부에서 평안북도 지사 다니타(谷多) 각하를 회견했습니다. 지사 각하는 강변을 완전히 막아도 큰 비가 올 때는 넘쳐 나올 우려가 있으므로 허가하기 어렵다고 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제방은 경사가 급한 높은 성 같은 것이 아니라 2.3리에 걸친 경사를 이루고 있으므로 설령 홍수가 나도 급히 넘칠 우려는 없습니다. 이렇게 소생의 희망은 좌절되어 버리고 이제는 어떻게든 할 방법도 없습니다. 몇 해 전 총독 각하의 자애로 수 정보를 받을 기회가 있었지만 타인의 방해 및 지방당국의 무성의로 5정보를 받았습시다만, 그것도 2사람에게 분할되어 그 동안의 생활 곤란으로 전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소생은 총독 각하가 조선에 돌아오셔서 어떻게든 소생의 희망을 채워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소생은 어쩔 수 없이 고향 안동현으로 돌아가 일각삼추(一刻三秋)의 심정으로 각하께서 조선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생은 각하가 국가를 위해, 세계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노체 건강하시지 않는데 이처럼 해양 만리의 항해를 하시고 풍속 다른 스위스에 가서서 건강 나빠지는 일이 없도록 소생은 근심을 억제하면서 절실히 안녕을 빕니다. 끝으로 각하는 제국의 사명을 다하시고 한결같은 자애를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공황돈수(恐惶頓首).

1927년 5월 18일
소생 이완구 근배(謹拜)
사이토 마코토 각하

〈출전 : 李完求(1865-1, 2)〉

25. 이진호(李軫鎬)

[25-1]

근계(謹啓).

요즈음 추위가 다가오고 있는데 건강하게 지내신다고 하니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아뢰올 일은 저의 일은 지난 18일에 2급봉(二給俸)에 승급의 은혜를 입었는데, 이것은 오로지 각하가 배려해 주신 것으로 감사드리며 삼가 인사 올립니다. 이상은 글로 감사인사 드리고 싶어 이처럼 올립니다.

경구(敬具).

12월 29일

이진호

남작 사이토 총독 각하

[25-2]

돈수재배(頓首再拜).

요즈음 추운 기운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데, 각하는 더욱 건강히 지내신다는 것에 국가적으로서는 경하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11일부터 13일까지 관하(管下) 경찰서장회의를, 동일부터 16일까지 부윤군수(府尹郡守)회의를 개최하여 누구라도 각하의 취지를 상세하고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이 지방민심도 극히 안온(安穩)한 상태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더욱이 시절이 시절이므로 더욱 자애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조조재배(早早再拜).

1919년 11월 24일

이진호

사이토 총독 각하

[25-3]

배계(拜啓).

요즈음 장마가 계속인데도 건강하시니 국가적으로서 경하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아뢰을 맡은 소관의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달 25일부로 서훈(叙勳) 3등 서보장(瑞寶章)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은(聖恩)이 창대해서 우로(雨露)와 같아 진실로 감격하고 두렵고 황송하기 짝이 없어서 감내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무한한 광영을 입을 수 있는 것은 모두 각하께서 평소에 비호해 주신 덕택입니다. 이에 삼가 감사말씀 올립니다. 우선은 소략하나마 글로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경구(敬具).

1920년 7월 5일
이 전라북도 지사

사이토 총독 각하
시사(侍史)

[25-4]

배계(拜啓).

요즈음 삼복의 계절입니다. 각하께서 더욱 건강하게 지내시니 국가로서 경하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아뢰을 맡은 지난번 부(府)에 올라갔을 때에는 생각지 않게 고정(苦情)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감내할 수 없습니다. 금후에도 각별한 보살핌을 받들고 싶어 엿드려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은 감사인사 겸 소원을 아뢰고 싶은 것이 이와 같습니다. 말씀 올리며 건강에 주의하셨으면 합니다.

경구(敬具).

1923년 7월 24일
이진호

사이토 총독 각하
시사(侍史)

[25-5]

근계(謹啓).

양춘(陽春)을 맞이하여 각하 더욱 장건(壯健)히 지내셔서 경하 드립니다.

아뢰올 말은 이번에 각하께서는 더욱 건강이 안 좋다고 하는데 노체(老體)를 무릅쓰고 육지와 바다로 먼 길을 여행하신다고 하니 살펴 보건데 무척 힘드실 것으로 생각되지만, 각하의 인품과 역량으로 반드시 이 중임을 완수하시고 폐하께서 맡겨 주신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것을 확신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가시는 길 편안히 왕복하시도록 기원합니다. 소관의 일에 대해서는 시찰을 위해 약 3주간의 예정으로 오는 17일부터 당 북만주에 출장할 것입니다. 우선 이상과 같이 적습니다.

경구(敬具).

1927년 4월 13일

이진호

사이토 총독 각하

집사(執事)

[25-6]

삼가 아뢰입니다.

그 후 병환은 어떠하신지요. 아무쪼록 소중히 하시기를 기원 올립니다.

이번에 사표를 내셨는데 다년간의 조선 통치 때문에 깊은 심로(心勞)를 받은 것에 대해서 진실로 너무 감격해서 감내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각별한 은혜를 입고 있는 저로서는 만감이 가슴에 교차하는 것이 있어, 금후의 일의 시행과 조치에도 괴로움을 아뢰는 사정입니다. 각하의 휘하를 떠나서는 도저히 오래오래 봉공(奉公)을 말씀드리고 또 그런 의지도 없고, 어쨌든 해가 저물고 봄이 오면 빨리 상경해서 친히 지도를 받들고 싶습니다. 부디 이 이상으로 각별한 도움을 받고 싶어 오로지 소원을 올립니다. 우선 이상 여쭙고 싶어서 이처럼 적습니다.

돈수(頓首).

12월 7일

이진호

사이토 각하

[25-7]

근계(謹啓).

오랫동안 소식 전하지 못해 실례하였습니다. 요즘 봄바람이 따뜻한 때입니다만 각하 병환은 어떠하신지, 기거하시는데 불편하시지는 않는지 신중히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데 소관의 일에 대해서는 별 일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일로 휴가를 얻었으면 하고 소원 올립니다.

그런데 내명(內命)하신 박석운(朴錫胤) 군의 신상(身上)건에 대해서는 대학총장으로 교섭 중에 있으므로 멀지 않아 채용될 것입니다. 더욱이 어윤중(魚允中)의 손자 어인(魚仁)의 급비생(給費生)의 건에 대해서는 예산의 관계상 오는 7월경 채용할 심산이므로 이상과 같이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 총독부 및 지방관청의 직원 대대적인 이동이 있는데 그중 다소 불평을 토로하는 자도 있는 모양입니다. 소관의 일에 대해서는 평소부터 각하의 자애스런 돌보심을 입어, 다른 지장은 없고 현상대로 지내고 있지만, 가까운 장래에는 지난번 도쿄에 가셨을 때 의뢰해 두었던 미쓰비시(三菱) 회사 설립과 동시에 각하의 정중하신 소개를 받아 스스로의 숙망을 달성하게 되어 현상의 관계를 분리하고 싶으므로 부디 더 한층 지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후일 기회를 봐서 도쿄에 가서 뵙고 나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심산입니다.

송경헌(宋鏡憲) 백작가의 정리는 덕택에 착착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중대한 소송 2, 3건을 지난번에 승소했는데, 이것은 오로지 각하의 은택이라고 본인도 시종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작은 소송사건은 남아 있지만 이것도 곧 종결될 것임으로 이것이 전부 끝남과 동시에 각하의 지도에 의해 향리에 이사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당히 소관도 항상 주의를 주고 있으므로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은 이상 답장 올리고자 이와 같이 적습니다.

근백(謹白).

1928년 4월 21일

이진호

사이토 마코토 각하

시사(侍史)

[25-8]

삼가 아뢰입니다. 입춘 뒤 추위에 노체 더욱 청강(淸剛)하게 지내신다고 하니 국가적으로서 경하 드립니다. 그런데 도쿄에 간 후의 상황은 별도의 변고 없었습니다만 출발할 때 말씀드린 대로 비밀히 유지(有志)의 연락을 도모하여 금후의 선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금(昨今) 또 다시 시내 두 세 학교의 동맹휴학이 시작되었는데, 이유는 광주사건 공판의 날에 동정을 모으는 일종의 시위 같은 것으로 공판기일이 경과하면 2, 3일 내에는 복교(復校)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혹은 그것이 전반학교에도 선동·뇌동하지는 않을까 걱정되어, 정말로 한심하고 통탄해서 참고 견딜 수 없어 주야로 그것에 대해 눈 앞의 급한 계책으로 타개할 방법의 첫 번째로서 무지한 청년의 오해를 일소시킬 정도의 유력한 부형(父兄) 측에도 철저히 수배를 하여 가정에서 주의편달을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해서 조금이라도 걱정이나 누를 각하에게 미치게 하지 않도록 마음을 다해 강구하고 있습니다. 본일은 선거개표일이고, 서울에 체류하는 중에 번뇌가 많으실 걸로 조심스럽게 추측합니다. 시절상 부디 몸을 아끼시고 소중히 하시기를 엿드려 기원합니다.

공황근백(恐惶謹白).

2월 20일

이진호

사이토 노(老)총독 각하

〈출전 : 李軫鎰 1882-2, 3, 5, 10, 14, 16, 18, 22〉

26. 장우근(張宇根)

봉천도(奉天都) 호텔

장우근

12월 10일

숙계(肅啓).

요즈음 추운 계절인데 각하 마침내 건강해지셨다니 크게 경하 드립니다. 아퀼 말씀은 전에 불초(저)의 상경 때는 종종 높은 가르침을 주시고 좋은 대우를 베풀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그때 말씀드린 당지 조선인 교육의 건은 일선사(日鮮士) 다수의 찬성을 얻어 착착 진보하여 근일(近日) 개교할 것입니다만, 이후에도 부디 원조가 필요하므로 오로지 부탁 올립니다. 이어 잘못된 조선 사람들의 건에 대해서는 선배들과 상의하고 나서 각 방면으로 연구를 해서 부족한 때는 충분히 노력해서 봉공(奉公)할 것입니다. 이상 빨리 감사인사 올려야 하는데 봉천에 돌아간 후 이것저것 바쁜 일이 많아서 지연되었으므로 용서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 올립니다. 조조(早早).

돈백(頓白).

1919년 12월 10일

장우근

사이토 총독 각하

〈출전 : 張宇根(1817-1)〉

27. 장헌식(張憲植)

[27-1]

경성 가회동 4

장헌식

1928년 1월 8일

근계(謹啓).

추운 계절인데 각하 비로소 사모님과 편안하고 건강하게 지내시는지 문안 여쭙습니다. 그런데 소생은 다수의 가족(家屬)과 함께 무사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것 모두 (각하의) 높은 은혜를 받은 것으로 일생 너무 감격해서 감사드리고자 인사 올립니다. 작년 말은 아쉬운 석별에 정념(情念)을 참을 수 없어서 만나 뵈려고 올라갔는데 정양중 붓으로 쓴 명함을 받아 도리어 너무 황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서신으로도 문안 여쭙는 것이 당연한 예라고 생각하지만 하나하나 답장 등을 하셔야할 번거로움을 미치게 할 우려가 있는 이유로 항상 사양하고 삼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것 또한 황송하지만 부디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각하 하루라도 빨리 완쾌하신다면 더 이상 바랄게 없습니다.

근구(謹具).

1928년 1월 8일

장헌식 재배(再拜)

사이토 자작 각하
동 사모님(御奧様)

[27-2]

근계(謹啓).

지금까지 숭고하신 성전(聖典)을 보필 봉축(奉祝) 하신 것에 즈음해서 여러 가지로 다용

(多用)중에 일부러 자애로운 서한을 받아 진실로 황송하여 감격하여 어찌해야 좋을 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쪽에서도 전 산하(山河)가 지성으로 봉축하고 정숙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올릴 겸 이에 감사드리고자 인사 올리므로 편안히 귀경하시기를 오로지 기원 올립니다.

근구(謹具).

1928년 11월 13일

장헌식

동 처

사이토 자작 각하

동 영부인님(令夫人様)

〈출전 : 張憲植(1818-13, 18)〉

28. 조병상(曹秉相)

경성 황금정(黃金町) 1정목(一丁目) 181

조병상

근계(謹啓).

요즈음 청영(淸榮)하심을 하례 드립니다. 아뉘 말씀은 저의 일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척식자(拓植者) 문제와 관련하여 도쿄에 가셨을 때는 여러 가지 지도와 원조를 반자와 진실로 깊이 감사합니다. 문제에 관해서 절실한 원조를 받아 전말(顛末)을 일동에게 상세하게 전했더니 일동은 진실로 은혜가 깊고

각하와의 지난번의 모습을 추억하며 특히 감격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감사의 말씀 올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근구(謹具).

6월 23일

조병상

사이토 마코토 각하

〈출전 : 曹秉相(1813-1)〉

29. 최화주(崔華疇)

경성총독부 내
조선총독부 총독 사이트 남작 각하

평안남도 대동군 남환면 노남리
유생 최화주 근상 송덕표(頌德表)

대일본제국 조선총독부 사이트 남작 각하 송덕표

세월은 다시 새롭고, 대일본치화의 밝음은 해와 달과 합쳐서 어울리고
천(天)황 천지가 크게 열리고, 정덕의 크심이 천지와 더불어 동류이시고
해가 나온 다음에 조선은 비로소 조선이라는 이름과 협화하여
하늘이 말씀하시고 명하시니 총독은 잘 총독의 입을 다하시고
군자의 덕은 반드시 소인의 풀을 쓰러뜨리니
거리의 노래가 방백(方伯)의 향상된 도로써 하고
앞드립니다. 각하. 이 성명(聖明)의 땅에 나서서 충효의 사이에 자라시니
문무의 훌륭한 기량은 일찍이 천하를 경륜할 뜻을 가지셨고
해륙(海陸)의 군략은 일찍이 서양에서 유학하신 때에 단련하셨고
러시아와 독일은 바람과 천둥의 위엄을 두려워하여 백전을 보았지만 충용(忠勇)이 원
대하니
태하에서 띠와 숫돌의 맹세에 오르시고, 양조를 섬겨서 훈귀(勳貴)가 극에 달하셨으니
황(皇) 위엄이 이르고, 일통을 다스리시어 빛나시니
저 백성이 태어나고 천지를 다스리고 귀복시키시니
옛날에 구구하고 연나라 형나라 같은 가까운 작은 나라는 오히려 오히려 멀어서 다르
시기 어렵다는 근심이 있었는데
하물며 지금 막막한 선만(鮮滿)의 현격하게 다른 것은 어찌 밭에서 깨는 덧 같은 명이
없으리오
모두 말하기를 폐하가 바로 그사람이다.

가서 기뻐하니 너의 밖 이것은 누구인가
 멀리 가서 잘 너의 넓은 뜻을 펼치고, 나가서 13도 부군을 진정하니
 과거와 현재의 변화를 따라서, 보고 4, 5년을 역임하니
 국가정치에 문화보급을 표방하니
 인민은 강복(康福)하여 산업이 증진되어서 본원(本源)을 이루니
 학교는 더욱 무성하고, 교육은 점차 발달하니
 칭송하는 말에 날마다 난포함은 사라지고 자연히 귀복하니
 전습(傳習)이 또 개량되고 농림공상은 정밀하게 빨리 달려나가고
 고유하시고 다시 시찰하니 도로교량은 문명을 발휘하며
 백성의 재난과 빈궁에서 구원하고, 과부·고아가 동사와 아사를 면하니
성(聖) 진실로 □소(□詔)를 펴서 노인과 병자들이 또한 교화의 은혜를 알고
 효행과 열녀를 드러내서서 기강을 숙정하는 효가 현저하고
 방종을 단속해서 풍속을 연마하셔서 바로 잡으시고
 방수(防水)의 일을 힘쓰셔서 곳곳마다 물고기가 되는 근심을 면케하시고
 위생의 법을 장려하시어 온 세상에 칭송하는 말이 있게 하시고
 국민정신을 일찍이 함약진작하시고
 외부의 생각이 악화하니, 참소·경시하는 것을 배척하시고
성(聖) 내선용화의 방책으로 일시동인의 ○뜻을 받들어 체현하시고
 동양평화의 방책으로 만민이 공영하는 공심을 세우시고
 드러내지 않으시고 평범하게 태평한 날에 보이시니
 위엄을 떨치시니 과연 하례를 다투는 것이 구름과 같도다.
 엇드려 생각건대(소생 7천만인 동포중, 아주 작은 분자로 52년 황야밖의 초원에서 분
 주히 다녔는데)
 평일독서하여 일찍이 현(賢)을 좋아하는 뜻을 절실히 하고
 하늘을 우러러 성이 있어 거칠지만 선을 갈망하는 마음을 알고
 귀천이 서로 달라, 감히 어이지희(御李之喜-조선에서 벼슬하는 것)을 바랐고
 우러르고 받들어 미나리를(작은 물건을) 바치는 성의를 절실히 하고
 별레들도 노래하니 오호라 감화하지 않은 것이 없구나
 받들고 축원하니 진실로 이것의 마음속에 구비되어
 엇드려 표를 한 장으로 정을 쓴 글을 올리오며

대저 만세토록 끝이 없는 수(壽)를 축원하나이다.

1924년 10월 20일

평안남도 대동군 남환면 노남리 유생 최화주

〈출전 : 崔華疇(1793-1)〉

30. 한규복(韓圭復)

[30-1]

도쿄시 요쓰야구 나카초 3의 44

사이토 마코토 각하

친전(親展)

충북청주관사

한규복

근계(謹啓).

요즈음 추워지는데 각하는 지난번 이래 건강이 좋지 못하고 전지(轉地) 요양을 위해 내지를 여행하시는 중인데, 그 후 경과 어떻게 되셨는지 문안 여쭙습니다. 여쭙 것도 없이 이번 여름 유럽에 건너간 동안의 심로(心勞) 및 장도의 여행에서 조선에 돌아오신 후의 번무(繁務) 등의 일로 자연히 건강은 나빠지셨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앞으로는 제대로 정양하시는 한편 하루라도 빨리 완쾌하시도록 신에게 기도 올립니다.

사실은 본 출장의 때 뵙고 말씀 드려야 하는데 한창 바쁘셔서 도리어 폐라고 생각해서 참가하였으므로 죄송하지만 관용을 내려주시기를. 우선은 즉시 문병을 말씀드리고자와 같이 올립니다.

경구(敬具).

11월 28일

한규복

사이토 마코토 각하

[30-2]

도쿄시 요쓰야구 나카초 3의 44

사이토 마코토 각하

조선 청주
한규복

근계(謹啓).

엄한(嚴寒)의 때를 맞이하여 어떻게 지내시는지 문안 여쭙습니다. 아뢰 말씀은 각하께서 이번에 병환을 정양하기 위해 갑자기 조선총독의 대임을 그만두신 다는 것을 들었는데, 종래 깊은 보살핌과 지도를 받고 있어, 항상 그 커다란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소생으로서는 실로 청천하늘에 날벼락으로 진실로 유감스럽기가 이보다 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특히 심하게 잠월(潛越)한 말이 있었지만, 각하 처음에 내임(來任)하셨을 당시는 아시다시피 만세사건 직후라서 물정(物情)이 소란스럽고, 민심의 안정이 결여되어 그 귀추가 어지러운 중요한 때에 각하께서는 일시동인(一視同仁)의 성지(聖旨)를 받들어 2천만 민중의 심정을 밝게 살피시어 특히 민심의 안정에 힘쓰시고, 문화적 정책으로서 통치의 방침으로 삼으신 이래, 춘풍추우(春風秋雨) 하는 9년 그 사이에 지방제도의 개정, 교육시설의 충실, 산업정책의 확립, 철도 교통의 개선, 기타 백방으로 노력하셔서 착착 좋은 결과로 이끄시고, 찬연한 오늘의 세태로 인도하셔서 조선을 새롭게 변화시킨 위대한 일은 중외(中外-일본과 세계)에서 한결같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각하께서는 노구를 꺼리지 않으시고 조선내의 각지를 끊임없이 순사(巡査)하시고 나서 지방의 민정 등을 친히 시찰 하신 것은 역대에 그 예를 볼 수 없는 일로 지방민의 깊은 광영으로 하고 특히 감사드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은 백척간두 일보를 더 나아가서, 특히 반도민의 행복증진에 대해서 각하의 웅장한 계획이 펼쳐지려고 하는 이때에 갑작스런 퇴임에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각하께 바라건대 자중하시고 병환의 정양에 진력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전쾌하시기를 신에게 기도드림과 동시에 금후 반도통치에 대해서는 직접 만나 뵈고 나서 제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선 재임 중의 간절한 정에 사의를 표하고 아울러 병환의 문병을 올립니다.

경구(敬具).

추신)

예로부터 호두는 천식에 특효가 있다고 한방의(韓方醫)가 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

서 약소하지만 본도(本道)에서 생산되는 호두 한 상자 보내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1927년 12월 13일

한규복

사이토 마코토 각하

시사(侍史)

[30-3]

경성 왜성대 관저
사이토 총독 각하

해주(海州)관사
한규복

근정(謹呈).

혹한(酷寒)의 때를 맞이하여 더욱 건강하셔서 경하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사회의(知事會議)때문에 출부(出府)하셨을 때에는 간곡하고 독실한 훈시를 받고 또 매우 후한 대우를 입어 진실로 감사하여 깊이 후사 드리는 바입니다. 덕택에 어제 무사히 귀임(歸任)했습니다. 금후 훈시의 취지를 체현하기 위해 한층 힘을 다하고 싶습니다.

우선은 이상 감사인사 드리고 싶은 것이 이와 같습니다.

경구(敬具).

1월 18일

한규복

사이토 총독 각하

[30-4]

인천부(仁川府) 송판정(松坂町) 3의 3
사이토 자작 각하

해주
한규복

1931년 10월 20일

숙계(肅啓).

이제 바람이 차가운 계절인데 더욱 건강히 지내시니 크게 경하 드립니다. 이번에 각 하께서 조선으로 건너오신 것은 반도 산하의 중심으로부터 환영말씀을 드리는 상황이며, 벽지의 백성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서로 높은 덕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이래 외지 여행하셔서 피로하실 것 같습니다. 실은 조속히 찾아뵈어야 할 것이지만 공무 다망하기 때문에 아직 실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삼가 존안을 뵈는 영광을 얻고 싶습니다. 당지에서 생산되는 배 1상자를 보내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우선은 근래의 상황을 말씀 드릴 겸 이와 같이 적습니다.

경구(敬具).

1931년 10월 20일

한규복

사이토 자작 각하

시사(侍史)

〈출전 : 韓圭復(1743-1, 2, 5, 10)〉

31. 한상룡(韓相龍)

[31-1]

도쿄시 요쓰야구 나카초 4의 5

남작 사이토 마코토 각하

경성 한성은행

한상룡

근계(謹啓).

요즈음 더욱 건승하심을 경하드립니다. 각설하고 이번에 기원절(紀元節)에 상을 받아서 생각지도 않게 훈3등(勳三等)의 승서(陞敍)의 은전을 입어 몸의 광영 이보다 더한 것이 없고, 두렵고 황송해서 어찌할 수 없는 바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불초 조선 재계에 몸을 던진 이래 그 세월 혹은 짧지는 않지만 너무 자잘해서 성과 없이 끝난다고 생각하여 두려워하고 황송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외람되게도 이번의 영전을 받은 것은 오로지 각하의 간독(懇篤)한 지도와 비호의 덕분이라고 한결같이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를 위해 아픈 몸을 채찍질하여 전심전력으로 힘쓰고, 재계를 위해 분투하여 커다란 은혜의 만분의 일이라도 갚고 싶은 각오입니다. 부디 장래에도 편달·지도를 해주시기를 오로지 기원 올립니다. 우선은 이상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경구(敬具).

1924년 2월 15일

한상룡

사이토 마코토 각하

[31-2]

도쿄시 요쓰야구 나카초(仲町) 3초메(三丁目) 44
남작 사이토 마코토 각하
어친천(御親展)

1925년 2월 7일
경성 가회동
한상룡

근계(謹啓).

봄바람이 추운 때, 각하는 더욱 건승하게 지내신다고 하니 크게 경사스러운 것이 지극합니다. 아뵐 말씀은 도쿄로 가신 이래 의회 용무 기타로 정하여 둔 여러 가지 일은 조심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며칠쯤 조선에 돌아오시는 것으로 예정하시고 계신지요. 소생은 항례에 의해 오는 17일 쯤 당지를 출발하여 20일경 도쿄에 도착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형 한상학(韓相鶴)의 신상에 관해서는 미리 여러 가지로 높은 배려를 받고 있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왕직(李王職)에서는 구(丘)가 직원의 도태·정리를 단행하고 신직원을 채용할 뜻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의 형은 미리 말씀드린 대로 현재 집안에 있고 재기하여 벼슬에 나가기를 오래도록 열망하였지만 아직 기회를 얻지 못했으므로, 이번에 이왕직 직원정리를 기회로 꼭 채용의 영광을 입어 왕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형편이고, 이왕직 장관 및 차관도 속사정을 아시고 좋은 뜻을 갖고 계신 모양입니다. 너무 제 뜻대로 인 것 같아 황송하지만, 이때 각하께서 이왕직 장관에게 간곡한 글을 보내주시면 한층 더 상황이 좋게 진행될 것이므로 각별하신 호의를 갖고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더욱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저의 형 임관에 대해서는 혹자가 중상적 방해를 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어 진실로 의외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은 본건에 대해서는 소생 도쿄에 가서 친히 간청을 말씀드리고 각하의 뜻을 얻고 싶습니다만, 정리 직원은 10일 이내에 발표할 모양이어서 후임자의 추천에도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몹시 실례를 무릅쓰고, 대략 편지로 갖추어 말씀드리는 것이므로 부디 전술한 사정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동인(同人)의 종래의 입장을 동정해주

셔서 자비에 의해 이 기회에 꼭 벼슬에 나가고자 하는 바람이 이루어지도록 특별히 이 왕직 장관에 간절한 명령을 내려주셨으면 하고 앞드려 희망합니다.

우선은 이상의 간원 겸 인사 올리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돈수근언(頓首謹言).

1925년 2월 7일

한상룡

사이토 각하

[31-3]

도쿄시 요쓰야구 나카초
남작 사이토 마코토 각하

경성부 가회동 93
한상룡

근계(謹啓).

봄을 맞이하여 더욱 건승하셔서 크게 경하 드립니다. 아뢴 말씀은 각하께서 이번에 군 축회의전권대사의 중임을 맡으셔서 조만간 출발하신다고 하니 우리나라를 위해 경축할 일입니다. 그런데 장기간에 걸쳐 우리 조선의 땅을 떠나신다는 것은 조선을 위해 진실로 안타깝고 유감스러워서 견디고 어렵고, 더욱더 사모의 염(念)을 금하기 어렵습니다.

부디 장도의 여정에 한층 더 몸을保重하시고 가양(加養)하셔서 대임을 온전히 다하시고 조선에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더욱이 각하 부재중은 임시총독대리로서 우가키(宇垣) 육상(陸相) 각하께서 취임하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생은 아직 각하께서는 면식이 없으므로 정무 다망하신 중에 황송하기 짝이 없지만 좋은 기회가 있으면 소생 및 한성은행 일에 관해서 잘 소개를 해주실 수 있었으면 하고 오로지 마음을 다해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선은 축하인사 겸 알리고 싶은 것이 이와 같습니다.

경구(敬具) 근언(謹言).

1927년 4월 14일

한상룡

자작 사이토 마코토 각하

[31-4]

도쿄시 요쓰야구 나카초
자작 사이토 마코토 각하
어친전(御親展)

경성 가회동 93
한상룡
12월 7일

근계(謹啓).

각하께서는 도쿄에 가신 후 병환이 어떻게 되었는지 삼가 문안 여쭙습니다. 날이 갈수록 추워지는 때에 보양(保養)에 힘쓰셔서 빨리 완쾌하시기를 오로지 기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신문 호외의 보도에 의하면 각하께서는 이번에 사표를 봉정(奉呈)하시고 조만간 퇴임하신다고 하니 정말로 놀랍고 두렵습니다.

각하께서 총독의 인수(印綬)를 받으신 이래 다년간 밤낮으로 통치에 애쓰시느라 심로(心勞)를 다하시고 훌륭한 치적을 올리신 것에 상하 모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취임 이래 우리 한성은행을 위해서 평범하지 않은 높은 배려를 해주셨고, 또 불초 개인으로서는 공적으로 사적으로 다대한 은혜를 입어 진실로 그 간절한 정은 감명(感銘)을 다하지 못합니다. 이번에 정말로 자애스런 아버지와 헤어지는 것처럼 통석의 염 한층 절실합니다. 바라건대 장래 변함없이 지도 및 후원을 내려주시기를 엿드려 간절히 기원합니다.

더욱이 각하의 후임은 어느 분으로 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부디 후임의 분에게는 당행 및 불초의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또 신임 선은(鮮銀) 총재께도 잘 소개해주시기를 황송히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병환의 문병과 감사인사 겸 소원을 아뢰고 싶습니다.
근언돈수(謹言頓首).

12월 7일

한상룡

자작 사이토 마코토 각하

〈출전 : 韓林曉(1747-9)〉

[31-5]

도쿄시 요쓰야구 나카초
사이토 마코토 각하
어친전(御親展)

경성 가회동 93
한상룡
4월 4일

숙배(肅拜).

지난 날 존한(尊翰)을 받아서 황송하고 감사합니다. 요즈음 더욱 건승하게 지내신다고 하므로 경하 올립니다. 그런데 당행 임시 주주총회는 다행히 주주 분들의 양해와 동정에 힘입어서 중대 사항은 겨우 1시간 반 만에 모두 원만 평온하게 결정되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두를 위해서 또 재계를 위해서 취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생은 총회석상에서 인책 사직을 성명했는데 다행히 주주 많은 분들의 동정이 있어서 그 허용여부를 정리위원회 및 중의회에 일임하도록 되었는데 소생은 책임상 및 여러 사정으로 유임불

가능을 자각하고 총독 및 재무간사에게 사정을 말씀드렸는데 모두 원만하게 양해해 주셔서 이번에 당행 고문으로서 유임하라 라는 말이 있어 소생은 기꺼이 승낙하였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소생의 체면도 서고 총독부 및 주주의 온정도 나타나 진실로 사정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처럼 각하의 간독(懇篤)한 권유·의사에 반하는 태도를 황송하고 죄송스럽습니다만, 금후 소생은 고문으로서 한은을 위해 여전히 노력하자 수락하였으므로 아무쪼록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은 보고 겸 감사인사 드립니다.

근언(謹言).

4월 4일

한상룡

사이토 각하

[31-6]

도쿄시 요쓰야구 나카초(仲町)

사이토 마코토 각하

어친전(御親展)

경성 가회동 178

8월 16일

한상룡

근계(謹啓).

더운 여름을 맞이하여 각하께서는 더욱 건승하게 지내신다니 경하 드립니다.

아될 말씀은 이번에 각하께서 다시 조선총독으로 취임하신다고 하니 국가를 위해 경하드릴 일이라고 생각하여 삼가 축하의 인사 올립니다. 금후 조선의 최고 간부의 지리도 영구히 안정될 것이고, 민심도 안정될 것이고, 중앙정부와의 절충도 잘 될 것이므로 조선을 위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이때 각하께서는 이 조선을 위해 기꺼이 취임을 수락해 주셔서 우리 조선인 일동 진실로 감읍(感泣)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고,

산하초목 다시 소생하는 기세가 있고, 저도 자모(慈母)를 다시 보고 말씀 올리는 것 같습니다. 금후 소생의 일에 대해서는 부디 어여삐 봐주셔서 중정(重情)을 받아 다시 실업계에서 유쾌하게 활동하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제 뜻대로만 말씀드리는 것 같아 황송합니다. 우선 이상 감사인사 겸 부탁드립니다.

근언(謹言).

8월 18일

한상룡

사이토 각하

시사(侍史)

[31-7]

숙계(肅啓).

요즈음 더욱 건승하게 지내신다고 하니 경하 드립니다. 그런데 각하께서는 이번에 대명을 받아 조각(組閣)되는 내각수반으로 취임하시니 정말로 경사스럽고 국가를 위해서도 아주 중대한 일입니다. 이에 우리 조선에 있어서는 일대서광이 보이고 2천만 민중 한결같이 환영하고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방면에 걸쳐서 비상시국에 임하였지만 충분한 결심으로 크게 성공하실 것을 기원 올립니다.

그런데 전년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주택회사 일건에 대해서 조선총독부 7년도 실행 예산에 계상(計上)하게 했습니다. 이 회사의 창립은 일반 조선인이 크게 기대하고, 오로지 그 창립이 빨라지기를 희망하고, 조선인 주식의 응모, 토지 신탁의 방법 등도 입안되었습니다. 현재 이마이다(今井田) 총감이 도쿄에 가신 중이어서 의회에서도 뭔가 계획도 있었지만 각하로부터 동 총감 및 장상(藏相)에게 편달을 내려주셔서 그 설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합니다. 소생에 있어서도 이 경제계에서 재활하는 것은 단지 이 계획뿐이고 이번에 각하의 입각은 실로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기쁨을 견디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이상 감사인사 올릴 겸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근언(謹言).

5월 28일

한상룡

사이토 각하

시사(侍史)

〈출전 : 韓相龍(1747-5, 6, 8, 9, 13, 15, 17)〉

32. 한창수(韓昌洙)

도쿄시 요쓰야구 나카초(仲町) 3의 44
자작 사이토 마코토 전(殿)

경성
이왕직 장관 남작 한창수

배계(拜啓).

봄바람이 피부에 차갑게 느껴지는 때에 기거 어떠하신지 여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창덕궁에서 각하와 영부인께 드릴 기념품제작이 몹시 늦어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완성되어서 도쿄의 저택으로 발송하므로 조만간 도착할 것이라 생각하므로 승낙해주셨으면 하고 이상으로 귀하신 뜻을 얻으려고 합니다.

경구(敬具).

1928년 3월 1일
이왕직 장관 남작 한창수

자작 사이토 마코토 각하

〈출전 : 韓昌洙(1746-2)〉

33. 홍승균(洪承均)

왜성대 관저
사이토 마코토 각하

청주 관사
홍승균

근계(謹啓).

드디어 건강해지셨음을 경하 드립니다. 아뢰올 일은 저번 회의로 상부(上府)하였을 때는 여러 일에 돈독한 지도를 해주시고, 또 정중하고 정성스런 초대를 받아서 감사하기 짝이 없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충주 방면의 초도 시찰을 끝마치고 이제 귀임했습니다. 학교소요문제에 대해서는 미리 그 방지를 위해 지난달 말에 상당히 신경을 썼는데, 본도 청주공립고등보통학교 및 동 농업학교 학생 일부가 끝끝내 진부한 행동으로 나와 정말 황송하기 짝이 없고, 학생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조사하고 관찰하고 경계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평온한 것이 있고, 그 선후조치에 대해서는 많은 유감이 없도록 기약할 것임으로 부디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위의 글을 인사로 가름합니다.

경구(敬具).

1월 24일

홍승균

사이토 마코토 각하

〈출전 : 洪承均(1783-1)〉

34. 홍준표(洪俊杓)

[34-1]

조선 경성 총독관저
남작 사이토 마코토 각하

도쿄시 고이시카와오모테초(小石川表町) 홍준표

우리 조선청년학생에게 경고한다

조선교육가 홍준표

제군, 눈을 널리 아세아 전반에 집중시키라. 우리민족은 지금 과연 어떠한가. 많게는 아직 수면 중에 있지 않으면, 피로 곤궁함이 극에 달하지 않았는가, 그 사이에 서서 참람되게 구미에 대항하는 것은 오직 일본제국이 존재할 뿐. 아 이와 같은 아세아민족으로서 구미민족에 비교하는가, 거의 같은 날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할 것을 기다릴 것도 없다. 한 손가락으로 교대로 치는 것은 한 주먹으로 이기는 것만 못하다. 아세아 민족은 잘 피아의 이해감정을 버리고 혼연히 융합해서 감히 구미인을 배척할 필요 없다고 해도, 그들에 대해서 그 권리를 주장하고 인종에 대한 협량을 타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같은 것은 몸으로 진실로 동아시아에 사는 자가 모름지기 염두에 두고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아닌가. 그런데 근래 조선의 독립을 절규하고, 소요를 도모하는 자가 있고, 더구나 할 일 많은 청년학생들이 뇌동부화해서 일어나는 자가 많다고 들었다. 어찌 개탄하지 않겠는가. 대저 학생의 본분이라는 것은 학문을 연구해서 후에 크게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데 있다. 학생도 연인이다. 일단 완급상황에서는 원래 몸을 던져서 나아가는 것을 불가하다고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현재의 상황을 보건대 생활의 압박 아직 학업을 폐하고 서야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믿어 의심하지 않는 바이다.

총독정치 이에 20년, 그 치적 원래 완전무결을 바랄 수는 없다고 해도, 그것을 구 한국 시대의 정치와 비교해서 과연 훨씬 뛰어나다고 한다. 내가 교묘한 말로 억지로 총독정치를 찬양하는 자가 아니다.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는, 하늘을 우러러 보고 땅을 내려 보아 부끄러운 것이 없다. 생명·재산이 안전하고 확고한 것이 저때 있었는가. 지금 있는가. 가림주구에 질린 것을 알지 못하고, 저축이 없어서 땅으로

지불하기에 이른 것은 구한국 관리의 악정이 아닌가. 비참한 더러운 집에 살고, 누에처럼 움직이고, 산업은 떨치지 못하고, 농업은 신장되지 않고, 학문은 일어나지 않고, 공업·미술 따위는 완전히 버려지고, 돌아보지 못할 시대는 과연 현재인가, 아닌가. 청년제군이여 제군은 과거의 사정을 잘 아는가, 알지 못하다면 무지하다. 알면서 경거망동에 나서는 것은 무지가 더욱 심한 자이고 크게 우둔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크게 우둔해서 이름도 없는 죽음을 다투는데 이른 것은 진실로 교육받은 자가 할 행동이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명해져서 말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한다.

청년제군이여, 독립의 허명에 움직여져 경거망동하는 것을 그만두라. 이름은 필경 실(實)의 손님이다. 경거망동은 독립을 얻는 이유가 아니다. 가령 독립이 필요 있다 해도, 현재 조선의 인사(人士)의 재산으로써 잘 독립의 실을 올리고 또 지속할 수 있는가. 말할 것도 없이 다른 원조 있고 의뢰심은 일을 이루는 원인이 아니다. 이 의뢰심의 나라를 잘못하게 한 일을 잊었는가. 불가능한 일을 알지 못하고 헛된 수고를 하는 것은 허무하게 재산을 상실하는데 그친다. 빈궁이 한층 더 심해질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 일부 인사의 생명·재산을 걸고 도리어 전체 조선 인사의 생명·재산을 그 보호에서 떨어뜨리려는 가. 실로 가련하기 이를 데 없다. 허명을 동경하는 것은 현대의 일이 아니고, 실력이 존재하는 곳 진실로 존경받을 만하다. 제군은 어찌서 각자 학업에 노력하고, 용진매진하여 자기의 수양에 힘쓰고 학문을 이루고 일을 마쳐서 후진을 이끌고, 교육의 보급에 진력하여 같이 우리 동포의 지식을 증진시키고, 그런 후 서서히 자치를 도모하고, 정권을 요구하고, 그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권리를 얻고, 후에 내지의 동포와 구별하지 않는 것에 이른다면 무슨 불만이 있고, 무슨 부족이 있겠는가. 이것은 가장 정당한 길이지만 가장 쉽지 않은 길이다. 저 소위 후원자라고 하는 자도 입으로는 정의·인도를 설명하면서 추호도 실행할 생각이 없는 교언영색의 무리로 조금이라도 신뢰하기에 부족하다. 학과 조개를 다투게 하고 어부의 이익을 차지하려는 것은 명명백백하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가볍게 일어서는 것은 가장 심하게 잘못하는 것이다. 청년학생제군이여, 제군이 젊어서 기운이 예리하고 활기가 충만 것은 진실로 기뻐할 만하지만, 제삼, 제사 심사숙고하라. 조금씩 생각해서 학업을 깨뜨리는 것은 고금동서에 그 예 실로 적지 않다. 내가 어찌 변론을 좋아하겠는가. 단지 하나의 노파심에서 허무하게 좌시하는 것을 참지 못한다. 이것 진실로 마음을 피력해서 제군에게 경고하는 이유이다.

1920년 10월 일
경고자 홍준표

[34-2]

가나가와현(神奈川県) 하고마치초(葉小町) 1
자작 사이토 마코토 각하
어필친전(御必親展)

도쿄시 고이시카와오하라초(小石川大原町) 30번지
근상(謹上) 11월 4일 불초 홍준표 배

근봉배서(謹奉拜書).

각하 건강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정말로 경축하고 하례 드립니다. 그런데 천하의 공당(公黨)을 국가의 공적(公賊)이라고 말하는 일이 있습니다.

총독을 비롯해 정무총감의 지위는 중대한 것입니다. 이 중대한 지위를 일부분의 여당 등이 어떤 일종의 감정적인 것으로 좌우해서 움직인다는 것은 조선통치를 위해 다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충남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원안으로서 그것을 실행한 이상 오히려 공로자라고 인정해야 한다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반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은 여당의 어리석은 책동이라고 사람들에게 악평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각하께서 강고(強固)히 계셔서 현상을 지키실 것을 바랍니다.

돈수경백(頓首敬白).

11월 4일
불초 홍준표

자작 사이토 마코토 각하

[34-3]

시내 요쓰야구 나카초 2초메(二丁目)
자작 사이토 마코토 각하
어필친전(御必親展)

고이시카와오하라초(小石川大原町) 30번지
근상(謹上) 9월 13일 불초 홍준표

근봉배서(謹奉拜書).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각하께서 건강하셔서 경하 드립니다. 그런데 외인(外人) 사이의 설(說)을 별지에 적어서 올리므로 참고삼아 보아주셨으면 하고 올립니다.

배구(拜具).

9월 13일
불초 홍준표

자작 사이토 마코토 각하

(재류)

도쿄구미인의 동아문제에 대한 관측적 비평

국제연맹 조사단의 보고서 관계자 일동에게 이익을 줄 것으로 믿는다.

실제 릿튼경이 건의한 말은 일본의 국제연맹에 탈퇴를 절실히 간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믿는다.

그 보고서는 외교정책상 현명한 책(策)으로서 명성을 전세계에 알리려는 것으로, 즉 만주문제는 아래의 3항에 귀일하는 것이다.

1. 일본의 경제적 권리의 안전보장
2. 중국의 정치적 권리의 안전보장
3. 이계(異係) 각국의 화해

위의 3항 중 제2항은 가장 먼저 해결할 국난(國難)이다.

왜냐하면 정치적 권리는 원고가 정치적 실체를 갖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이러한 까닭에 현명한 외교책으로서 일본에 실질을 주고, 중국에 그림자를 주는, 일본·중국 양국 및 국제 각국 간의 회의에 의해 전부 융합 화해시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평한다.

〈출전 : 洪埈杓(1782-1, 6, 7)〉

찾아보기

【ㄱ】

- 가토 마쓰오(加藤增雄) 378
 가토 토모사부로(加藤友三郎) 321
 가토 후사조(加藤房藏) 367
 갑신역안(甲申逆案) 349
 갑오경장(甲午更張) 346, 349
 강우규(姜宇奎) 471
 강위수(姜渭秀) 253
 갱생사(更生社) 474
 경성농공은행 253
 경성방송국 56
 경성방직회사 423
 경성청년회(京城青年會) 170
 경술병합(庚戌併合) 346
 경찰관리무기사용규정 137
 계명구락부 468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麿) 316
 고마다 히데오(兒玉秀雄) 125, 128, 366, 388, 389
 고종 349
 고토 신페이(後藤新平) 398
 고희경(高羲敬) 454
 공진회 357
 곽송령(郭松岭) 451, 452
 광주농공은행 253
 광후(光厚) 421
 교육조사회 47, 230
 구낙서(具洛書) 434
 구로키 다메모토(黒木爲楨) 407
 국가총동원법 82, 127, 128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82
 국방보안법 126
 국시유세단(國是遊說團) 354
 국유재산조사국 193
 국제공산당(코민테른) 101
 국제연맹 58
 군기보호법(軍機保護法) 126
 궁삼면(宮三面) 사건 191
 권기형(權基衡) 434
 권대형(權大衡) 435
 권동수(權東洙) 434
 권동진 444
 권병선(權炳善) 434
 권오설(權五高) 163
 권중혁(權重赫) 434
 권중현(權重顯) 378
 권평원 195
 귀족원(貴族院) 130, 135, 136, 156, 171
 금융제도준비조사위원회 284
 금융조합연합회 236, 275, 278, 279, 280
 궁제유장(兢齊俞丈) 359
 기유년(己酉年) 콜레라 유행 354
 기쿠치 겐조(菊池謙讓) 351
 김관현(金寬鉉) 415
 김광희(金光熙) 434
 김교성(金敎性) 435
 김기태(金琪陟) 253
 김도홍(金道弘) 253
 김두익(金斗益) 434
 김명수(金明秀) 416, 418, 421, 422
 김병순(金炳淳) 434

김병유(金秉有) 254
 김복한(金福漢) 349, 379
 김봉주(金鳳柱) 434
 김상현(金尙鉉) 404
 김성수(金性洙) 364, 423
 김영선(金永善) 434
 김영주(金永柱) 434
 김영택(金泳澤) 253
 김옥균(金玉均) 348
 김용국(金容國) 434
 김용주(金用柱) 424, 425, 426, 428, 430
 김용진(金容珍) 435
 김용태(金容泰) 253
 김유영(金裕泳) 434
 김윤복(金允福) 431
 김윤식(金允植) 47, 379
 김응배(金應培) 434
 김재규(金再奎) 434
 김종범(金鐘範) 212
 김준희(金駿熙) 253
 김중현(金重鉉) 434
 김진석(金鎭奭) 434
 김찬(金燦) 166
 김창빈(金昌彬) 434
 김척안(金隻眼) 346
 김충희(金忠熙) 254
 김치수(金致洙) 212
 김택현(金澤鉉) 432, 434
 김한규(金漢奎) 253
 김해광(金解光) 167
 김현영(金顯英) 460
 김형옥(金衡玉) 253
 김환(金丸) 365

【ㄴ】

나상문 195

나소봉 352
 나수연(羅壽淵) 351
 나정문(羅正門) 194
 나카무라 겐타로(中村健太郎) 129, 136, 365, 469
 남궁억(南宮億) 351
 남궁영 436, 437, 438
 남병문(南秉文) 434
 노구교(蘆溝橋) 사건 332
 노무라 미노루(野村稔) 473, 474
 노무라 초타로(野村調太郎) 171
 노병환(盧秉煥) 434
 노봉식(盧奉植) 434
 노즈 미치쓰라(野津道貫) 407
 노즈 시즈타케(野津鎮武) 378
 농공은행 235, 236
 농림국 262
 농본사(農本社) 474
 농산어촌진흥운동 65, 75, 81
 농촌진흥운동 116
 농촌진흥자력갱생운동 82
 니시무라 야스키치(西村保吉) 227

【ㄷ】

다나카 기이치(田中義一) 314, 398, 408
 다카하시 고레키요(高橋是清) 309
 다카하시 하마키치(高橋濱吉) 472
 단연동맹(斷煙同盟) 378
 대동동지회 463
 대동학회(大東學會) 379
 대만용자긴급칙령안 155
 대만은행 40
 대만의회 136
 대장성(大藏省) 40
 대한자강회(大韓自強會) 378
 테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40, 44, 141, 338, 354, 355, 357, 366, 400, 404, 405, 460

데부치 가쓰지(出淵勝次) 55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318
 도쿠다이지(德大寺) 66, 68
 도쿠토미 조이치로(徳富猪一郎) 339, 345, 354,
 364, 366, 367
 독립협회(獨立協會) 350
 동궁어학문소(東宮御學問所) 399
 동민회 467, 469
 동아일보사 169
 동양척식주식회사 179, 187, 189, 191, 192, 193,
 194, 195, 196, 198, 215, 219, 235, 246, 255,
 256, 354, 446
 등통(鄧通) 347

【ㄹ】

러일전쟁 394
 레닌 100, 107
 루즈벨트 대통령 44
 루터 158

【ㅁ】

마남 339
 마루야마 시게토시(丸山重俊) 378
 마르크스 100, 108
 마쓰오 모키치(松尾茂吉) 365
 마츠다 겐지(松田源治) 325
 만주사변 65, 70, 116, 125, 127, 128
 매하산인(梅下山人) 348
 메가다 타네타로(目賀田種太郎) 378
 모리 고이치(森悟一) 237
 문봉흡(文鳳洽) 434
 문일환(文日煥) 434
 문천수(文千洙) 434
 미나미 지로(南次郎) 72, 77, 80, 81, 82, 125,
 404, 405, 410, 411
 미쓰야 미야마쓰(三矢宮松) 363

미야 마사코(梨本宮方子) 46
 미야베 게이치(宮部敬治) 361
 미즈노 렌타로(水野) 406
 민병석(閔丙奭) 439, 440
 민영기(閔泳綺) 378
 민우섭(閔牛涉) 365
 민정당(民政黨) 157, 159, 399
 민종식(閔宗植) 379
 민중당(民衆黨) 154

【ㅂ】

박규철(朴奎喆) 434
 박기순(朴基順) 253
 박기천(朴箕天) 434
 박동근(朴東根) 434
 박문국 346
 박병윤(朴秉潤) 434
 박봉래(朴鳳來) 434
 박석운(朴錫胤) 501
 박성환(朴星煥) 382
 박승효 195
 박영근(朴永根) 253
 박영효(朴泳孝) 237, 252, 348, 379, 442, 443
 박제륜(朴齊倫) 434
 박제순(朴齊純) 378
 박중양(朴重陽) 443, 444, 445, 446, 447, 448,
 450, 452, 453, 455
 박춘금(朴春琴) 456, 457
 박태보(朴泰輔) 360
 박하준(朴夏駿) 253
 반도우 고타로(坂東幸太郎) 88
 방곡령 134
 방태영(方台榮) 365
 배재학당 350
 배정태(裴貞泰) 434
 백남신(白南信) 253

백아관(白亞館) 365
백완적(白完懃) 253
백인기(白寅基) 253
백준기(白駿琦) 434
백형린(白衡麟) 434
백흥기(白興基) 458
베텔(裴說) 347, 339
보안법(保安法) 94, 138, 149, 162, 171, 172
불세비키 147
북풍회(北風會) 168
비스마르크 165, 166

【ㄱ】

사상범보호관찰법 120, 124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35, 37, 45, 49, 66, 69,
77, 79, 134, 199, 234, 263, 264, 285, 307,
308, 313, 314, 322, 358, 363, 390, 391, 400,
405, 415, 416, 418, 423, 424, 425, 428, 429,
431, 432,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5, 446, 447, 448, 450, 453, 455, 457,
458, 459, 462, 463, 464, 466, 467, 470, 471,
477, 491, 492, 493, 494, 496, 497, 498, 499,
500,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11,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7, 528
사카모토 료마(坂本龍馬) 481
사하대회전(沙河大會戰) 407
사회주의동맹(社會主義同盟) 167
사회주의소비에트연방공화국 166
산업조사위원회(産業調査委員會) 199, 200,
201, 202, 205, 208, 209, 210, 213, 219, 220,
223, 225, 230
산업조사위원회규정 199
산업회의소연합회(産業會議所聯合會) 209
3·1운동 171, 462
서병조(徐丙朝) 253

서상열(徐相烈) 434
서울청년회 166
서재필 348
서태석(徐台哲) 434
석진형 459, 461
선우갑(鮮于甲) 462
선우순 463
선우일(鮮于日) 365
성기운(成岐運) 378
소계자(蘇季子) 360
소호(蘇峰) 365
손병희 444
송경헌(宋鏡憲) 502
송덕수(宋德綏) 254
송병준(宋秉峻) 354, 444, 464
송봉우(宋奉瑀) 170
송진우(宋鎭禹) 169
쇄단사(鎖斷社) 88
스기야마 시게마루(杉山茂丸) 464
스탈린 107
시대일보사(時代日報社) 170
시데하라 히로시(幣原坦) 378
시모노세키조약 42, 349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347
신간회 96, 97
신기선(申箕善) 379
신문지법(新聞紙法) 87, 91, 94, 132, 133
신봉길(申奉吉) 434
신석린 466, 467
신양호(申良浩) 434
신양호(申錫浩) 434
신일용(辛日鎔) 171
신정구락부(新正俱樂部) 384
신철(辛鐵) 168
신흥청년동맹(新興青年同盟) 165
심우섭(沈友燮) 468, 470, 471, 472, 474

심천풍(沈天風) 365
심태무(辛泰斌) 253

【ㅇ】

아리가 미즈도미(有賀光豊) 237
아리후 류로(蟻生十郎) 351
아카시 모토지로(明石元二郎) 355, 408
안지정(安之亭) 366
안홍익(安鴻翼) 434
알렉산더 166
애국반 82
야마나시 한조(山梨半造) 49, 50, 51, 52, 77,
78, 265, 266, 271, 274, 280, 323, 405, 439
야마자키 노부요시(山崎延吉) 55
야마자키 마사오(山崎真雄) 454
야마카와 다다오(山川端夫) 56
야마카와 히토시(山川均) 147
양기탁(梁起鐸) 352
양지묵(梁止默) 434
양치차오(梁啓超) 345
양홍묵(梁弘默) 350
어윤중(魚允中) 501
어인(魚仁) 501
엄주익(嚴柱益) 191, 192, 194
엄형인(嚴亨仁) 493, 494
여병섭(呂柄燮) 212
염창석(廉昌錫) 434
염창순(廉昌淳) 434
예방구금위원회 121
오노 로쿠이치로(大野緑一郎) 406
오바라 나오시(小原直) 111, 112
오병희(吳秉熙) 434
오사카 아사히신문(大阪朝日新聞) 355
오세열(吳世烈) 434
오야마 이와오(大山巖) 407
오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 357, 404

5·15사건 406, 485
오타니 소뉴(大谷尊由) 316
오탈균(吳台均) 434
오헌영(吳憲泳) 434
와카즈키 레이지로(若槻禮次郎) 87, 89, 91, 155
왕이철(王以哲) 370
왕일성(王日成) 434
요고사무라이 166
우카키 가즈시게(宇垣一成) 52, 55, 56, 64, 66,
71, 77, 79, 81, 291, 393, 395, 396, 397, 399,
400, 402, 405, 440, 468, 517
우치다 코사이(內田康哉) 398
위안스카이(袁世凱) 348
위암거사(韋庵居士) 348
유 역(柳 瑒) 434
유광조(劉光祚) 253
유길준(兪吉濬) 379
유도진흥회(儒道振興會) 330
유병남(劉秉南) 434
유인석(柳麟錫) 349
유일선(柳一宣) 477
유자와 미치오(湯澤三千男) 318
육군군법회의법 120
육종윤(陸鐘允) 490
윤갑병(尹甲炳) 492
윤낙준(尹洛俊) 194
윤덕영(尹德榮) 237, 252
윤상태(尹相泰) 253
윤성운(尹聖運) 253
윤우당(尹于堂) 366
윤치소(尹致昭) 350
윤치호(尹致昊) 212, 460, 468
윤항석(尹恒錫) 434
윤효정(尹孝定) 353, 378
이강(李塉) 456
이강원(李康元) 253

- 이계두(李啓斗) 434
이관룡(李官龍) 434
이광수(李光洙) 366
이군상(李軍相) 380, 381
이귀옥(李貴玉) 434
이규선(李圭宣) 434
이규환(李奎煥) 434
이근배(李根培) 434
이근택(李根澤) 378
이길선(李吉善) 434
이노우에 가쿠고로(井上角五郎) 345
이노우에 준노스케(井上準之助) 346, 399
이동선(李東璇) 434
이내래(李萊來) 253
이마이다 기요노리(今井田清德) 56, 395, 397, 401, 406, 520
이만영(李萬永) 434
이명환(李明煥) 253
이방협(李邦協) 493, 494
이병무(李秉武) 380
이병학(李柄學) 253
이사연(李士演) 434
이상협 365
이상협(李相協) 364
이선민(李仙民) 434
이설(李僊) 349
이승호(李承灝) 434
이영(李英) 164
이완구 495, 496, 497
이완구(李完求) 495
이완용(李完用) 347, 378, 380, 383, 416, 417, 422, 444, 453
이용섭(李鎔燮) 435
이용직(李容植) 47
이은수(李殷秀) 434
2·26사건 396
이익상(李益相) 368
이인(李仁) 169
이인수(李寅秀) 434
이인직(李人植) 365
이재명(李在明) 354
이정도(李正道) 495
이정윤(李廷允) 166
이종면(李宗勉) 253
이종일(李鍾一) 351
이지용(李址鎔) 378
이진태(李鎭泰) 253
이진호(李軫鎬) 498, 499, 500, 501, 502
이창술(李昌述) 434
이택현(李澤鉉) 254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353, 354, 366, 378, 416
이판용(李判用) 434
이하영(李夏榮) 378
이해수(李海秀) 434
이호준 421
이화춘 195
이회춘(李回春) 192
이희인(李喜仁) 495
이희재(李希宰) 460
인제(麟提) 사건 376
일로당(日勞黨) 154
일본공산당 101, 108, 112
일본농민당(農民黨) 159
일장기 말소 사건 331, 332, 333
일진회(一進會) 347, 353, 378, 383, 464
임우돈(林祐敦) 253
임행규(林幸圭) 434
입헌정우회(立憲政友會) 130
- 【ㄹ】
- 자강회(自強會) 353
자격단(自擊團) 381

- 자자교(自自敎) 사건 332
 자조사(自助社) 474
 자기(自知) 421
 장곽양웅전투(張郭兩雄戰鬪) 342
 장량(張良) 349
 장우근 503
 장우근(張宇根) 503
 장위암(張韋庵) 352, 366
 장작립(張作霖) 451, 452
 장제민(張濟民) 434
 장지연(張志淵) 346, 378
 장헌식(張憲植) 198, 504, 505
 전경여(全敬汝) 435
 전주농공은행 253
 전진호(全珍鎬) 254
 정낙교(鄭洛敎) 253
 정문숙(鄭文淑) 434
 정문옥(鄭文玉) 434
 정병한(鄭炳韓) 434
 정병현(鄭丙鉉) 254
 정보위원회 48
 정연표(鄭然表) 434
 정우봉(鄭遇奉) 434
 정우회(政友會) 130, 135, 157, 159, 357
 정운복(鄭雲復) 353, 365
 정재근(鄭在坤) 434
 정재학(鄭在學) 253
 정홍락(鄭鴻洛) 434
 정효서(鄭孝胥) 406
 제갈량 349
 제도사건(帝都事件) 405
 조병상(曹秉相) 506
 조병옥(趙秉玉) 435
 조병택(趙秉澤) 253
 조봉암(曹奉岩) 165
 조봉협정(朝奉協定) 363
 조상빈(曹相彬) 434
 조상필(曹相弼) 434
 조선금융제도조사회 265
 조선노동총동맹(朝鮮勞農總同盟) 163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 124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 124, 126
 조선사회운동단속법 92
 조선소작조정령(朝鮮小作調停令) 127
 조선시정5년기념공진회 357
 조선식산은행 219, 220, 224, 225, 234, 235,
 236, 237, 239, 240, 246, 249, 256, 278, 396
 조선은행 40
 조선인사조정령(朝鮮人事調停令) 127
 조선일보사 171
 조선차지차가조정령(朝鮮借地借家調停令) 127
 조선청년총동맹(朝鮮靑年總同盟) 164
 조선총독부 199, 227, 239, 240, 265, 280
 조선출판물령(朝鮮出版物令) 364
 조선토지개량주식회사(朝鮮土地改良株式會社)
 255, 256, 257
 조선형사령 124
 조일재(趙一齋) 365
 조종구(趙鐘九) 212
 조중응(趙重應) 379
 조진태(趙鎭泰) 253
 조합교회(組合敎會) 44
 조훈식(趙勳植) 434
 좌순영(左巡營) 351
 주성근(朱性根) 253
 중의원 91, 135
 중추원 349

【*】

- 차남식(車南植) 434
 차병연(車秉連) 434
 차유현(車楡軒) 434

채내석(蔡內錫) 471
 체르만 166
 체카 153
 최기림(崔基林) 434
 최두환(崔斗煥) 434
 최명식(崔明植) 434
 최병기(崔柄基) 434
 최응천(崔應天) 434
 최익현(崔益鉉) 349, 379
 최정규(崔鼎圭) 434
 최창선(崔昌善) 434
 최화주(崔華疇) 507
 추밀원(樞密院) 156, 157, 159, 162
 출판법 87, 91, 93, 94, 96, 97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85, 86, 87, 91, 92,
 94, 95, 96, 97, 98, 107, 109, 111, 112, 114,
 115, 126, 130, 132, 133, 134, 135, 138, 139,
 140, 142, 143, 145, 147, 149, 152, 153, 154,
 156, 157, 159, 160, 161, 162, 164, 165, 167,
 168, 169, 171, 172, 173, 174, 175

【ㄱ】

카쓰라 타로(桂太郎) 320
 카와무라 카게아키(川村景明) 407
 크로포트킨(Alekseevich Kropotkin) 100

【ㄴ】

통감부 339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346

【ㄷ】

편상영(片尙永) 434
 평안농공은행 253
 평양대동동지회 330

【ㄹ】

하라 다카시(原敬) 37, 305, 490
 하리스 44
 하마구치 오사치(濱口雄幸) 324, 398, 399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 357, 366, 380,
 405
 한규복 510, 511, 512, 513
 한규설 378
 한상길(韓相吉) 434
 한상룡(韓相龍)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한상학(韓相鶴) 515
 한인수(韓仁守) 434
 한창수(韓昌洙) 522
 한호농공은행 253
 함경농공은행 254
 함석태(咸錫泰) 471
 함창현(咸昌鉉) 434
 함방건백서(合邦建白書) 348
 해군군법회의법 120
 허전명(許田明) 384
 헌정회 130, 135
 혁신구락부 130
 현기봉(玄基奉) 253
 홍명희(洪命熹) 170
 홍승균(洪承均) 523
 홍엽산인(紅葉山人) 365
 홍영식(洪英植) 348
 홍정식(洪淨植) 434
 홍준표(洪竣杓) 524, 526, 527
 화요회(火曜會) 166
 황국협회(皇國協會) 346
 황영식(黃泳植) 434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 345
 히로타(廣田) 397
 힌덴부르히 166